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완료상  
보조동사 교육 연구

- ‘버리다’, ‘내다’, ‘말다’를 중심으로 -

2017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전공

高 玉 冰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완료상

보조동사 교육 연구

- '버리다', '내다', '말다'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구 본 관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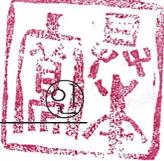
高 玉 冰

고옥빙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16년 12월

위원장 민 병 준 

부위원장 김 호 정 

위 원 구 본 관 



## 국문초록

한국어의 보조동사는 통사적으로나 의미적으로 본동사를 도와서 동사의 서술 기능을 문법적으로 완전하게 해 줄 수 있으며 시제와 상, 양태, 사동과 피동 등 다양한 문법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다. 또한 보조동사는 현대 국어에서 사용 빈도가 높고 일상대화에서 자주 나타나는 표현이므로 한국어교육의 어휘와 문법 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동작의 완료된 모습을 나타내는 완료상 보조동사는 기본적으로 유사한 상적인 의미를 가지지만 각각 그 나름의 양태적인 의미도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완료상 보조동사 중에 ‘버리다’, ‘내다’와 ‘말다’는 비교적 사용 빈도가 높고 의미적, 통사적으로 유사한 점이 많아 중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학습에 많은 어려움을 준다. 그러므로 중국인 학습자가 완료상 보조동사의 의미와 통사적인 제약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능력을 키우게 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교수 학습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I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을 밝혔으며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기존의 연구를 정리해 보면 완료상 보조동사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국어학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한국어교육에서의 연구는 적은 편이다. 또한 중국인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국어 대응 표현을 검토한 연구는 많지 않고, 소수의 연구에서도 중국인 학습자의 학습 양상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완료상 보조동사의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고자 한다.

II장에서는 국어학의 보조동사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완료상 보조동사 ‘버리다’, ‘내다’와 ‘말다’의 본동사의 의미, 상적인 의미, 양태적인 의미 및 통사적인 결합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개별 문형의 의미를 검토한 후에 이 3개의 문형 간에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해 보았다. 또한 중국인 학습자의 학습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국어의 대응 표현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는데, 이때 중국어의 결과보어에만 중점을 두어 대조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어와 한국어의 완료상 보조동사의 다양한 대응 관계를 살펴보았다.

III장에서는 이론적인 고찰을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의 완료상 보조동사에 대한

인식과 습득 양상 및 중국 현지에서의 한국어교육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실험은 중국 대학교의 한국어과 재학 중인 4학년 학습자 62명에게 실시하여 총 3차례로 진행하였다. 1차 조사는 보조동사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조사인데 이를 통해 학습자의 완료상 보조동사의 사용 빈도와 인식 양상을 파악하였다. 2차 조사는 습득 양상 조사인데 이는 번역 테스트, 담화 완성 테스트, 문법성 판단 테스트로, 이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의 완료상 보조동사 습득 양상 및 자주 범하는 오류의 양상에 대해서 밝혔다. 마지막 3차 조사에서 현재 받고 있는 한국어교육 과정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를 파악하였다. 3차례의 설문 조사를 거쳐 학습자의 인식, 습득 양상 및 교육과정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았고, 학습자가 자주 범하는 오류의 원인을 찾기 위하여 사후 인터뷰도 함께 실시하였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 중국인 학습자가 완료상 보조동사를 사용함에 있어 회피 현상이 종종 일어나며, 보조동사의 의미상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여 혼동하기 쉽다, 즉 대치 오류를 자주 범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중국인 학습자가 보조동사의 통사적인 결합 관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형태적인 오류도 많이 범한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오류 양상을 크게 모국어의 간섭에 의한 오류, 목표어의 복잡성에 의한 오류, 교육과정에 의한 오류의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 오류 원인을 분석하였다.

IV장에서는 II장과 III장에서 검토한 이론적인 고찰과 학습자의 인식 및 사용 양상을 바탕으로 한국어 완료상 보조동사의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설계하였다. 우선 완료상 보조동사의 교육의 목표를 종합적인 목표와 세부적인 목적으로 나누어 수립하고, 교육 내용을 개별 보조동사의 교수 내용과 보조동사의 유사한 의미에 대한 교수 내용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설정한 교수·학습의 목표와 내용에 따라 형태 초점 접근법에 속하는 입력 강화 기법과 의식 고양 과제를 통해 교수 방안을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PPP 모형과 OHE 모형을 통해 교수·학습 모형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어 완료상 보조동사에 대한 중국인 학습자의 사용 양상 및 오류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완료상 보조동사 ‘버리다’, ‘내다’, ‘말다’의 의미적, 통사적인 차이를 구별하여 상황에 맞게 보조동사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한 교육 내용 및 교수 방안을 설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한국어 교육, 완료상 보조동사, 중국인 학습자, 형태 초점 접근법.

**학 번** : 2014-25216

# 목 차

<b>제 1 장 서론</b> .....	<b>1</b>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선행 연구 .....	6
2.1. 한국어 완료상 보조동사에 대한 연구 .....	6
2.2. 한국어 보조동사 교육에 대한 연구 .....	7
2.3. 중국어 대응 표현에 대한 연구 .....	8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	9
<b>제 2 장 이론적 전제</b> .....	<b>12</b>
1. 한국어 보조동사의 개념 및 구성의 특징 .....	12
1.1. 한국어 보조동사의 정의 .....	12
1.2. 보조동사 구성의 특성 .....	12
2. 한국어 완료상 보조동사의 의미 및 특징 .....	13
2.1. 한국어 상과 보조동사 .....	13
2.2. 보조동사 ‘버리다’의 의미 및 특징 .....	16
2.2.1. 본동사 ‘버리다’의 의미 .....	16
2.2.2. 보조동사 ‘버리다’의 상적인 의미 .....	17
2.2.3. 보조동사 ‘버리다’의 양태적인 의미 .....	19
2.2.4. 보조동사 ‘버리다’의 통사적인 결합 관계 .....	21
2.3. 보조동사 ‘내다’의 의미 및 특징 .....	28
2.3.1. 본동사 ‘내다’의 의미 .....	28
2.3.2. 보조동사 ‘내다’의 상적인 의미 .....	29
2.3.3. 보조동사 ‘내다’의 양태적인 의미 .....	30
2.3.4. 보조동사 ‘내다’의 통사적인 결합 관계 .....	31
2.4. 보조동사 ‘말다’의 의미 및 특징 .....	34
2.4.1. 본동사 ‘말다’의 의미 .....	34
2.4.2. 보조동사 ‘말다’의 상적인 의미 .....	35

2.4.3. 보조동사 ‘말다’의 양태적인 의미 .....	35
2.4.4. 보조동사 ‘말다’의 통사적인 결합 관계 .....	37
2.5. 보조동사 ‘버리다’, ‘내다’, ‘말다’의 비교 .....	39
3. ‘버리다’, ‘내다’와 ‘말다’의 중국어 대응 표현 .....	43
3.1. 중국어 결과보어 .....	43
3.2. 다른 형식과 대응 .....	45

### 제 3 장 완료상 보조동사 인식 및 습득 양상 ..... 50

1. 조사 설계 .....	50
1.1. 연구 참여자 정보 .....	50
1.2. 조사 구성 및 절차 .....	51
2. 조사 결과 분석 .....	64
2.1. 완료상 보조동사의 인식 양상 및 분석 .....	64
2.2. 완료상 보조동사의 습득 양상 및 분석 .....	68
2.2.1. 보조동사 ‘버리다’의 습득 양상 .....	71
2.2.2. 보조동사 ‘내다’의 습득 양상 .....	78
2.2.3. 보조동사 ‘말다’의 습득 양상 .....	83
2.3. 완료상 보조동사의 교육 실태 .....	88
2.3.1. 학습자의 학습 경력 .....	89
2.3.2. 교사 .....	89
2.3.3. 교재 .....	90
2.4. 시사점 .....	94
3. 중국인 학습자의 완료상 보조동사 오류 원인 분석 .....	96
3.1. 모국어의 영향에 의한 오류 .....	97
3.2. 목표어의 복잡성에 의한 오류 .....	99
3.2.1. 보조동사별 의미와 통사적 제약의 복잡성 .....	100
3.2.2. 보조동사 간에 의미 기능의 유사성 .....	101
3.3. 교육과정에 의한 오류 .....	103

### 제 4 장 완료상 보조동사 교수·학습 방안 ..... 106

1. 완료상 보조동사 교육의 목표 .....	106
2. 완료상 보조동사의 교수·학습 내용 .....	108
2.1. 완료상 보조동사 제시 순서 .....	109
2.2. 개별 보조동사의 의미 및 통사적 교육 내용 구성 .....	110
2.3. 보조동사 간 유사한 의미 비교에 근거한 통합적 교육 내용 .....	118
3. 완료상 보조동사의 교수·학습 방법 .....	121
3.1. 형태 초점 접근법 .....	122
3.1.1. 입력 강화 기법 .....	124
3.1.2. 문법 의식 고양 과제 .....	127
3.2. 문맥 중심 교수법 .....	128
4. 한국어 완료상 보조동사의 교수·학습 실제 .....	131

**제 5 장 결론 .....** 138

참고문헌 .....	141
부    록 .....	146
Abstract .....	153

## 표 차 례

[표 1] 중국 교재의 보조동사 ‘버리다’, ‘말다’, ‘내다’ 의미 제시 .....	3
[표 2] 보조동사의 상적인 의미에 대한 연구 .....	15
[표 3] 완료상 보조동사 의미적 및 통사적 특성 대비 .....	41
[표 4] 한국어 완료상 보조동사와 중국어 대응 표현 .....	47
[표 5] 연구 참여자 정보 .....	51
[표 6] 한국어 완료상 보조동사 인식 양상 조사의 구성 .....	53
[표 7] 완료상 보조동사 습득 양상 설문 조사 구성 및 원리 .....	54
[표 8] 완료상 보조동사의 습득 양상 조사 구성 예시 .....	56
[표 9] 완료상 보조동사 통사적인 제약 설문지 예시 .....	62
[표 10] 한국어 교육 실태 조사의 구성 예시 .....	63
[표 11] 사후 인터뷰 질문 예시 .....	63
[표 12] 완료상 보조동사 사용 빈도 조사 .....	65
[표 13] 완료상 보조동사의 습득 인식 조사 .....	65
[표 14] 보조동사 ‘버리다’의 의미 인식 조사 .....	66
[표 15] 보조동사 ‘내다’의 의미 인식 조사 .....	66
[표 16] 보조동사 ‘말다’의 의미 인식 조사 .....	66
[표 17] 한국어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의 완료상 보조동사 습득 양상 통계 .....	69
[표 18] 한국인과 중국인 학습자의 완료상 보조동사별 조사 결과 비교 .....	69
[표 19] 중국인 학습자의 완료상 보조동사별 조사 결과 비교 .....	70
[표 20] 보조동사 ‘버리다’의 대응 표현 조사 .....	72
[표 21] 보조동사 ‘버리다’의 양태 의미 습득 조사 .....	73
[표 22] 보조동사 ‘버리다’의 통사 제약 습득 조사 .....	76
[표 23] 보조동사 ‘내다’의 대응 표현 조사 .....	78
[표 24] 보조동사 ‘내다’의 양태 의미 습득 조사 .....	79
[표 25] 보조동사 ‘내다’의 통사 제약 습득 조사 .....	82
[표 26] 보조동사 ‘말다’의 대응 표현 조사 .....	83
[표 27] 보조동사 ‘말다’의 양태 의미 습득 조사 .....	84
[표 28] 보조동사 ‘말다’의 통사 제약 습득 조사 .....	86
[표 29] 학습자 학습 경력 조사 .....	89

[표 30] 교수 방식 조사 .....	89
[표 31] 교수 방식 만족도 조사 .....	89
[표 32] 중국대학의 한국어 교재 문형 비교 .....	90
[표 33] 교재에 대한 학습자 만족도 조사 .....	92
[표 34] 한국어 완료상 보조동사의 교육 목적과 목표 .....	107
[표 35] 중국 교재에서 완료상 보조동사의 제시 순서 .....	109
[표 36] 한국 교재에서 완료상 보조동사의 제시 순서 .....	110
[표 37] ‘버리다’ 교육 내용 구성 .....	111
[표 38] ‘말다’ 교육 내용 구성 .....	113
[표 39] ‘내다’ 교육 내용 구성 .....	115
[표 40] 통합적인 교육 내용 예시 .....	119
[표 41] 문맥 중심 교수법의 교수 학습 단계 .....	130
[표 42] PPP 모형의 구성 .....	132

## 그 립 차 례

[그림 1] 한국어 완료상 보조동사와 중국어의 대응 관계 .....	48
[그림 2] 한국어 완료상 보조동사의 제시 순서 .....	110
[그림 3] PPP 모형과 OHE 모형의 관계도 .....	134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중국 국내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한국어 보조동사 ‘말다’, ‘버리다’, ‘내다’의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어의 보조동사는 통사적으로나 의미적으로 본동사를 도와서 동사의 서술 기능을 문법적으로 완전하게 해 줄 수 있는데 시제와 상, 양태, 사동과 피동 등 다양한 문법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다. 김한샘(2012)에 따르면 국립국어원(2005)의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2”에서 조사와 어미를 제외하고 조사된 65,535개의 일반 어휘 항목 중에 보조동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0.07%이고 보조동사의 빈도가 전체 어휘 빈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57%에 이르므로 보조동사는 현대 국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한국인들이 자주 쓰는 보조동사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최현배 <우리말본>(1937)에서 움직씨의 하위 부류로 도움움직씨를 설정한 이래로, 보조동사에 대한 연구는 통사론과 의미론, 그리고 시제와 상, 양태 등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콤키(Comrie, 1976)에서 상은 완료상과 미완료상으로 구성된다고 하였고, 고영근·구본관(2008)에서는 동작상이란 동사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진행이나 완료와 같이 개별 시제에 종속되어 있는 동작의 양상을 가리킨다고 하였는데, 이때 동작의 양상이 끝난 모습을 완료상이라고 하였다.

완료상과 미완료상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더 세부적인 분류 방식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상적인 의미를 지닌 보조동사에 대한 연구는 주로 보조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의 완료나 지속, 유지 등 다양한 모습에 대해서 검토하여 시상의 분류 기준과 체계에 따라 보조동사를 판정하고 분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어학에서 상 체계에 대한 전체적인 분류 기준은 크게 동일하지만 세부적인 분류 방식은 학자마다, 또 연구마다 다소 차이를 보인다. 이에 따라 보조동사의 상적인 의미를 위주로 한 연구도 연구마다 다른 주장을 제시하였다.

보조동사 중에 완료라는 상적인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보조동사는 양적으로 가장 많다고 할 수 있는데 기존의 연구 결과를 정리해 보면 이러한 보조동사는

주로 ‘-어 나다’, ‘-어 내다’, ‘-어 버리다’, ‘-고 나다’, ‘-고 말다’, ‘-어 있다’, ‘-어 치우다’, ‘-어 두다’, ‘-어 놓다’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조동사들에 대한 연구 역시 다양한 분류 방식<sup>1)</sup>과 개별 보조동사의 상적인 의미와 양태적인 의미에만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 왔는데, 이들을 비교하여 밝힌 이들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한 언급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 모어 화자들은 이렇듯 의미상 유사한 문법 항목 간의 차이점을 인식하기 쉽고, 혹 차이점을 명시적으로 설명하지 못해도 상황에 맞게 보조동사를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발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나 외국인 학습자들에게는 이러한 문형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아주 어렵다. 외국인 학습자들이 완료상 보조동사와 같은 유사한 의미를 지닌 문형들을 배우면, 기본적으로 ‘완료’라는 의미는 잘 습득함에도 불구하고, ‘-어 버리다’ 구문과 ‘-어 내다’ 구문의 의미 차이를 인식하지 못해 실제 상황에서는 이러한 문형들을 회피하거나 잘못 쓰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한국어교육에서 이러한 유사한 문형들을 대조 비교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어에는 한국어의 보조동사의 기능과 비슷한 보어라는 문법범주가 있다. 특히 그중에 결과보어라는 것이 한국어의 완료상 보조동사와 유사하게 선행하는 술어를 도와주며 동작이 완료됨에 따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결과보어는 중국의 한국어교육에서 종종 한국어 보조동사의 대응 표현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대응 관계로 인해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보조동사 구문의 의미를 가르칠 때 중국어의 결과보어와 대응시켜 교수하는 일이 잦다. 그러나 한국어의 보조동사는 중국어의 결과보어와 일대일의 대응 관계가 아니라, 발화의 상황과 맥락에 따라 중국어의 시간 부사, 시상 표지 등 여러 가지 문형과도 대응될 수 있어 이들 간에 다양하고 복잡한 대응 관계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중국인 학습자들이 중국어의 결과보어의 용법과 의미의 영향을 받아 보조동사를 상황에 맞게 쓰지 못하거나 보조동사의 다양한 양태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 보조동사 사용을 회피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난다.

또한 이러한 완료상 보조동사들은 본래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모어인 중국어의 문법 체계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중국인 학습자들에게는 중국어의 유사

---

1) 완료상 보조동사에 속하는 문형들이 많고, 이것의 분류 기준 및 의미적, 통사적 기능에 대한 연구는 학자마다 다를 정도로 다양하다. 손세모달(1996:79~80)과 박선옥(2005:22~24)은 보조동사의 의미에 대한 분류를 제시하였다.

표현 간의 차이점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맥락적 의존도가 높고, 화자의 다양하고 미묘한 태도를 나타낼 수 있으며, 의미적으로도 비슷한 한국어 보조동사를 중국어 결과보어나 시간부사와 일대일 대응시켜 교수하는 것이 항상 바람직하지는 않다.

중국의 한국어교육 과정에도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중국 북경 외국어 대학교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는 민족출판사의 “한국어(1~4)”인데 이 교재에 실린 보조동사 ‘버리다’, ‘말다’, ‘내다’의 의미 해석과 예문은 다음과 같다.

<표 1> 중국 교재의 보조동사 ‘버리다’, ‘말다’, ‘내다’ 의미 제시

문형	-어 버리다	-고 말다	-어 내다
출처	제3권 제8과	제2권 제12과	제2권 제13과
뜻풀이	表示徹底完了的意思	表示動作的最終完成, 相當於漢語的“最終.....”	用於他動詞后, 表示該動作做到底, 最後得到某種結果
예문	그 일 벌써 다 끝내 버렸어요? 這麼快就把那件事做完了?	말았던 일을 어제 다 끝내고 말았다. 擔負的工作終於在昨天完成了。	직원들이 모두 힘을 합해서 어려움을 이겨 낸 결과겠지요. 是職員們齊心協力克服困難的結果。

위 표에서 볼 수 있듯 ‘버리다’와 ‘말다’에 대한 의미 해석과 예문은 거의 비슷하게 제시되어 있다. 현재 중국 국내 여러 대학에서 사용하는 교재는 다양한데, 문법 항목이 대화문 뒤에 나오고 중국어 대응 표현 한 마디로 해석하여 예문을 제시하는 방법을 취하는 교재가 대부분이다. 물론 한국어 문형과 중국어 번역을 잘 대응시키면 학습자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효과적인 보조동사의 교수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어 보조동사와 중국어의 대응 표현의 관계 및 중국의 한국어교육 과정에 대하여 자세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모든 완료상 보조동사들을 연구 대상으로 보지 않고 ‘버리다’, ‘말다’, ‘내다’에만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고자 한다. 국립국어원의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2’의 빈도 순위에 따르면 ‘버리다’, ‘말다’, ‘놓다’, ‘내다’, ‘두다’ 등의 문형에 비해 ‘치우다’는 비교적 사용 빈도가 낮고<sup>2)</sup> 또한 통사적 제약도 심

하므로 본 연구의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두다’와 ‘놓다’의 경우, 이 둘은 동작의 완료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동작의 유지와 보유라는 의미를 더욱 강조하여 완료상이 아닌 지속상에 더 가깝기 때문에 ‘두다’와 ‘놓다’도 본 연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국에서 널리 사용하는 몇 가지의 한국어 교재를 살펴보면 ‘-어 내다’, ‘-고 말다’, ‘-어 버리다’ 문형들이 모두 교재의 문법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 점이 이들의 교육적인 가치가 공인되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버리다’, ‘말다’, ‘내다’는 ‘완료’라는 공통적인 상적 의미를 공유하더라도 각각이 갖고 있는 양태적 의미와 통사적 제약은 같지 않다. ‘버리다’, ‘말다’, ‘내다’의 사전적 의미<sup>3)</sup>를 비교해 보면 ‘버리다’와 ‘말다’는 비슷하게 ‘아쉬움’이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고 ‘내다’는 주로 ‘어려움 극복’이라는 의미를 강조한다. 통사적으로 보면 ‘버리다’와 ‘말다’에 비해 ‘내다’는 통사적인 제약이 더 심하다. 그러나 화용적인 측면에서 한국인의 실제 사용 양상을 보면 이 세 가지 문형 간에 차이가 명확하지 않아 보이고 서로 겹치는 부분도 많다. 이러한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한국어 보조동사 표현은 중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학습에 어려움을 주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한다. 서로 의미적이든 통사적이든 비슷한 보조동사들에 대해 학습자가 한국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도움 없이 이들 간의 미세한 차이점을 인식하여 이들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최해주(2006)에서

2) 이 조사는 국립국어원에서 1990년 후에 출판된 문헌을 대상으로 하여 문헌 앞부분 약 5000 어절을 끊어 627개의 표본, 300만 어절의 어휘 분석 말뭉치를 구축한 것이다. 전체 어휘 빈도는 3,086,031인데 이 중 보조동사의 빈도는 141,168이다. 대표적인 보조동사의 빈도 순위는 다음과 같다. 있다(4), 하다(9), 않다(12), 지다(20), 주다(26), 보다(28), 못하다(49), 오다(77), 싣다(82), 버리다(124), 말다(129), 가다(136), 놓다(141), 내다(180), 듯하다(316), 나가다(335), 가지다(359), 나다(371), 두다(378), 만하다(447), 치우다(1128).

3)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나타난 ‘내다’, ‘말다’, ‘버리다’의 뜻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버리다	말다	내다
앞말이 나타내는 행동이 이미 끝났음을 나타내는 말. 그 행동이 이루어진 결과, 말하는 이가 아쉬운 감정을 갖게 되었거나 또는 반대로 부담을 덜게 되었음을 나타낼 때 쓴다.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 끝내 실현됨을 나타내는 말. 일을 이루어 낸 데 대하여 긍정적인 생각 또는 부정적이고 아쉬운 느낌이 있음을 나타낸다.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 스스로의 힘으로 끝내 이루어짐을 나타내는 말. 주로 그 행동이 힘든 과정임을 보일 때 쓴다.

는 총 74개의 보조동사를 선정하여 한국어 교육용 보조동사 목록을 정리하고,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보조동사의 습득 양상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초·중·고급을 막론한 모든 학습자들에게 보조동사 학습이 제대로 내재화가 되어 있지 않아 ‘-고 있다’, ‘-고 싶다’ 등과 같은 이해하기 쉽고 사용빈도가 높은 일부 보조동사 외에 다른 보조동사는 사용하지 못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용빈도가 높고 교육적인 가치가 있으나 학습자들이 학습할 때 자주 어려움을 느끼는 완료상 보조동사인 ‘버리다’, ‘말다’, ‘내다’를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기존의 한국어교육에 관한 연구에서 외국인을 위한 완료상이나 종결상 보조동사의 교수 학습 방안에 대한 연구는 양적으로 적고 특히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는 보통 개별적인 문형에 대해 검토하여 유사점이나 차이점을 정리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는데, 학습자의 특성과 학습 양상 등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학습자의 오류에 대한 연구는 문법 범주에 따라 주로 조사, 어미, 시제 등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왔고 오류의 유형은 거의 비슷하게 누락, 대치, 첨가, 과잉 사용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오류의 분류 기준이 특정 문법 항목의 분석에 적용되지 못할 때도 있으므로 목표 문법 항목의 특성에 따라 학습자의 학습 양상과 오류 원인에 대한 분석이 자세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중국인 학습자에게 한국어 완료상 보조동사의 효과적인 교수 학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국인 학습자가 완료상 보조동사를 사용할 때 어떤 오류를 자주 범하는지, 그리고 왜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상세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이상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보조동사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목표를 설정한다.

첫째, 한국어 보조동사 ‘버리다’, ‘말다’, ‘내다’에 대한 국어학의 연구를 바탕으로 상적, 양태적 의미와 기능 및 통사적 기능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중국어 대응 표현과의 관계를 검토한다.

둘째, 중국인 고급 학습자의 보조동사 ‘버리다’, ‘말다’, ‘내다’의 오류 양상을 살펴보고 학습자 오류 원인을 분석한다.

셋째,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보조동사 표현 교육 내용을 구안하고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한다.

## 2. 선행 연구

### 2.1. 한국어 완료상 보조동사에 대한 연구

한국어 완료상 보조동사에 대한 연구는 국어학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보조동사의 상적인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왔는데 통사적이거나 양태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연구도 적지 않다.

손세모들(1996)에서는 ‘버리다’와 ‘내다’의 의미와 통사적인 제약에 대하여 언급한 바가 있다. ‘버리다’의 기본적인 의미는 ‘종결’, 즉 ‘완전히 끝남’이라는 것인데, 문맥에서 ‘버리다’는 ‘종결’의 의미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아쉬움’, ‘마음의 부담 제거’ 혹은 ‘시원함’ 등의 심리 태도도 나타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반면, ‘내다’는 ‘완료’를 바탕으로 하여 ‘어려움을 이기고 끝까지 한다’는 ‘성취’의 의미를 더욱 강조한다고 하였다. 여기서는 ‘말다’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진행하지 않았으나, ‘말다’는 독립된 서술어로 쓰이고 일반 용언의 의미로 설명될 수 있으므로 보조용언으로 보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민현식(1999)에서는 ‘-고 말다’를 ‘-아 내다, -어 버리다’와 같이 의존동사로 처리하였고 선행 용언과 결합하여 ‘완료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한 바가 있다. 또한 김성화(1989)에서는 본동사로서의 ‘말다’의 의미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독립성이 상실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말다’는 ‘-고’와 연결되어 고 앞에 오는 동작이 단절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고 말다’를 보조동사로 인정하여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위의 두 연구에서 ‘-고 말다’의 양태적인 의미와 통사적인 제약 등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박덕유(1998)에서는 다양한 보조용언의 상적 의미를 분석한 다음에 ‘-어 버리다’는 완료라는 상적 의미 외에도 ‘아쉬움, 후회스러움, 시원함, 기대에 어긋남, 부담 제거’ 등의 의미를 지니고, ‘-어 내다’는 행위자의 노력에 의지나 능력의 의미를 수반하며, ‘-고 말다’는 화자가 의도한 것과 반대적인 상황을 제시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각각에 결합 가능한 동사의 특징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김지은(1998)에서는 ‘버리다’, ‘놓다’, ‘두다’ 등 일부 보조동사를 선정하여 ‘양태 용언’으로 포함시켜 이들의 양태적 특성에 초점을 맞춰 연구하였다. ‘-어 버리다’ 구문은 완료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고 부정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언어 표현과 더 잘 결합된다고 하였다.

고영근(2004)에서는 보조동사를 완료상, 진행상, 예정상으로 분류하고 ‘-고 말다’와 ‘-어 버리다’를 완료상 보조동사로 정의하였다.

장미라(2006)에서는 보조용언 ‘놓다, 두다, 버리다, 내다, 말다, 치우다’ 등을 대상으로 삼아 보조동사의 의미와 통사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특히 ‘버리다, 두다, 놓다’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는데 이러한 몇 개의 보조용언들이 지닌 ‘행위의 완료’라는 상적인 의미를 설명하며 그 통사적 특징과, ‘주어 중심 양태’와 ‘화자 중심 양태’로 나눈 양태적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박선옥(2008)에서는 주로 보조동사의 역사적인 변화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여기서는 ‘버리다’와 ‘내다’를 완료상 보조동사로 정의하였고 15세기부터의 그 통사적인 의미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홍사만(2008)에서는 ‘내다’와 ‘버리다’에 초점을 맞추어 통사적으로 이 둘과 결합이 가능한 본용언에 대하여 검토하였고, 두 보조용언의 양태적인 의미도 살펴보았다. 이는 전의 연구와 달리 ‘내다’와 ‘버리다’의 양태적 의미 비교에 중점을 두어 연구하였다.

국어학에서 완료상 보조동사에 대한 연구는 적지 않으나 ‘버리다’와 ‘내다’에 비해 ‘말다’에 대한 연구는 양적으로 적은 편이고, 이들에 대한 통사적 또는 양태적인 분석은 다소 부족하다. 또한 이러한 연구에서 선정된 보조동사들에 대한 비교나 대조 역시 다소 미흡한 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2.2. 한국어 완료상 보조동사 교육에 대한 연구

한국어교육 관점에서의 보조동사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국어학에서 진행된 연구를 바탕으로 국어학의 연구 성과를 한국어교육에 적용하는 식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국어학의 연구에 비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한송화(2000)에서는 국어학 분야에서 보조용언에 대한 연구가 많고 한국어 교육에 기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나 한국어교육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고, 정확한 용법이나 의미 설명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며,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및 교재 분석을 통해 외국인을 위한 보조용언 교육용 목록을 선정하였다. 여기서는 종결이라는 의미를 지닌 ‘버리다’, ‘말다’, ‘내다’를 이 목록에 포함하여 그 의미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다.

최해주(2006)는 한국어교육용 보조동사의 선정 및 학습자 보조동사 사용 양상

을 연구하였고 그에 따른 적절한 교수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모든 보조동사의 분류 기준과 의미 및 학습자의 전체적인 사용 양상을 보여주었으나 보조동사 간의 세부적인 비교나 해석이 없다.

김효신(2007)은 한국어교육에서의 완료상 보조동사에 초점을 맞추어 양태와 상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화용적인 의미도 제시하였다. 이는 이론적인 해석을 위주로 하였으나 학습자에 초점을 두지 못했다는 점과, 화용적인 비교에 있어 주로 드라마나 영화 대본에서 나온 문장을 분석하였을 뿐,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 과정의 양상을 미처 다루지 못했다는 점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

### 2.3. 중국어 대응 표현에 대한 연구

중국어의 동사 중 일부는 다른 동사 뒤에 붙어 한국어의 보조동사와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동사를 보어라고 한다. 중국어의 결과보어에 관한 연구는 결과보어의 범주에 대한 논의부터도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王力(1943)와 施春宏(2008)에서 결과보어는 사동사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특히 施春宏(2008)에서 결과보어는 시간상의 종결이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 郭振華(2000)에서는 중국어의 결과보어는 특정한 동사와 형용사로 구성된다고 하며, “走, 跑, 完, 透” 등과 같은 동사나 형용사가 포함된 결과보어 목록을 제시하였다.

한국어 시상 보조동사의 중국어 대응 표현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있으나, 이러한 연구는 주로 진행상 보조동사 ‘-고 있다/-어 있다’와 중국어의 ‘着’를 대조 비교하는 주제 위주로 진행되었다. 한국어의 완료상 보조동사와 중국어의 대응 표현에 대한 연구는 적은 편인데 그중에 ‘버리다’와 중국어의 결과보어인 ‘掉’의 대조 분석에 대한 연구가 몇 편 있다. 李明花(2010)과 全遠紅(2013)에서 ‘버리다’와 중국어의 “掉”를 대조하여 연구한 바가 있는데 이들은 주로 두 문형의 형식이나 의미적인 유사점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한국어의 완료상 보조동사는 중국어의 결과보어와 의미 및 구조상 유사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점도 있다. 또한 중국어는 시상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며, 사건의 완료됨이 결과보어만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의미를 지닌 시간부사 등 다양한 표현들로도 표현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 관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어 완료상 보조동사 ‘버리다’, ‘말다’, ‘내다’의 중국어 대응표현을 선정하여 대조함으로써 이들 간의 차이점에 대해 보완하여 한국어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교수 학습 내용을 모색하고자 한다.

###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한국어학에서 보조동사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박선옥(2006)에서는 최근 개별 보조동사의 의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나 보조동사에 대한 정확한 개념의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보조동사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도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교육에 있어 초급 문형인 ‘-고 있다’나 ‘-어 보다’ 등의 보조동사에 대한 연구는 많은 편인 반면 고급 수준의 문형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

완료상 보조동사들은 공통적으로 완료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지니므로 학습자들이 이들을 헷갈려 하기 쉬우나 현재 중국의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보조동사에 대한 교육은 아직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완료를 표현할 수 있는 보조동사는 주로 ‘나다’, ‘내다’, ‘버리다’, ‘치우다’, ‘놓다’, ‘두다’, ‘말다’가 있는데 이 중에 ‘놓다’와 ‘두다’는 완료라는 의미보다 ‘보유’나 ‘지속’의 의미가 더 강하므로 우선 연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사용 빈도 조사 결과 ‘버리다’, ‘내다’, ‘나다’, ‘말다’에 비해 ‘치우다’는 사용 빈도가 낮고 주로 ‘먹어 치우다’ 형식으로만 쓰이는데 상대적 사용 빈도가 높을수록 교육적 가치가 높아지므로 ‘치우다’는 연구 대상에 제외된다. 또한 ‘나다’는 다른 세 가지의 보조동사와 달리 문장의 끝부분에 오지 않고 구조상 ‘내다’, ‘버리다’, ‘말다’와 큰 차이를 보이므로 연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말다’는 주로 ‘-고’와 연결되어 ‘내다’, ‘버리다’와 차이가 나지만, ‘-고 말다’와 ‘어 버리다’는 양태적인 의미에 유사한 점이 많고 교체 사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 학습자가 혼동하기 쉬운 문법 항목으로 작용하므로 본 연구는 보조동사로서의 ‘버리다’, ‘내다’, ‘말다’를 연구 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한국어 보조동사 ‘버리다’, ‘말다’, ‘내다’의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II장에서 국어학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어 완료상 보조동사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완료상 보조동사에 대하여 검토하기에 앞서 우선 완료상과 보조동사

의 개념 규명부터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전체적인 한국어 보조동사의 개념과 특징 및 한국어의 시상 개념과 분류 기준을 정리하여 살펴본 다음 완료상 보조동사인 ‘버리다’, ‘내다’, ‘말다’의 상적, 양태적인 의미 및 통사적인 특성과 결합 제약에 대하여 단어별로 자세하게 검토할 것이다. 그 후 이 세 보조동사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정리하여 분석할 것이다. 또한 중국의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대응 표현을 활용하여 문법 항목을 교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효과적인 교수 학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 세 개의 보조동사에 대한 중국어 대응 표현과의 대조 분석도 진행할 것이다.

III장에서는 중국인 고급 학습자의 완료상 보조동사에 대한 인식 및 사용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는 총 두 차례로 실시되었는데, 1차 조사는 학습자 인식 양상 조사이고 2차 조사는 사용 양상 조사이다. 1차 학습자 인식 양상 조사 설문지는 8개의 단답형 테스트로 구성하였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 현지에서 사용하는 교재들은 문법 해석에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문법 제시 순서에도 학습자에게 어려움을 줄 소지가 있다. 민족출판사에서 출시된 ‘한국어’ 1~4 중 ‘-고 말다’, ‘-어 버리다’, ‘-어 내다’는 각각 다른 호에서 제시되어 있는데, 이 때문에 교사의 추가적인 설명이 없으면 학습자들이 ‘말다’, ‘버리다’, ‘내다’를 의미적 또는 통사적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비교하여 구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1차 학습자 인식 조사를 통해 이러한 교사의 문법 제시 및 설명 방식과 현재 사용하는 교재에 대한 중국인 학습자의 태도를 파악할 수 있다.

2차 조사인 학습자의 사용 양상 설문지는 번역 테스트 6개, 담화 완성 테스트 9개와 문법성 판단 테스트 30개로 구성되었다. 조사는 중국 현지 대학교 한국어과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62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중국 대학교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는 학교마다 다른데, 형식도 다양하고 문법 항목의 배치 순서에도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교재에서 위의 세 개의 문법 항목은 주로 2학년 후반기나 3학년 상반기에 제시된다. 또한 학습자가 고급으로 올라갈수록 간단한 의사소통 위주의 언어 학습에서 벗어나 목표 언어의 문화나 문법 체계와 같은 보다 심층적인 지식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상과 양태 개념의 도입이나, 서로 비슷하고 혼동하기 쉬운 문법 항목에 대한 비교 및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중국 국내 대학교 한국어과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이와 비교하기 위하여 대조 집단으로 한국인 모어 화자 45명에게도 같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두 집단의 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분석하고, 2차례의 조사 결과를 합쳐 중국인 학습자의 완료상 보조동사에 대한 대략적인 인식 및 습득 양상을 파악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오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15명 조사 참여자에게 사후인터뷰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중국인 학습자의 오류 양상을 밝히고 그 원인을 분석할 것이다.

II장에서의 완료상 보조동사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과 III장에서의 중국인 학습자의 인식 및 습득 양상을 바탕으로, IV장에서는 중국인 고급 학습자에게 적절한 완료상 보조동사의 교수 목표를 수립한 뒤 교육 내용을 추출하고 구체적인 교수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적인 모의 수업을 통해 설계한 교수법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전제

### 1. 한국어 완료상 보조동사의 개념 및 구성의 특징

#### 1.1. 한국어 보조동사의 정의

보조용언은 다른 말에 기대어 쓰이면서 그 말에 문법적 의미를 더해 주는 용언이다. 보조용언의 품사를 구별하여 보조동사, 보조형용사라고도 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보조동사란 본동사와 연결되어 그 풀이를 보조하는 동사를 가리키는 말이다.

최현배(1937)에서는 움직씨의 하위 부류로 도움움직씨를 설정하였는데, ‘도움움직씨란 것은 제 홀로 완전한 풀이가 되지 못하고, 항상 으뜸움직씨의 뒤에 붙어서 그 풀이하는 일을 돕는 것을 이룸이니...’라고 하며 보조동사에 대한 최초의 정의를 내렸다. 그 후에 허웅(1975), 이관규(1992), 박선옥(2005) 등도 보조동사의 개념에 대하여 검토한 바가 있는데, 이관규(1992)에서는 보조동사를 ‘본동사 뒤에 위치해서 화자나 주체의 심리적 상태를 나타내 주는 표현’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나 박선옥(2005)에서는 보조동사가 선행하는 본동사를 의미적으로 도와주는 역할만 한다고 보는 관점을 비판하고, 보조동사는 선행하는 동사에 대해 통사적, 의미적으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후 절에서는 보조동사 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조동사의 개념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하도록 하겠다.

#### 1.2. 보조동사 구성의 특성

보조동사 구성은 두 개의 동사가 연결되어 나타나기에 복합동사나 복합서술어 구문과 비슷한 점이 있으나, 상이한 통사적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보조동사를 합성동사나 일반 동사와 구별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많고,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주로 보조동사를 판별하는 기준과 보조동사의 통사적인 특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보조동사 구성의 설정 및 판별 기준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는 김용석(1983), 김기혁(1987), 서정수(1990), 김석득(1992), 손세모들(1996), 박선옥(2005)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의 주된 견해들을 정리해 보고 보조

동사 구성의 설정 및 판별 기준을 통해 보조동사 구성에 대한 견해가 학자마다 다양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는데, 이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두드러진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보조동사는 홀로 서술 기능을 하지 못하는 자립성 제약이 있다.

둘째, 본동사와 비분리성이 있다. 보조동사는 본동사와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으므로 분리될 수 없다. 그리고 본동사와 보조동사 간에 다른 성분이 삽입될 수도 없다.

셋째, 보조동사는 본동사와 분리하여 대용<sup>4)</sup>할 수 없으나 본동사는 대용할 수 있다.

넷째, 보조동사는 단지 본동사의 일부부만이 아니라 상이나 양태와 같은 문법적 의미를 가진 독립된 문법 범주이다.

이러한 특징들을 갖고 있는 보조동사는 합성동사나 동사 접속 구성과 구별될 수 있다. 보조동사의 이러한 기본적인 특징에서 나아가 보조동사의 상적인 의미 및 분류 기준에 대해서는 후 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 2. 한국어 완료상 보조동사의 의미 및 특징

### 2.1. 한국어의 상과 보조동사

상이라는 용어는 슬라브어 ‘vid’에 해당되는 것으로 어떤 장면에서 벌어진 동작이나 행위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인 관점을 가리킨다. 예스페르센(Jespersen, 1924)은 하나의 동사가 우선적으로 나타내는 의미는 양태를 묘사하는 상적인 의미라고 하여, 시제보다 상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콤리(Comrie, 1976), 그리고 벤들러(Vendler, 1967)와 스미스(Smith, 1991)에 따라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상은 어떤 행위나 사건이 이루어지는 장면의 내적인 구성으로, 화자가 그 사건이나

---

4) 김연희(2009)에 따르면 대용은 동일 표현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앞부분에 이미 나타나거나 서로 알고 있는 내용을 다른 압축된 대용어로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손세모들(1996)에서 다음과 같은 예시를 제시하였다.

- 예: a. 손부터 씻겨 줄까 얼굴부터 씻겨 줄까  
b. 손부터 그렇게 해 줄까 얼굴부터 그래 줄까  
c. \*손부터 씻겨 그럴까 얼굴부터 씻겨 그럴까

예문에서 볼 수 있듯 보조용언 ‘주다’는 대용되지 않고 선행 용언만 대용될 수 있다.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한국어의 상에 대한 연구도 많이 있어 왔다. 처음에는 한국어의 상에 관한 논의가 시제와 구분되지 않고 혼동되어 진행됐다고 할 수 있다. 시제와 상을 구분하기 위하여 이남순(1981)에서는 ‘시간적 완료’와 ‘공간적 완료’를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동작이 과거, 현재, 미래 중 어느 시점에 존재하느냐 하는 것은 시제범주의 문제이고, 그 동작 주체나 대상에 대하여 동작의 모든 국면이 가해지는 것인가 가해지지 않는 것인가 하는 것은 상 범주의 문제라고 하였다. 최동권(1986)에서는 상이란 어떤 상황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상태나 행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았다. 김성화(2003)에서는 존재 세계를 정적인 상황과 동적인 상황으로 나누고, 전자는 형용사로 표현되고 후자는 동사로 표현된다고 하였다. 동적인 상황이 나타내는 모든 움직임은 출발점에서 종점에 이르는 과정을 갖는데, 이 전체적인 과정에서의 움직임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지속’의 모습과 종점에 이른 ‘종결’의 모습 두 가지로 나타난다. 그래서 상은 하나의 동적 상황 또는 동일한 동적 상황의 동작이 전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일컫는다. 서정수(2006)에서는 상이란 현재, 과거 또는 미래의 한 시제 영역에서, 상황에 대하여 완결상과 미완결상 또는 그 밖의 여러 양상으로 파악되는 바를 문법 형태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고영근·구본관(2008)에서는 동작상이란 동사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진행이나 완료와 같이 개별 시제에 종속되어 있는 동작의 양상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한국어의 상에 대한 주된 논쟁 중의 하나는 상이 시제와 어떻게 다르고, 시간을 상과 시제 두 개로 나누는 것이냐, 상, 시제와 서법 세 가지로 나누는 것이냐 하는 문제이고, 또 하나는 상 체계의 분류에 대한 문제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 보조동사의 상적인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는 것이므로 상과 시제나 서법의 차이점에 대하여 다룰 필요가 없다고 보고, 여기서는 한국어의 상 분류 기준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다.

상을 표현하는 방식을 어휘에 의한 것과 문법에 의한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어휘상이라고 한다. 어휘상은 동작동사 및 상태동사의 어휘적 의미가 지닌 시간적 동작의 양상을 가리킨다. 즉 어휘를 통해 나타나는 상인데, ‘죽다, 끝나다’가 사건의 완전 끝남을 표현하는 것과 같이 단순히 단어 자체의 의미를 통해 어떤 사건의 지속이나 끝남을 나타내는 것이다. 어휘에 내재적인 상인 어휘상과 구별되는 문법상은 기본적으로 완료상과 미완료상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는 많

은 언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한국어의 상에 대한 분류 기준은 학자마다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완료상과 미완료상으로 구분될 수 있다. 문법적인 상은 ‘-았/었-’이나 관형사어미 ‘-(으)ㄴ/는/(으)ㄴ’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보조동사의 상적인 의미 분류 기준에 대한 연구는 적지 않은데 이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보조동사의 상적인 의미에 대한 연구

보조동사 연구	가 다	오 다	나 다	내 다	머 리 다	치 우 다	놓 다	두 다	대 다	쌓 다	말 다	있 다 1	있 다 2
최현배 (1937)	나 아 감	나 아 감	끝 남	끝 남	끝 남								
이주행 (1976)	진 행	진 행	종 결	종 결	종 결							진 행	
김명희 (1984)	지 속	지 속		완 결	완 결		보 유	보 유					
김성화 (1992)	전 행 지 속	전 행 지 속	완 수 종 결	완 수 종 결	소 거 종 결	소 거 종 결	보 유 종 결	보 유 종 결	반 복 지 속	반 복 지 속	단 결 종 결	결 과 종 결	결 과 종 결
이관규 (1992)	진 행	진 행		완 료	완 료	완 료	지 속	지 속			완 료		
고영근· 남기심 (1993)	진 행	진 행	종 결	종 결	종 결						종 결	진 행	진 행
서정수 (1996)	지 속	지 속	완 결	완 결	완 결							지 속	결 과

손세모돌 (1996)	지 속	지 속		종 결	종 결		결 과 지 속	결 과 지 속				지 속	지 속
김영태 (1997)			종 결	종 결	종 결		종 결				종 결		
박덕유 (1998)	진 행	진 행	완 료	완 료	완 료	완 료	종 결 완 료	완 료			종 결 완 료	결 과 상 태	결 과 상 태
박선옥 (2005)				완 료	완 료	완 료							

위 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어의 미완료상은 진행상, 반복상 등으로, 완료상은 종결, 결과상태 등 여러 가지 하위 부류로 구분될 수 있다. 이때 ‘버리다’, ‘내다’, ‘말다’는 대체적으로 같은 부류로 들어가며, 상적으로 서로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박선옥(2005)에서는 상적인 의미는 모든 보조동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상적 의미를 가진 보조동사는 양태적 의미를 더불어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후절에서는 ‘완료’라는 동일한 상적인 의미를 지닌 ‘버리다’, ‘내다’, ‘말다’ 각각의 구체적인 상적 및 양태적인 의미, 통사적인 결과 관계 제약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논의하도록 하겠다.

## 2.2. 보조동사 ‘버리다’의 의미 및 특징

### 2.2.1. 본동사 ‘버리다’의 의미

박선옥(2008)에서는 보조동사의 발달 과정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가 대체로 본동사에 의미 추상화가 생겨 선행동사로 이끌리는 구문에 상이나 양태 의미를 첨가하는 단계에서 그것이 심화되어 선행동사 연결에 제약이 거의 없이 보조동사로 활발히 기능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보조동사 ‘버리다’의 상이나 양태적인 의미를 검토하기 위해 우선 본동사로서의 ‘버리다’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준국어대사전>을 통해 확인한 본동사로 쓰인 ‘버리다’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가지거나 지니고 있을 필요가 없는 물건을 내던지거나 쏟거나 하다. 예: 휴지를 휴지통에 버리다/쓰레기를 길거리에 버리다.

[2]

「1」 못된 성격이나 버릇 따위를 떼어 없애다. 예: 낭비하는 습관을 버리다/어른 앞에서 말대꾸를 하다니, 당장에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느냐?

「2」 가정이나 고향 또는 조국 따위를 떠나 스스로 관계를 끊다. 예: 그는 가정과 고향을 버리고 독립운동의 대열에 뛰어들었다.

「3」 종사하던 일정한 직업을 스스로 그만두고 다시는 손을 대지 아니하다. 예: 그는 직장을 버리고 나와 개인 사업을 시작하였다./그는 가난과 병마에 시달리면서도 죽을 때까지 문학을 버리지 아니하였다.

「4」 직접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과의 사이를 끊고 돌보지 아니하다. 예: 조강지처를 버리다/늙고 병든 부모를 버린 못된 자식 기사가 신문에 나왔다./오빠가 만일 그 아가씨 버리면 저도 오빠를 버리게 될 거예요.《홍성원, 육이오》

「5」 품었던 생각을 스스로 잇다. 예: 돈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라.

「6」 본바탕을 상하게 하거나 더럽혀서 쓰지 못하게 망치다. 예: 흙탕물이 튀어 새 옷을 버리고 말았다./기계를 조립할 때 역지로 끼워 맞추려다가는 기계 자체를 아예 버리기 쉽다.

본동사로서의 ‘버리다’의 의미를 정리해 보면 대략 ‘제거’와 ‘단절’로 나눌 수 있다. ‘버리다’의 지시 대상은 구체적인 것일 수도 있고, 추상적인 것일 수도 있으며, 제거와 단절의 행위는 주어가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제거’나 ‘단절’의 의미는 어떠한 사건을 끝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본동사 ‘버리다’의 의미는 보조동사 ‘버리다’의 ‘완료상’이라는 상적인 의미로 확대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 2.2.2. 보조동사 ‘버리다’의 상적인 의미

보조동사로서의 ‘버리다’는 동작이 끝난 뒤에 동작의 완료에 대한 심리적인 태도도 함께 나타낸다. 이러한 심리적인 태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버리다’의

기본적인 ‘완료’라는 상적인 의미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다.

대부분의 논의에서는 ‘-어 버리다’ 구성을 종결의 의미로 파악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박덕유(1998)에서는 ‘-어 버리다’ 구성을 종결의 완료상으로 설정하였고, 김성화(2003)에서는 ‘-어 버리다’ 구성을 소거성 종결상 어미로 다루고 있다. 손세모돌(1996)에서는 완료상 보조동사의 검증에 있어 두 가지의 결합 제약을 제시하였다. 즉 동시 동작을 표시하는 후행 어미와의 결합이 제약되며, 미완 동작의 중단 표현에도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위 논문에서는 이러한 제약에 부합되어야 ‘완료’의 의미를 가진 보조동사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먼저 ‘버리다’의 상적인 의미를 검증하도록 하겠다.

첫째, 완료되지 않은 동작을 중단하는 표현인 ‘-다가 말다’와의 결합

- 1) a. 그는 결국 안으로 들어가다가 말았다.
- b. \*그는 결국 안으로 들어가 버리다가 말았다.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보조동사를 사용하지 않은 a는 문법적이지만 보조동사가 쓰인 b는 비문법적이다. 이는 보조동사가 선행 용언의 동작 ‘완료’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가 말다’는 미완료된 동작을 중단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보조동사 ‘버리다’가 쓰인 구문과 결합이 제약된다는 것은 ‘버리다’가 동작의 완료라는 뜻을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즉 보조동사 ‘버리다’가 선행 용언에 완료의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진행 중인 동작의 중단과는 의미적으로 모순이 되어 결합이 제약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버리다’가 ‘완료’라는 의미를 지닌다는 증거가 된다.

둘째, ‘-(으)면서/며’와의 결합 제약

- 2) \*밥을 먹어 버리면서 말한다.

‘-(으)면서/며’라는 어미는 앞뒤 동작이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앞선 동작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뒤의 동작이 이루어진다. 보조동사 ‘버리다’가 이러한 동작의 지속이라는 뜻을 지닌 어미와 결합이 제약된다는 것은, ‘버리다’가 완료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 2.2.3. 보조동사 ‘버리다’의 양태적인 의미

보조동사들은 기본적으로 상적인 의미만 지니는 것이 아니다. 손세모돌(1996)에 의하면 ‘버리다’와 같은 보조동사는 단순히 ‘완료’라는 상적인 의미만 지니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뜻을 섞어서 나타내기도 하고, 후행 어미와의 결합이나 특정 어휘와의 연결 등의 방식으로 ‘완료’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의미를 표시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의미 요소들이 ‘완료’의 의미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보조동사가 기본적인 상적 의미 이외의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하여 손세모돌(1996)은 네 가지의 증거, 즉 보조동사는 선행절의 동작이 끝난 뒤 반대의 동작으로 이어지는 경우 ‘완료’ 표시의 ‘-았-’을 대치할 수 없다는 것, 의도의 중단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 인과적 관계를 표현하는 ‘-(어)서’와 결합 가능하다는 것, ‘-기 시작하다’와 어울리는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박선옥(2005)에서는 ‘이미 시간이 늦어 버려서 그 차를 탈 수 없었다’라는 예시를 통해, 보조동사 ‘버리다’가 ‘완료’의 상적인 의미만을 가진다면 형용사와 결합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버리다’는 다른 뜻도 갖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아래에서는 ‘버리다’가 ‘완료’라는 의미를 바탕으로 어떤 심리적이고 함축적인 의미를 담는가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다.

- (3) a. A가 꽃병을 깨 버렸다. (a1. 큰일이 났다/ a2. 다행이었다)  
b. A가 식은 밥을 먹어 버렸다.

보조동사 ‘버리다’의 상적인 의미 이외의 의미에 대한 연구는 적지 않다. 유목상(1980)에서는 보조동사 ‘버리다’는 악처리<sup>5)</sup>(惡處理)라고 해석하였다. 김명희(1984), 손세모돌(1996), 박선옥(2005) 등에서는 보조동사 ‘버리다’의 양태적인 의미를 대략적으로 ‘아쉬움/기대에 어긋남/후회스러움’과 ‘부담 제거’라고 언급하였다. 그중에 ‘생각이나 기대에 어긋남’이라는 것이 ‘악처리’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같은 문장이라도 후행하는 구성이나 문장이 달라짐에 따라 ‘버리다’가 나타내는 뜻도 달라진다. 예문 (a)를 보면 이 문장은 영희가 꽃병을 깨 사실에 대하여 화자의 생각과 그 결과가 화자에게 미친 영향과 같은

5) 유목상(1980)에 따라 ‘버리다’는 단지 완료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서술적인 의미는 ‘처리’라고 기술하였다. ‘처리’는 ‘선처리’가 아닌 ‘악처리’라고 불렀다.

양태적인 의미를 나타내는데, 만약 그 후행 문장이 ‘큰일이 났다’라는 것이라면, 꽃병을 깨는 행위를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영희가 그러한 행위를 하였기에 화자의 ‘생각에 어긋남’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뒤에 ‘다행이었다’를 붙이면 화자가 그 꽃병에 대해 걱정하는 상태에서 벗어나 결국 영희가 꽃병을 깬 사실에 대해 시원함을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때의 ‘버리다’는 ‘부담의 제거’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문장(b)는 역시 (a)와 비슷한 상황인데, 타인이 식은 밥을 먹는 행위를 완료한 것에 대하여, 화자가 기대에 어긋남을 표현한다기보다는 밥이 남아 있어서 걱정되거나 부담스러웠는데 그것을 없애서 부담이 제거되었다고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욱 적절하다. 그러나 뒤에 ‘식은 밥을 먹고 싶었는데’라는 문장이 붙어 있으면 화자의 기대에 어긋났다는 아쉬움을 나타낼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버리다’에 의하여 나타난 것이 아니라 후행 문맥에서 비롯된 것이고, 후행절을 제거하면 어느 쪽의 의미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으므로 ‘버리다’는 이 두 가지의 기본적인 양태적 의미 중 어느 한 쪽에 기울지 않고 중립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손세모돌(1996)에서는 ‘버리다’가 나타내는 심리 태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인데 ‘버리다’는 이러한 구체적인 심리적 의미에 대해서는 중립적이라고 하였고, 이것이 상반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종결이 문장 내에서 여러 가지의 심리 태도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 3) a. 음식이 상한 것 같아서 그는 쓰레기통에 버려 버렸다.
- b. 날씨가 아주 추워서 커피가 금방 식어 버렸다.

박선옥(2008)은 양태를 상(aspect)과 구별하여, 양태란 문장으로 표현되는 어떤 사건이나 사태, 상황에 대하여 행위자나 화자가 어떠한 태도로 그 사태에 참여하는가 하는 심리적 태도라고 하였다. 보조동사로 표현된 양태적 의미는 화제의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김지은(1998)에서는 국어의 양태 범주를 주어 중심 양태와 화자 중심 양태로 구분하였는데 ‘버리다’는 주어 중심 양태 중에서 주어의 심리적인 상태나 조건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3) a의 예문에서는, 상한 음식을 버리는 행위를 통해 누군가가 그 것을 먹을 가능성을 없애려는 주어 ‘동생’의 의도가 나타난다. 그러나 박선옥(2005)과 장미라(2006)에서는 보조동사 ‘버리다’는 주어의 양태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양태도 나타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주어와 관련되기보다는 문장 발화자와 더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위의 예문 b에서 볼 수 있듯, 부정물인 주어는 태도를 나타낼 수 없다. 또한 예문 a의 경우 주어인 동생이 음식을 버린 사실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다. 이는 발화시의 상황이나 문맥에 따라 양태의 주체도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 4) a. 그는 아끼던 인형을 잃어 버렸다.  
 b. 차라리 도망가 버리는 것이 훨씬 속 편하지 않은가.

위의 4번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명확한 화자의 심리 표현이 제시된 후행절이 없어도 화자의 심리 상태가 파악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a에서는 ‘아끼던’이라는 단어를 통해 화자의 아쉬운 마음을 금방 알아낼 수 있고, b에서는 ‘차라리’ 때문에 부담 제거의 의미가 분명히 나타난다. 이처럼 보조동사가 나타내는 의미는 보조동사 자체의 의미뿐만 아니라 결합된 부사어나 선행어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2.2.4. 보조동사 ‘버리다’의 통사적인 결합 관계 및 제약

최현배(1980)를 비롯하여 ‘버리다’의 통사적인 결합 관계와 제약에 관한 대다수의 연구들은 ‘버리다’는 동사만을 선행어로 한다고 지적하며, 자동사, 타동사, 형용사+지다, 사동형, 피동형 등 일반적인 동사와의 결합이 모두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손세모달(1996)에 따르면 ‘하다’형의 동사는 의미의 자질에 따라 결합에 차이를 보이며, 동사의 의미 자질이 긍정인 경우에는 제약을 받는다고 하였고, 형용사와는 일반적으로 결합이 제약된다고 하였다. 이 절에서는 우선 보조동사 ‘버리다’와 결합 가능한 용언에 대하여 살펴보고 결합이 제약된 용언은 무엇인지도 살펴보겠다.

우선 일반적으로 결합에 제약이 없는 동사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다.

- 5) a. 그녀는 그냥 웃어 버렸다.  
 b. 나는 밥을 먹어 버렸다.  
 c. 갑자기 목소리가 예뻐져 버렸다.  
 d. 강아지는 악어에게 먹혀 버렸다.

e. 옷을 벗겨 버렸다.

f. 비밀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그 비밀을 당당하게 다 말해 버렸다.

예문 a는 자동사의 예이고 b는 타동사, c는 <형용사+지다>, d는 피동형 동사, e는 사동형 동사, f는 ‘명사+하다’형의 동사의 예이다. ‘명사+하다’형의 동사들 중에 결합이 가능한 것들에 대해 손세모들(1996)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6) 간과하다, 말하다, 시작하다, 약속하다, 욕하다, 처리하다, 해결하다.....

이러한 동사들의 공통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대략적으로 ‘동작의 지속’의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의 5-f의 예시에서 본 바와 같이, ‘말하다’, ‘시작하다’, ‘약속하다’ 등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행위 수행의 과정’, ‘동작의 변화’, ‘순간성’ 등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7) a. 거인으로 커 버렸다.

b. 마을의 길과 집들은 모두 넓아 버렸다.

c. 개다, 크다, 굵다, 낡다, 세다, 찌들다, 그르다, 늑다, 늣다...

형용사 가운데 ‘버리다’와 결합할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고 수가 매우 적어 대부분 기존의 연구는 보조동사의 선행 용언에 형용사가 올 수 없다고 하였다. 손세모들(1996)에서는 ‘버리다’와 형용사의 결합이 제약되어 있기는 하지만 결합 가능한 것도 있고 예문(7)과 같은 예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단어들이 ‘낡다’처럼 동사적인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형용사로만 사용되는 것도 있으나 대부분은 동사로 쓰일 수 있다. 예를 들면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크다’를 동식물의 몸의 길이가 자라거나, 사람이 자라서 어른이 되거나, 수준이나 지위 따위가 높은 상태가 된다는 의미를 가진 동사로 인정하였다. 또한 ‘늣다’는 ‘정해진 때보다 지나다’의 의미로 동사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동사로 쓰일 수 있지만 기본적인 의미는 형용사이거나 단지 형용사로 사용될 수 있는 단어들이 상태의 변화를 표현할 수 있는 공통적인 의미를 지닌다.

‘버리다’와의 결합이 제약되는 대표적인 것은 형용사이다. 앞서 (7)외에 대부분

의 형용사들이 ‘버리다’와의 결합에 제약을 받는다.

- 8) a. 검다, 누르다, 붉다, 어둡다, 푸르다, 희다  
b. 길다, 날씬하다, 둥글다, 뚱뚱하다, 못생기다, 예쁘다, 작다, 좁다, 짧다...  
c. 새롭다, 젊다...  
d. 같다, 다르다, 깊다, 얇다, 없다, 있다, 싫다, 좋다, 고맙다, 슬프다, 기쁘다, 밍다, 가렵다, 아니꼽다, 고프다...

- 9) a. 아침이 밝아 버렸다.  
b. LED조명이 밝아서 좋았다.  
c. \*LED조명이 밝아 버려서 좋았다.

8(a)는 색깔과 관련된 시각적인 것을 나타내는 단어들이며 ‘밝다’ 등과 달리 ‘버리다’와의 결합이 불가능한 것들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동사로서의 ‘밝다’는 ‘밤이 지나고 환해지며 새날이 오다’라는 뜻을 지니고 (9)a의 예는 이러한 의미를 잘 나타낸다. 그러나 형용사로서의 밝다는 다른 색과 관련된 형용사들과 같이 ‘변화’나 ‘과정’의 자질을 가지지 않아 (9)c ‘LED조명이 밝아 버려서 좋았다’처럼 ‘색’과 관련된 의미로 쓰이면 비문이 된다.

(8)b, c, d의 경우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거나 존재를 나타내는 것들인데 이들은 모두 ‘버리다’와의 결합에 제약을 받는다.

- 10) a. 감사하다, 대하다, 고려하다, 단언하다, 인사하다, 위로하다, 축하하다, 치료하다, 합격하다...  
b. 가리키다, 겪다, 듣다, 배우다, 부리다, 생기다, 이루다, 주다, 준비하다, 지키다, 챙기다...  
c. 반대 팀을 이겨 버렸다.

(10a)에서 ‘명사+ 하다’형 동사들은 대부분 ‘버리다’와의 결합이 제약되어 부자연스럽다. (10b)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동사들이다. 그러나 (10c)에서 볼 수 있듯 ‘버리다’가 모든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 동사들과 결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이겨 버리다’처럼 자연스럽게 쓰이는 구성도 있다. 이러한 결합 제약은 대

부분의 상황에서 성립하지만 예외가 존재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버리다’는 상황에 따라 일반적인 선행어 결합 제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주로 부사어의 개입이나 문맥을 통해 화자의 심리 태도가 명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먼저 부사어의 개입으로 인해 선행어 결합 제약에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서정수(2005)에서는 부사어는 자유 부사류와 제약 부사류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하였다. 자유 부사란 용언의 종류에 관계없이 선택되는 부사어를 말하며 특정한 동사와 어울리지 않음으로 자연히 문장 전체 서술 내용을 한정하는 기능을 보이는 것인데, 부사어의 위치가 비교적 자유롭다. 제약 부사란 일정 범위의 용언 또는 특정한 용언하고만 어울릴 수 있는 부사어류를 일컫는다. 본 연구에서는 자유 부사어에만 한정하여 검토하도록 하겠다.

말뭉치 자료를 토대로 자주 쓰이는 시간과 관련된 문장 연결 부사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1) 일찍이, 본래, 원래, 종래, 옛날에, 오늘날, 부터, 오랫동안, 내내, 겨우내, 끝없이, 영원히, 늘, 항상, 여전히, 가끔, 때때로, 이미, 벌써, 아까, 아직, 여태...

위의 예 중 대부분 부사어는 ‘버리다’와 결합되어 쓰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영원히’ 등의 부사는 선행용언에 따라 제약을 받을 때도 있는데, 예를 들자면 ‘영원히 말해 버렸다’라는 문장에서 ‘영원히’는 ‘말하다’와의 결합이 어색하므로 본동사와 ‘버리다’의 결합도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다. 또한 ‘아직’, ‘여태’와 같은 ‘기대와 달리 완료하지 못함’이라는 뜻을 지닌 부사어와의 결합도 어색한 것으로 생각된다. ‘기대에 어긋남’이라는 의미가 있더라도 ‘완료하지 못함’이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완료’의 의미를 지닌 보조동사 ‘버리다’와 모순되어 결합이 제약된다.

다음으로는 양태적인 양상을 보여주는 부사어와의 결합 관계에 대하여 검토해 보겠다. 이에 해당하는 부사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2) 확실히, 분명히, 틀림없이, 정말, 참으로, 대개, 대략, 대체로, 어떻든, 어쨌든, 하여튼, 보통, 보편적으로, 다만, 단, 단지, 오직, 특히, 오히려, 반대로, 도리어, 차라리, 거꾸로, 아마, 혹시, 만약, 아무리, 가령, 물론, 모두, 다, 전부, 많이,

조금, 약간

위에 제시한 양태와 관련된 부사들은 ‘버리다’와의 결합이 대체로 가능하다. 특히 말뚝치 자료를 검토한 결과, ‘버리다’는 ‘차라리, 금방, 일부러, 미리’ 등의 부사와의 결합의 빈도수가 높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홍사만(2008)에서는 ‘버리다’는 화자나 주체의 의지와 관계없이 어떤 동작이나 사태가 끝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만’,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와 같은 양태 부사와의 결합이 매우 자연스럽다고 하였다. 다만 ‘버리다’가 쓰인 문장에 ‘조금’이 오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다. ‘버리다’는 원래 ‘제거’라는 의미 자질을 지니므로 ‘조금, 약간’ 등과의 결합은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진다.

13) 나이 한참 어린 이십대들이 고개, 허리를 꺾꺾 꺾어 인사해왔다. “왔구먼, 좀 늦었버렸네?”<sup>6)</sup>

그러나 예문(13)에서 볼 수 있듯이 ‘버리다’가 쓰인 문장에 부사어 ‘좀’이 올 수도 있다. 이러한 부사어와의 공기 관계에서는 어느 특정 부사가 반드시 어울리거나 제약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 맥락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손세모돌(1996)에서는 부사어 ‘일부러’, ‘미리’ 등이 개입되면 ‘버리다’와의 결합에 제약을 받는 선행어들은 결합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일부러 내 물건을 챙겨 버렸어’에서 볼 수 있듯이 ‘챙기다’는 긍정적인 의미 자질을 가져 결합에 제약을 받지만, ‘일부러’를 사용하면 화자의 강한 태도가 나타나므로 결합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 부사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버리다’는 통사적인 제약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많은 동사 및 부사와 결합 가능하다. 다음으로는 문장의 다른 성분과의 결합 관계에 있어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어 버리다’가 쓰인 문장의 주어는 인칭에 제약을 거의 받지 않지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선어말 어미 ‘-겠-’과 결합할 때 나타난다.

14) a. 나는 이 사과를 다 먹어 버리겠다.

---

6) 김종광(2003), 모내기 블루스, 창작과비평사

- b. 우리는 그 일을 해 버리겠다.
- c. \*네가 그 사과를 다 먹어 버리겠다.
- d. 그 친구들이 먼저 문제를 풀어 버리겠다.

‘버리다’가 ‘-겠-’과 결합되는 데에 제약을 받는 것은 ‘버리다’의 의미 때문이라기보다는 선어말어미 ‘-겠-’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겠-’은 ‘추측, 의도, 가능성’ 등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주어가 1인칭일 때는 주로 화자의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3인칭일 때는 주로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버리다’와의 결합에 제약이 없다. 그러나 주어가 2인칭일 때는, (14c) ‘\*네가 그 사과를 다 먹어 버리겠다’처럼, ‘-겠-’이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어 비문이 된다. 그러나 2인칭 주어는 주로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략된 문장의 경우는 ‘버리다’가 ‘추측’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사용이 가능하다.

‘-겠-’과 같이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는 ‘-었-, -더-, -느-’가 있는데 시제 선어말 어미가 ‘버리다’가 포함되어 있는 서술어에 결합할 때 본용언보다는 ‘버리다’에 결합하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다..

- 15) a. 밥을 다 먹어 버렸다.
- a. \*밥을 다 먹었어 버린다.
  - b. 밥을 다 먹어 버리겠다.
  - b. \*밥을 다 먹겠어 버린다.
  - c. 그 사람이 가 버리더라.
  - c. \*그 사람이 가더 버린다.
  - d. 그 사람이 가 버리느냐?
  - d. \*그 사람이 가느 버리냐?

한국어의 선어말 어미는 시간과 관련된 ‘-겠-, -었-, -더-, -느-’ 외에도 준대의 선어말 어미 ‘-(으)시-’가 있다. 많은 연구자들은 보조동사 구문에 ‘-(으)시-’가 결합될 때, 이것이 보조동사와 결합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선행어에 ‘-(으)시-’가 붙으면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견해를 가진 연구자로는 강홍구(1999), 김소연(2003) 등을 들 수 있다. 강

홍구(1999)에서는 ‘-어 버리다’ 구성에서는 보조용언 ‘버리다’에 존대 선어말 어미 ‘-(으)시-’가 개입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문법적이라고 하였다. 김소연(2003)에서는 존칭의 선어말 어미 ‘-(으)시-’는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와 같이 보조용언에 삽입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구어에서는 화자에 따라 선행어와도 결합되어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이렇게 되면 존칭의 선어말 어미가 과잉 사용되어 어색한 문장이 된다고 하면서, ‘-(으)시-’는 선행용언과의 결합보다 보조용언과 결합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발화자의 심리 상태나 태도를 보여주는 표현으로 선행용언에 ‘-(으)시-’가 결합된 형태도 어색하지 않을 때가 있고 꼭 비문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서정수(1978)에서는 존대의식의 확대 현상이라고 설명하였다. 최재희(1996)는 선행어와 후행어에 모두 존대 선어말어미 ‘-(으)시-’의 분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였으며, 이선웅(1995)도 이러한 중복 결합은 형태적 구성이 아니라 통사적 구성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설명하였다. 선행어에 ‘-(으)시-’가 결합되는 것이 후행어에 결합하는 형태보다 그 사용 빈도는 낮지만, 이는 화자가 청자와의 관계를 인식하여 발화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어 버리다’와 ‘-(으)시-’의 결합 관계는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데 기본적으로는 보조동사와의 결합이 가장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외국인 학습자에게 가르칠 때는 선어말 어미 ‘-(으)시-’는 보조동사 ‘버리다’와의 결합만 가능하다고 가르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한국어의 부정표현은 통사적인 구성에 따라 짧은 부정(‘안’, ‘못’)과 긴 부정(‘-지 않다’, ‘-지 못하다’, ‘-지 말다’)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유형은 ‘버리다’와의 결합에 거의 제약이 없다. 다만 짧은 부정 ‘안’이나 ‘못’은 선행용언과 후행용언 사이에 개입할 수 없으므로 ‘해 안/못 버렸다’와 같은 문장은 비문이다. 또한 긴 부정문 ‘지 말다’와 결합될 때는 ‘책을 읽어 버리지 마라’처럼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다. ‘-지 말다’는 화자의 의도나 의지를 나타내므로 만약 위의 예문 발화 당시의 상황이 ‘내가 화장실 간 사이에 책을 읽어 버리지 마’와 같이 나타나면 이러한 결합도 가능하다.

이상으로 보조동사 ‘버리다’의 상적, 양태적 의미 및 통사적 결합 관계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보조동사 ‘내다’의 특징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다.

## 2.3. 보조동사 ‘내다’의 의미 및 특징

### 2.3.1. 본동사 ‘내다’의 의미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동사 ‘내다’의 의미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중에서도 ‘나다’의 사동사로서 쓰이는 경우가 가장 많으므로 우선 ‘나다’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나다’의 주요 의미들은 다음과 같다.

- 「1」 신체 표면이나 땅 위에 솟아나다.
- 「2」 길, 통로, 창문 따위가 생기다.
- 「3」 이름이나 소문 따위가 알려지다.
- 「4」 흥미, 짜증, 용기 따위의 감정이 일어나다.
- 「5」 인물이 배출되다.
- 「6」 시간적 여유가 생기다.
- 「7」 기풍, 멋 따위가 더 나아지다.
- 「8」 생각, 기억 따위가 일다.
- 「9」 밖으로 나오거나 나가다.
- 「10」 어떤 작용에 따른 효과, 결과 따위의 현상이 이루어져 나타나다.

다음으로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시된 ‘내다’의 몇 가지 의미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나다02’의 사동사. 예: 마을에 길을 내다./ 숲속에 산책로를 냈다.
- 「2」 안에서 밖으로 옮긴다. 예: 방에 있던 책상을 마루에 내다.
- 「3」 ‘나다03’의 사동사. 예: 동네에 소문을 내다.
- 「4」 ‘나다04’의 사동사. 예: 친구에게 화를 내다.
- 「5」 문서, 서류, 편지 따위를 제출하거나 보내다. 예: 회사에 지원서를 내다.
- 「6」 돈이나 물건 따위를 주거나 바치다. 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내다.
- 「7」 ‘나다05’의 사동사. 예: 우리 마을에서 이번 사법 시험 합격자를 내다.
- 「8」 ‘나다06’의 사동사. 예: 틈을 내다.
- 「9」 ‘나다07’의 사동사. 예: 멋을 내다.
- 「10」 ‘나다10’의 사동사. 예: 결론을 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동사 ‘내다’는 주로 ‘나다’의 사동사로 쓰이는데 (2), (5), (6)번의 해석을 보면 이들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뜻을 지닌다. 구현정(1982)에서는 본동사 ‘내다’의 의미를 크게 ‘영역의 이동’과 ‘없던 상태에서 있게 함’의 두 유형으로 나누고, 이 둘을 합치면 ‘어떤 영역에서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논하였다. 김성화(2003)에서는 본동사 ‘내다’는 본동사 ‘나다’의 기본적 의미에 근거를 둔 것인데, ‘나다’의 기본 의미는 ‘벗어남’과 ‘나타남’이고, ‘내다’는 ‘나다’의 사동사이므로 주로 ‘나타나게 함’, ‘벗어나게 함’을 뜻한다고 하였다. 박선옥(2005)에서는 ‘내다’의 의미를 주로 ‘장소의 이동’과 ‘없던 대상을 만들다’로 구분하였다.

### 2.3.2. 보조동사 ‘내다’의 상적인 의미

‘내다’의 상적인 의미에 관한 연구는 최현배(1937), 이주행(1976), 고영근·남기심(1985), 손세모들(1996) 등을 들 수 있다. 보조동사 ‘내다’의 의미를 최현배(1937)에서는 ‘끝남’이라고 하였고, 다른 연구에서는 주로 ‘종결’이나 ‘완결’이라고 하였다.

‘내다’는 앞서 검토한 ‘버리다’와 마찬가지로 완료되지 않은 동작을 중단하는 표현인 ‘-다가 말다’와의 결합에 제약을 받으므로 ‘완료’라는 상적인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예는 아래와 같다.

- 16) \*설득해 내다가 실패했다.
- 17) a. 막단백질의 구조를 밝혀냈다.
- b. 적의 침공을 막아 낸다.

예문 (17)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조동사 ‘내다’는 선행동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건이나 상황의 끝남을 나타내는 완료의 의미를 갖고 있다. 즉 보조동사 ‘내다’는 ‘완료’라는 상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버리다’와 같이 ‘내다’는 단순히 동작의 끝남이라는 ‘완료’의 상적인 의미만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태도까지도 나타낸다. 다음에서는 보조동사 ‘내다’에 담겨 있는 양태적인 의미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 2.3.3. 보조동사 ‘내다’의 양태적인 의미

보조동사 ‘내다’는 선행 용언이 표시하는 동작이 완료됨을 뜻하는 상적 기능과 함께, 문맥과 상황에 따라 화자의 심리 태도를 나타내는 양태적 기능을 가진다.

유목상(1980)에서는 ‘내다’는 ‘끝까지 견디다’의 뜻으로 ‘관철(貫徹)’이라는 뜻을 가진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관철’이라는 것은 어려움을 극복하여 목적을 기어이 이룬다는 것이다. 손세모돌(1996)에 따르면 보조동사 ‘내다’의 기본적인 의미는 ‘성취’이고, 이는 끝까지 어떠한 어려움을 이기고 무언가를 이루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철’이나 ‘성취’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화자나 주어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 18) a. 추위를 이겨 냈다.
- b. 좋은 성과를 이루어 내야 한다.
- c. 기름때를 닦아 내고 있다.

(18a)에서는 추위를 이기는 것, (18b)에서는 좋은 성과를 이루는 것, 그리고 (18c)에서는 기름때를 닦는 것을 끝까지 완료한다는 사건에 대한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즉, 주어가 선행동사의 동작을 제 힘으로 완결시킬 수 있다는 ‘주어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때 해당 사건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행위자가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힘든 모습도 같이 나타난다.

- 19) a. 그는 그 고통을 끝까지 참아 냈다.
- b. 나는 손해 배상금을 받아 내겠다.

(19)는 주어가 의지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힘겨운 노력을 하여 행위를 완수해 내었다는 뜻을 나타낸다. 그리고 박선옥(2005)에서 지적한 화자의 기대에 부응했다는 의미도 보조동사 ‘내다’에 의해 잘 드러나고 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보조동사 ‘내다’는 행위 수행이라는 원형 의미를 가지며, 명제 내용의 완료상 의미를 바탕으로 ‘관철’, 또는 ‘어려움 극복’이라는 양태적인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양태적인 의미를 지니므로 보조동사 ‘내다’는 선행용언이나 부사어와의 결합에 있어서도 일정한 제약을 받는다. 다음으로는 ‘내다’의 통사적인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 2.3.4. 보조동사 ‘내다’의 통사적인 결합 관계 및 제약

‘내다’는 선행용언과의 결합 제약이 비교적 심하다. 김기혁(1983)에서는 현대 국어의 보조용언을 생산성의 관점에서 세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그 가운데 ‘내다’는 생산성에 제약을 받는 유형, 즉 선행 용언의 결합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분류된 바 있다. ‘내다’와 결합 가능한 것은 주로 타동사인 데 자동사, 사동형 동사, 피동형 동사, 형용사 등은 모두 결합에 제약을 받는다. 타동사 중에서도 주로 어려운 과정을 드러내거나 생김의 의미를 가진 것들이 ‘내다’의 선행용언으로 쓰인다(손세모들 1996:210). 박진호(1998:152)는, ‘내다’는 동작성 타동사와만 결합하고 나머지 동사들은 제약을 받는 것으로 밝혔다. 홍사만(2008)에서는 동사를 사람이 자신이 의지에 따라 좌우할 수 있는 동작을 나타내는 의지동사와, 사람의 의지적 동작을 가지지 않는 무의지동사로 나누었는데, ‘내다’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떤 일을 끝까지 이루어내는 성취의 의미를 가지므로 선행어로는 의지동사만을 선택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내다’와 결합 가능한 선행 동사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 견디다, 고치다, 구하다, 굶다, 그리다, 기르다, 당하다, 듣다, 따다, 살리다, 설득하다, 알다, 이기다, 이끌다, 이루다, 적다, 참다, 찾다, 치르다, 해결하다, 만들다, 받다, 빚다, 얻다, 짓다...

‘내다’는 선행 용언과의 결합 제약이 심하므로 일부 타동사 외에 모든 동사나 형용사가 결합에 제약이 있다. 이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 몇 가지의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 21) a. \*여기까지 어렵게 가 냈다.
- b. \*밥을 먹여 냈다.
- c. \*어렵게 꽃이 꽃혀 냈다.
- d. \*노력 끝에 날씬해 냈다.
- e. \*돈을 잃어 버렸다.
- f. \*합격을 축하해 내었다.

(21)은 자동사, 사동형, 피동형, 그리고 형용사가 쓰인 예이다. 이는 모두 ‘내

다'와의 결합이 부자연스럽고 제약된다. 성환갑·박선옥(2000)에서는 보조동사 '내다'는 내다가 갖고 있는 행위자의 수행의 양태 의미 때문에 동작이 스스로 이루어지는 '자동성'의 의미를 가진 동사와의 결합이 자연스럽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즉, 자동사와의 결합이 제약된다는 것이다. 또한 타동사 중에도 결합이 제약되는 것들이 있다. (21 e,f)와 같이 '읽다'와 '축하하다'는 결합이 가능한 유형과는 반대의 의미 자질, 즉 '어려움'이나 '생김'의 의미를 지니지 않고 있고, 이는 일반적으로 어려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쉬운 일이므로 '내다'의 양태적인 의미와 모순이 되기 때문에 결합이 자연스럽지 않다. 이렇듯 결합에 제약을 받는 타동사들은 다음과 같다.

22) 쓰다, 끼다, 차다, 걸다, 접다, 퍼다, 놓다, 두다, 선물하다, 가지다, 넣다, 놓다, 두다, 들어가다, 맡기다, 믿다, 붓다, 숨기다, 집어넣다...

다음 (23)은 '내다'와 결합 가능한 사동사의 몇 가지 예이다.

- 23) a. 자장면의 포장 랩을 벗겨 냈다.  
 b. 약 12만여 그릇의 떡국을 끓여 냈다.  
 c. 사람들이 힘을 모아 물에 빠진 아이를 살려 냈다.

일반적으로 사동사는 보조동사 '내다'와의 결합이 제약 받지만 '벗기다, 끓이다, 살리다'와 같은 일부 사동사는 '내다'와의 결합이 자연스럽고, 사동사에 '완료'의 의미가 첨가되는 것도 쉽게 파악될 수 있다. 이처럼 위에서 나열한 결합 관계들은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추세이기도 하고, 실제 담화 맥락에서는 화자와 청자의 상호작용에 따라 자유롭게 쓰일 때도 있다. 그렇더라도 이러한 기본적인 결합 관계들을 파악하는 것은, 외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어와의 심한 결합 제약이 있는 '내다'는 부사어와의 결합에 있어서는 자주 쓰이는 부사들이 많다. 이 절에서는 '내다'와 부사어의 공기 관계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앞 절에서 부사어에 대하여 분류한 바가 있는데 그중에 '내다' 구문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은 '버리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완료를 표현하는 것들이다.

- 24) a. 철수는 아직 창문을 닦는다.  
 b. \*철수는 아직 창문을 닦아 낸다.  
 c. 나는 이겨 냈다.  
 d. \*나는 조금 이겨 냈다.

보조동사 ‘내다’가 ‘완료’의 상적인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미완료를 의미하는 ‘아직, 아직껏’ 등의 부사어와는 결합할 수 없다. 또한 ‘버리다’와 마찬가지로 정도나 분량이 적음을 나타내는 부사 ‘조금, 약간’ 등과의 결합도 부자연스러울 수 있다. ‘내다’는 ‘성취’나 ‘어려움 극복’이라는 양태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며 화자의 ‘기대에 부응’이라는 느낌도 함께 포함되기 때문에 ‘조금’이 오면 이러한 성취의 시원한 느낌을 감소시켜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보조동사 ‘내다’는 문장의 주어가 어떤 목적을 꼭 완성하겠다는 의지와, 많은 노력을 기울여 기대한 만큼 그 목적을 달성했을 때의 기분을 나타내므로 자연스럽게 이러한 양태적 의미와 동일 지향적인 부사들과 어울리는 경우가 많다.

- 25) a. 기어이 이겨 냈다.  
 b. 현재의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 낼 수 있다.  
 c.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꼭 이겨 낼 것이다.

(25)에서 제시된 부사어 ‘기어이, 반드시, 꼭’은 화자가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무엇을 완성하겠다는 결심을 나타내는 부사어들이다. 이러한 부사어들은 ‘내다’와의 결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또한 이들은 문장에 첨가되지 않아도 문장이 성립하지만 추가되면 문장 주어의 의지를 더욱 강력하게 나타낸다.

- 26) a. 드디어 원인을 밝혀냈다.  
 b. 마침내 기적을 이뤄 냈다.  
 c. 끝내 리드를 지켜 냈다.

(26)에서 열거한 부사어 ‘드디어, 마침내, 끝내’ 등은 긴 시간에 걸쳐 어려움을 극복하여 결국 어떤 결과를 성취하였다는 뜻을 지닌 부사어이다. 이런 부사들은

서술 내용을 이루어 내는 과정에서 행위자가 힘들고 어려웠음을 나타내며 그 일의 어려움도 함께 암시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사들은 보조동사 ‘내다’와 자주 함께 쓰임을 확인할 수 있다.

‘내다’는 부정형과 결합은 ‘버리다’와 같이 긴 분정이든 짧은 부정적이든 제약을 받지 않는다.

‘내다’는 주어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므로 ‘내다’ 구문의 주어는 어떠한 행위를 수행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위의 예시 (17), (18), (22)에서 볼 수 있듯이 보조동사 ‘내다’의 주어는 주로 사람으로, 인칭의 제약은 없다.

- 27) a. 어려운 일을 해 냈다.
- b. \*쉬운 일을 해 냈다.
- c. 그는 외로움을 잘 견디어 냈다.
- d. \*그는 즐거움을 잘 견디어 냈다.

“성취”의 의미를 형성하는 데에 있어 쉬운 일을 이루어낸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이루어내게 될 때 ‘성취’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목적어인 ‘쉬운 일’이나 ‘즐거움’은 의미상 이러한 ‘성취’의 양태적인 의미에 모순이 되어 전체 문장이 비문이 된다. 이처럼 목적어를 선택할 때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 2.4. 보조동사 ‘말다’의 의미 및 특징

### 2.4.1. 본동사 ‘말다’의 의미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본동사로서의 ‘말다’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을】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하지 않거나 그만두다. 예: 저만 믿고 걱정 마세요./ 내 염려는 말고 나가세요.

「2」 (‘-거나 말거나’, ‘-거니 말거니’, ‘-나 마나’, ‘-든지 말든지’, ‘-르(을)까 말까’ 따위와 같은 구성으로 쓰여) ‘아니 하다’의 뜻을 나타낸다. 예: 쳐다보거나 말거나 수군거리거나 말거나, 그녀의 태도는 당당하고 의젓했다. /강 교수는 우리를 향해 재삼 못을 박아 자신의 결의가 얼마나 굳은가를 강조했다. 그러거니 말거니, 우리는 숫제 멍청한 척하고 놀러 버티었다. /부탁이나 마나, 지은 죄가 있

으면 죄값을 치러야 하고, 지은 죄 없으면 나가는 거고, 그런 거죠.

「3」 ('말고' 꼴로 명사의 단독형과 함께 쓰여)'아니고'의 뜻을 나타낸다. 예:  
너 말고 네 친구/이것 말고 저것을 주시오.

이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본동사로서의 '말다'는 주로 '그만두다'나 '아니하다'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행위의 중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 2.4.2. 보조동사 '말다'의 상적인 의미

'버리다', '내다'와 비슷하게 보조동사 '말다'의 기본 상적 의미 역시 '완료'이다. 김성화(2003)에서는 '-고 말다' 구성은 동작의 종결과 다른 동작의 실행을 단절함을 뜻하고 이렇듯 동작을 단절하는 것이 '완료'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앞에서 제시한 방법을 통해 '말다'의 '완료'라는 상적인 의미에 대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 28) a. 그와 나는 마주 보고 웃고 말았다.  
b. \*그와 나는 마주 보고 웃고 말다가 학교에 갔다.  
c. \*그와 나는 마주 보고 웃고 말면서 얘기했다.

(28)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보조동사 '말다'는 '-다가'나 '-(으)면서'와 결합되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다. '-다가'는 앞에 온 행위가 끝나지 않음을 표현하고, '-(으)면서'는 앞뒤 동작이 거의 동시에 일어남을 의미하기 때문에 '말다'와의 결합이 제약된다. 이는 '말다'가 '완료'라는 상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또한 '말다' 역시 '동안'과 같은 일부 부사어와의 결합에 제약을 받는데, 이러한 부사어들은 '완료'라는 의미와 모순되어 결합에 제약을 받는 것이므로 이러한 결합 제약도 '말다'가 '완료'라는 의미를 나타낸다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 이러한 부사어와의 공기 제약에 대해서는 후에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 2.4.3. 보조동사 '말다'의 양태적인 의미

보조동사 구성 '-고 말다'는 '버리다'와 비슷하게 '완료'라는 상적인 의미와 함께 '기대에 어긋남', '성취', '동작 강조' 등의 양태적인 의미도 지닌다.

- 29) a. 어제 밤에 또 자고 말았어. 큰일이야. 내일까지 다 해야 하는데.

b.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을 얻고 말했다.

(29)에서 두 문장은 모두 주어의 행위가 완료되었음을 드러내는데, (29a)는 예상하지 못한 경우임을 보여 주며 ‘기대에 어긋남’이라는 뜻을 표현하고, (29b)는 어떤 목적을 꼭 달성하겠다는 자신의 의지, 결심을 나타낸다.

‘말다’는 ‘버리다’와 비슷하게 주어 중심적 양태와 화자 중심적 양태 두 가지의 양태적인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장미라(2006)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시를 제시하였다.

30) a. 자신에 대한 나쁜 소문을 들은 친구는 어이가 없는지 웃고 말았다.

b. 그 친구는 한 번 시작한 일은 끝장을 보고 마는 성격이다.

c. 왕의 죽음을 예언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적중하고 말았다.

예문 (30a)는 친구가 소문을 믿지 않고 진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30b)는 친구가 어떤 일을 꼭 끝까지 견뎌 낸다는 의도를 나타낸다. 이 두 문장은 분명하게 주어의 의지를 드러내므로 여기서의 ‘말다’는 주어 중심적 양태 의미가 더 강하다. 한편, (30c)의 주어는 의지를 표현할 수 없는 예언이기 때문에 이 문장은 주어가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30a)로, 이는 주어 중심 양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상황이나 문맥에 따라 화자의 의도를 나타내는 문장이라고 볼 수도 있다.

31) a. 이는 그 유학시험에 합격하고 말았다.

b. 영수가 잘 달리다가 넘어지고 말았다.

강흥구(1999)에서는 ‘말다’가 드러내는 긍정이나 부정적인 의미에 대하여 검토하기 위하여 위의 예시 (31)의 문장을 제시하였다. (31b)에서 ‘말다’는 중단의 의미를 가지고, 이때 화자는 부정적인 정서를 갖고 있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1a)의 경우는, 이가 시험에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걱정과 부담감을 느꼈지만, 결국 시험에 합격함으로써 성취감을 느꼈다는 것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인 정서가 담겨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가 유학을 가는

것을 싫어했다면 시험에 합격한 것에 대해 아쉬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으므로, 이 문장을 부정적 기분으로 해석하는 것이 성립할 때도 있다. 따라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말다’라는 보조동사는 ‘끝남’이나 ‘달성’, ‘성취’ 등의 양태적 의미를 나타내지만, 문장의 중심이 주어인가 화자인가, 혹은 문장에 담긴 화자의 생각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답은 발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양태적인 의미를 지닌 보조동사 ‘말다’는 통사적 결합 관계에 있어서도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말다’의 통사적인 제약에 대해서는 이어서 논의 하도록 하겠다.

#### 2.4.4. 보조동사 ‘말다’의 통사적인 결합 관계 및 제약

‘버리다’와 마찬가지로 ‘말다’는 동사와의 결합이 자유로운 편이다. ‘말다’는 주어의 의도나 의지를 드러내는 양태적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본용언은 주로 주어의 행위를 나타낼 수 있는 동작 동사이다.

32) a. 그녀는 웃고 말았다.

b. 그녀는 빵을 먹고 말았다.

c. 청바지가 찢어지고 말았다.

d. 날씬해지고 말았네.

e. 거짓말하고 말았어.

f. 말하다, 거짓말하다, 간과하다, 시작하다, 약속하다, 욕하다, 처리하다, 해결하다, 준비하다, 생기다...

(3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말다’는 자동사, 타동사, 동사 피동형, 동사 사동형, ‘동사+아/어/여지다’형, ‘형용사+아/어/여지다’형, ‘명사+하다’ 동사들과의 결합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다. (32f)는 ‘말다’ 구성과 결합이 가능한 ‘명사+하다’형 동사를 정리한 것이다. 완료상 보조동사 ‘버리다’, ‘내다’, ‘말다’는 사건에 대한 단순한 기술뿐만 아니라 ‘행위’에 대한 주어의 심리적인 상태를 나타내고 위에 제시된 동작 동사들은 동작이나 행위, 장면의 변화의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이러한 동사는 완료상 보조동사와 결합은 아주 자연스럽게. 또한 ‘크고 말았다’에서 볼 수 있듯이 일부 형용사는 상태 동사로도 쓰일 수 있는데 이러한 형용사들도 ‘말다’와 결합할 수 있다.

‘말다’는 동작 동사와의 결합이 가능하지만, 일부 상태 동사를 제외하고는 상태 동사와의 결합은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앞서 ‘버리다’의 결합 제약에 대해 검토하면서 결합이 부자연스러운 형용사들의 예를 제시하였는데, ‘말다’ 역시 ‘버리다’와 마찬가지로 예시 (8)에서 나열한 형용사들과의 결합에 제약이 있다.

예시(11)과 (12)에서 자주 쓰는 부사들을 정리한 바가 있는데, 부사어와의 결합 관계에 있어 ‘말다’는 ‘버리다’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그중에서 특히 ‘결국, 나도 모르게’ 등의 부사어들이 ‘말다’ 구문에서 자주 쓰인다. 그러나 ‘조금’과의 결합 관계에 있어 ‘말다’는 ‘버리다’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조금 먹고 말았다’는 자연스럽지만 ‘조금 먹어 버렸다’는 비문이 된다. 이는 ‘-고 말다’가 ‘버리다’의 ‘제거’라는 의미와 달리, ‘지속의 중단’이라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고 말다’ 구성은 동사와의 결합에 거의 제약을 받지 않고 상대적으로 자유로운데, 결합 가능한 어미는 제한되어 있다. 결합 가능한 연결어미는 ‘-ㄴ, -르, -는, -었-, -겠-, -는다’ 등을 들 수 있는데 그중 선어말어미 ‘-었-’과 ‘-겠-’이 가장 자주 쓰인다. 이처럼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들은 주로 본동사가 아닌 보조동사 ‘말다’와 결합되어 쓰인다. 또한 ‘-겠-’과 결합될 때는 ‘-겠-’의 의미에 따라 결합 제약이 생긴다.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겠-’은 주로 ‘추측, 의도, 가능성’ 등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주어가 2인칭일 때 ‘의지’의 의미 자질을 나타내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어 결합에 제약을 받는다. 또한 ‘말다’ 구문은 행위의 완료나 추측, 의도 등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이때 주어는 보통 사람이나 사람을 포함하는 유정명사가 오는데, 은유적인 표현을 하기 위하여 무정명사가 올 때도 있다.

또한 ‘담배를 끊고 마세요’에서 볼 수 있듯, ‘-고 말다’는 일반적으로 청유형과 명령형과의 결합이 허용되지 않는다.

‘-고 말다’에 준대 선어말 어미 ‘-시-’가 결합될 때는 주로 보조동사와 결합된다. 그러나 ‘말다’는 상황에 따라 주어의 양태를 나타낼 수도 있고 화자의 심리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으므로, 그에 따라 ‘-시-’와의 결합 제약도 달라진다. 주어 중심 문장에서 본용언에 ‘-시-’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보조동사에 다시 한 번 ‘-시-’가 나타나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다. 그러나 화자의 심리 태도를 나타내는 화자 중심 문장에서는 주어에 대한 제약이 없어지며, 존재 선어말 어미 ‘-시-’는 본용언에 결합된다. 아래 예문 (33b)는 바로 이에 해

당하는 예이다. 이처럼 존대 선어말어미 ‘-시-’의 위치에 따라서도 ‘말다’의 의미가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다.

- 33) a. 아버지께서는 떠나고 마셨다.  
b. 아버지께서는 떠나시고 말았다.  
c. 아버지께서는 떠나시고 마셨다.

## 2.5. 보조동사 ‘버리다’, ‘내다’, ‘말다’의 비교

앞 절에서 보조동사 ‘버리다’, ‘내다’, ‘말다’ 각각의 상적, 양태적 및 통사적인 특징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이러한 작업을 토대로 이 세 개의 보조동사 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

- 34) a. 철수가 그 밥을 다 먹어 버려서 다행이다.  
b. \*철수가 그 밥을 다 먹고 말아서 다행이다.

예문(34)에서 보듯이 후행절의 형용사 ‘다행이다’, ‘시원하다’는 동작의 완료됨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 표현이다. 이러한 형용사들이 -어 버리다와 같이 쓰이면 문법적이지만 ‘-고 말다’와 같이 쓰이면 비문법적이다. 즉 부담을 덜게 되어 시원한 감정을 나타낼 때는 ‘-어 버리다’를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는 김성화(2003)에서는 ‘-고 말다’는 ‘정상적인 기준에서 벗어난 동작의 종결’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 35) a. 철수는 밥을 먹지 말까 또는 조금 먹을까 하다가 어머니가 쳐다보시는 바람에 결국 다 먹고 말았다. (김성화 2003:307)  
b. 영화를 보고 싶지는 않았지만, 친구 때문에 그 영화를 보고 말았다.

예문(35a)에서 문장 주어인 철수가 정상적인 동작 기준은 먹지 않거나 조금 먹는 것인데 다른 부득이한 원인으로 인해 결국 다 먹음으로써 정상적인 테서 일탈한 종결을 보여 준다. 부사어 ‘결국’은 이러한 의미를 더해 준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문(35b)는 정상적인 동작 기준은 영화를 보지 않는 것인데 비의도적으

로 정상적인 기준에서 일탈하여 영화를 보는 동작 실행이 종결됨을 나타낸다.

- 36) a. 밥을 다 먹어 버려라.  
b.\*밥을 다 먹고 말아라.  
c. 나는 이번 시험에 꼭 합격하고 말겠어.  
d.\*나는 이번 시험에 합격하고 말았어.  
e. 의사는 환자를 끝내 살려내고 말았다.  
f.\*의사는 환자를 끝내 살리고 말았다.

보조동사 ‘말다’의 이러한 정상적인 상황의 일탈의 의미에 대한 다른 예들이다. ‘말다’의 통사적인 제약을 검토했을 때 ‘말다’는 명령형이나 청유형으로 쓰일 수 없다고 했다. 이는 ‘버리다’와의 하나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 ‘말다’의 양태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36a, b)에서는 화자가 밥을 다 먹는 것을 바라는 정상적인 동작의 종결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먹어 버려라’를 사용할 수 있으나 정상에서 벗어난 동작의 종결을 요구하는 것은 부자연스러우므로 ‘말다’가 쓰인 문장이 비문법적이다. 또한 ‘말다’는 ‘-겠-’을 붙이면 강한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것도 ‘말다’의 동작이 정상적인 기준에서 일탈함을 나타낼 수 있다. 예문 (36c, d)에서 볼 수 있듯이 명제 내용의 정상적인 기준은 행동주의 합격보다 불합격에 가깝다. 그래서 ‘-겠-’을 붙이면 화자가 이러한 장애가 되는 여러 요인을 극복하여 부정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를 나타낸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에서 합격을 기대하는 것이 정상적인 기준이고 (36d)는 이 정상적인 기준에서 일탈하지 않으므로 ‘말다’의 사용이 부자연스럽다. (36e, f)의 경우 ‘살리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말다’와 결합되지 않는다. 그러나 ‘살리다’와 ‘내다’가 결합되어 상황이 아주 나쁜 환자를 기어이 살아나게 함을 나타내고, 즉 본래 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벗어남을 나타내므로 이 문장이 자연스럽다. 그러므로 ‘말다’는 화자의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 중에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판단하기 위하여 담화의 상황적 맥락을 파악해야 된다. 그리고 그 맥락에 부응되는 정상적인 상황에 일탈함을 표현할 때 ‘말다’의 사용이 가장 자연스럽다.

(36e)에서 본 바와 같이 한 문장에 보조동사는 하나만 쓰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나 두 개 이상 연결될 수 있다.

37)영희가 우유를 먹어 버리고 말았다.

김성화(2003)에서는 ‘버리다’가 ‘말다’에 선행할 수 있는 것은 ‘버리다’가 동작의 종결과 더불어 불필요해진 비실행의 상황이 제거됨을 나타내고, ‘말다’는 동작의 종결과 더불어 다른 동작의 실행이 단절됨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말다’는 종결된 동작의 수행 방법이 아닌 다른 동작 수행의 방법이나 동작의 비수행 등의 단절을 나타내므로 동작 비수행의 제거를 나타내는 ‘버리다’보다 단절 또는 제거의 범위가 넓다고 지적하였다. 이렇듯 ‘버리다’는 행위의 완료가 우선되어 그 행위를 ‘제거’하는 과정을 통해 어떤 후행의 결과나 화자의 심리가 따라오는 것임을 나타낸다. 반면 ‘말다’는 다른 동작의 실행을 단절함으로써 우선 어떤 지속되는 행위가 완료될 때까지 이 과정이 우선된다. 이 점에서 ‘버리다’와 ‘말다’는 차이가 나기도 한다.

38) a. 차가 막히는 바람에 기차를 놓쳐 버렸다.

b. 차가 막히는 바람에 기차를 놓치고 말았다.

예문(38)에서 ‘버리다’와 ‘말다’가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했다. 이는 아쉬움이나 후회 등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버리다’와 ‘말다’가 대부분의 경우에 바꿔 쓸 수 있다.

앞에서 논의한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3> 완료상 보조동사 의미적 및 통사적 특성 비교

보조동사 의미 기능	-고 말다	-어 버리다	-어 내다
상적 의미	행위의 완료		
	행위가 완료되기까지의 과정이 우선됨; 선행하는 동작이 어떤 한계점에 이르러 중지됨	행위의 완료가 우선	
양태적 특징	주어 중심+ 화자 중심		주어 중심
	-선행절이나 선행하는	시원함;	성취감

		문장에 따라 심리 태도가 달라지고, 그러한 결과나 행위가 완료되기까지의 과정이 우선된다. -정상적인 상황에 일탈	결과나 행위의 완료가 우선되며, 후행절이나 후행하는 문장에 따라 심리 태도가 달라진다.	어려움 극복
		아쉬움, 기대에 어긋남, 후회		
통사적 특징	선행 용언	변화 동작 동사(일부 제외)+ 일부		타동사 의지
		과정 문어적 특징	순간 결과	
	부사어	(X)미완료의 의미를 가진 부사어의 경우는 결합제약이 있음: 아직, 여태		일반적으로 분량이 적게 나타나는 부사 ‘조금, 약간’ 등과 같이 쓰이지 않으나 예문 (13)과 같이 함께 쓰이는 경우도 있다.
		(O)조금 먹고 말았다.		
	주어	주로 유정명사		
	부정 표현	짧은 부정	짧은 부정(안-, 못-) 긴 부정(-지 않다; -지 못하다)	
	선어 말 어미	보조동사에 ‘-시-’가 붙어 사용된다. (일부 제외)		
반복 연속	버려 버린다. -어 버리고 말다.			

### 3. ‘버리다’, ‘내다’와 ‘말다’의 중국어 대응 표현

대조분석가설에 따르면, 학습자가 제2언어를 배울 때 모국어의 영향을 받아 모국어와 유사한 요소들은 배우기가 쉽고, 다른 요소들은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 가설은 많은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어 간에 존재하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제2언어 학습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중국의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교사도 모국어 대응표현을 통해 문법 항목을 교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한국어와 달리 중국어는 고립어이며, 단어의 형태가 고정되어 있어 문장의 문법 성분이 형태가 아닌 어순에 의해 구분된다. 뿐만 아니라 두 언어에 명칭이 다르지만 비슷한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들이 있고 명칭이 비슷하지만 문법적으로 하는 역할이 전혀 다른 것도 있다. 표면적으로 한국어의 보조동사는 중국어의 조동사와 비슷한 명칭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보조동사의 개념이 뚜렷하게 설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중국어에서는 조동사에 대한 연구가 분분하고 그 정의와 분류 기준도 학자마다 다양하다. 또한 대략적으로 중국어의 조동사는 동사 및 부사어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영어의 조동사(auxiliary verb)와 유사점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呂叔湘(1979)에 따르면, 중국어의 조동사는 가능과 필요, 바람을 표현하는 데 쓰인다고 하여 ‘능원동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능원동사는 주로 能, 會, 該, 想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는 한국어의 ‘-야 하다/-고 싶다’ 등과 잘 대응된다. 이처럼 중국어의 조동사, 즉 능원동사와 대응하는 한국어의 보조동사는 몇 개밖에 없는데, 한국어의 보조동사는 중국어의 능원동사 외에도 보어, 부사어, 조사, 계사, 동사의 중첩형과 고정적 형식 등과도 대응 관계를 보인다. 즉, 한국어의 보조동사와 중국어의 조동사는 비슷하게 부르기 하지만 각각이 하는 역할이 차이점이 많고 한국어 보조동사와 중국어 표현 간에는 다양한 대응 관계가 나타난다. 완료라는 상적 의미를 지닌 완료상 보조동사 역시 중국어의 보어, 부사어 등 다양한 문장 성분과 대응관계를 가진다. 그러므로 이 절에서는 한국어 완료상 보조동사의 중국어 대응 표현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 3.1. 중국어 결과보어

한국어 보조동사는 본동사 뒤에 붙어서 의미를 보충하거나 강조해 주는 역할

을 한다. 중국어의 보어는 서술어인 동사나 형용사 뒤에 다시 동사나 형용사가 와서 선행어의 의미 및 기능을 보완하는 문장성분을 가리킨다. 따라서 중국어의 보어는 한국어의 보어와는 다르지만, 한국어의 보조동사와는 공통점이 많다. 즉, 한국어 보조동사와 중국어의 보어 모두 서술어에 붙어서 서술어의 의미를 도와 주는데, 이 외에도 많은 공통적 특징을 찾을 수 있다. 그중에서도 중국어의 결과보어는 어떠한 동작이나 행위가 끝남에 따라 그 결과를 서술하는 보어이므로 동작의 완료를 의미하는 한국어의 완료상 보조동사와 의미상 매우 유사하다. 한국어의 완료상 보조동사와 중국어 결과보어의 공통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 완료상 보조동사와 중국어 결과보어는 모두 본용언의 의미를 도와주고 본용언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본용언과 함께 새로운 의미를 나타낸다.

둘째, 완료상 보조동사와 결과보어는 모두 문법적 의미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휘적 의미도 지닌다. 즉, 보조용언과 결과보어는 상이나 양태와 같은 문법적 의미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휘 자체의 의미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한국어의 완료상 보조동사와 중국어의 결과보어는 독립적으로 하나의 문장을 이룰 수 없다.

이처럼 중국어의 결과보어는 한국어의 완료상 보조동사와 유사한 의미적, 통사적인 특징을 보인다.

39) a. 그는 가 버렸다.

他 走 掉 了。

[그] [가다] [버리다] [과거]

b. 고통을 끝까지 참아 냈다.

忍 住 了 痛苦。

[참다] [내다][과거] [고통]

c. 나는 돈을 다 써 버렸다.

我 把 钱 都 花 完/光/掉 了。

[나] [돈] [다] [쓰다] [버리다] [과거]

예문 (39)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어 보조동사 ‘버리다’와 중국어의 결과보어

‘掉’, ‘完’, ‘光’, 한국어 보조동사 ‘내다’와 중국어 결과보어 ‘住’ 간에는 일정한 대응 관계가 나타난다. 특히 ‘버리다’와 결과보어 ‘掉’는 보조동사로서 쓰일 때 잘 대응할 뿐만 아니라 본동사로서의 두 단어도 의미상 유사성이 있다. 한국어의 완료상 보조동사와 중국어 결과보어 중에 공통점이 가장 많은 것이 바로 보조동사 ‘버리다’와 중국어의 ‘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의 보조동사와 중국어의 결과보어는 서로 완전히 대응되는 것이 아니다. 한국어의 보조동사와 중국어의 결과보어는 상이한 양상을 보일 때도 있다. 보조동사와 중국어의 결과보어 간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의 보조동사는 중국어 결과보어보다 의미 범위가 넓고 다양한 분류 기준으로 나누어진다.

둘째, 중국어의 결과보어 구문에서는 완료상을 표현하기 위하여 결과보어 뒤에 ‘了’만 올 수 있다.

셋째, 중국어의 결과보어는 한국어 보조동사와 같은 연속 현상이 없다.

넷째, 중국어의 결과보어와 선행 동사 간에는 다른 성분이 개재될 수 있는데, 한국어의 보조동사와 선행어 간에는 다른 성분이 삽입될 수 없다.

40) 吃掉了 → 吃得掉, 吃不掉  
 먹어 버리다 → \*먹지 않아 버리다

예문 (40)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어의 본동사와 결과보어 간에는 조사 ‘得’나 부정성을 나타내는 ‘不’가 삽입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먹어 버리다’를 부정형으로 바꾼 ‘먹지 않아 버리다’는 비문이 된다. 즉, 중국어의 결과보어는 한국어의 보조동사와 의미적으로 유사점이 많지만 통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차이점도 존재하는 것이다.

### 3.2. 다른 형식과 대응

왕례량(2006:264)에서는 문법 범주의 차원에서 한국어의 보조용언과 중국어의 대응 표현을 분석하기를 시도하였는데 이는 한국어 보조용언은 일정한 중국어 문법 범주로 표현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고 한국어의 보조용언은 중국어의 조동사, 보사, 조사, 개사, 부사, 그리고 동사의 중첩형 등과 대응 관계가 있다고 하였

다. 보조용언이라는 말이 보조동사와 보조형용사를 모두 포함하여 많고 다양한 보조동사들이 있어 자연스럽게 다양한 중국어 표현과 대응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의 보조동사와 중국어의 일정한 표현이 일대일의 대응 관계가 있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기존의 연구에서 한국어의 완료상 보조동사는 항상 중국어의 결과보어와 대응한다고 분석하였으나 실제적인 상황을 볼 때 그 대응 관계가 이보다 더 복잡하게 나타난다. 한국어의 완료상 보조동사는 중국어의 결과보어와 일정한 대응 관계를 보여 학습자가 중국어의 결과보어를 통해 한국어의 보조동사의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나 한국어의 완료상 보조동사는 중국어의 결과보어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법 범주와 구성과 대응 관계가 존재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완전하게 대응하는 형식이 없는 경우도 있다. 우선 교재에서 나온 예문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41) a. 새로 산 가방이 없어져 버렸다.

新 买的 包 不见 了。

[새로] [산] [가방] [없어지다] [과거]

b. 마침내 협의를 이루어 냈다.

最终 达成 了 协议。

[마침내] [이루다] [과거] [협의를]

c. 이번 주 안에 논문을 꼭 완성하고 말겠다.

这 周 内 一定 要 完成 论文。

[이번] [주] [안에] [꼭] [-겠-] [완성하다] [논문]

예문 (41)에서 볼 수 있듯이 완료상 보조동사에 특정한 대응표현 없이 중국어로 된 문장이 성립할 때가 있다. (41a)에서 ‘버리다’는 가방이 없어졌다는 것을 강조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화자의 아깝거나 후회스러운 심리적인 태도를 나타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문장을 중국어로 번역하면 결과보어의 삽입이 불가능하고 단지 과거형으로 번역된 문장이 가장 자연스럽게. (41b)에서 ‘내다’는 협의를 이루었다는 결과를 강조하고, 화자가 일정한 노력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심리태도도 함께 표현한다. (41c)에서 ‘말다’는 선어말 어미 ‘-겠-’과 함께 쓰이므로 어떤 일을 꼭 완성하겠다는 화자의 강한 의지를 표현한다. 이 세 문장은 완료상 보조동사 없이도 문장이 성립하나, 완료상 보조동사는 동작이 완료된

다는 의미를 강조하며 화자의 심리적인 태도도 함께 나타낼 수 있다. 중국어에는 시상 표시 ‘了’와 부사어가 함께 쓰여서 동작의 완료됨을 나타내고 강조할 수 있으나, 완료상 보조동사처럼 화자의 심리 태도까지는 표현하지 못한다. (41b)의 번역문에 부사어 ‘最終(최종)’은 일정한 힘든 과정을 걸친다는 의미를 내포되어 있어 부사어를 통해 화자의 심리 태도를 엿보일 수 있으나 부사어는 원문에 ‘마침내’와 대응하여 보조동사의 대응 표현으로 삼을 수 없다. 또한 이런 부사어간에 대응 관계는 오히려 보조동사 사용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학습자가 화자의 발화 상황 맥락을 잘 파악하여 모국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적절하게 보조동사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다.

이와 같은 대응 관계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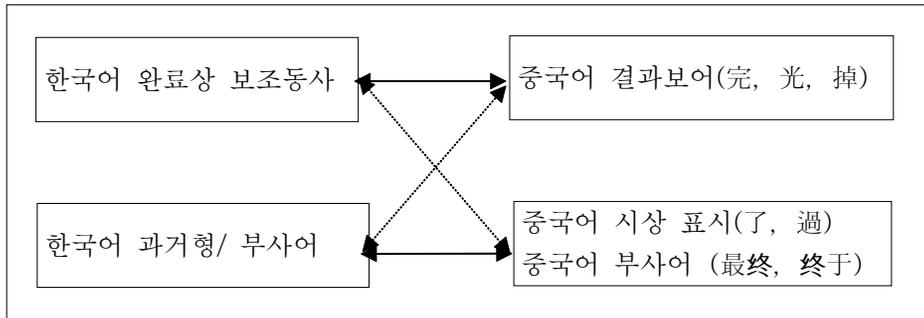
<표 4> 한국어 완료상 보조동사와 중국어 대응 표현

유형	대응 표현	예문
보조동사- 결과보어	버리다- 掉, 光, 完 내다- 好, 成, 住	한 글자를 지워 버렸다. 删 掉 了 一个 字。 [지우다][버리다][과거][한][글자]  고통을 끝까지 참아 냈다. 忍 住 了 痛苦。 [참다][내다][과거][고통]
보조동사- ∅		꿈을 꼭 이루어 낼 것이다. 一 定 会 实 现 梦 想。 [꼭] [-르 것이다] [이루다] [꿈]  기차가 부산으로 떠나고 말았다. 火 车 离 开 去 釜 山 了。 [기차][떠나다][-로][부산][과거]

중국어에는 시상의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시상과 시제의 차이가 그리 뚜렷하지 않다. 대부분 기존의 연구에 따라 중국어의 시상은 시상 표시 ‘了, 著, 過’로 표현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이 중에 ‘了, 過’는 과거를 나타내고 ‘著’는 진행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들은 시상 표시로 처리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황에서 동

작의 끝남을 강조할 때도 있기 하지만 대부분 경우에는 단지 과거의 사건을 기술할 뿐이다. 사전<sup>7)</sup>에 따라 ‘了’는 ‘동작이나 변화가 끝남’이라고 의미한다. 동작의 완료됨을 의미하는 데 중국어의 시상 표시는 한국어의 완료상 보조동사와 같은 역할을 하지만 다양한 양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그림 1> 한국어 완료상 보조동사와 중국어 대응 관계



예문 (41b)에서 ‘了’가 나타났는데 이 문장에서 ‘了’는 어떤 성과를 힘들게 달성한다는 뜻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대신 부사어 ‘最終(최종)+了’라는 구성이 이러한 동작의 완료가 상반된 화자의 심리 태도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부사어+ 완료 시상 표시’의 구성은 한국어의 완료상 보조동사와 의미상 유사점이 존재한다. 기존에 연구에서 완료상 보조동사는 중국어의 부사와 대응하여 분석한 적이 적지만 다른 보조동사를 중국어의 부사와 대응시켜 한 연구가 적지 않다. 왕례량(2006)에 따라 한국어 보조동사 ‘대다/쌓다’는 중국어의 부사어 ‘一直, 總是’와 대응한다고 주장했다. ‘대다/쌓다’는 보조동사로서 동작의 반복과 유지의 의미를 나타내어 상과 관련이 있는데 중국어에는 이러한 상적인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성분이 부사어 ‘一直, 總是(자주, 자주)’밖에 없다. 한국어의 완료상 보조동사는 중국어의 결과보어와 의미상, 구조상 유사점이 많으므로 쉽게 대응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이러한 대응 관계가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대응 형식이 존재하는 것을 간과하게 한다. 예문 (41)과 <표 4>의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국어의 ‘부사어+ 시상 표시’는 시상 표시로 과거, 그리고 동작의 완료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고 부사어는 화자의 심리 태도와 동작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으므로 완료상 보조동사와 비슷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7) 新華字典(2011), 商務印書館.

구성은 완료상 보조동사의 일종의 대응 표현으로 간주된다. 한국어 완료상 보조동사와 중국어의 대응 표현 간의 관계를 <그림 1>과 같이 제시하였다. 완료상 보조동사와 중국어의 부사어와 같이 구조상 다르게 보이지만 의미상 유사점이 강한 것은 점선으로 연결하였다.

### III. 학습자 완료상 보조동사 인식·습득 양상

본 조사에 앞서 중국인 학습자의 완료상 보조동사의 습득 양상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 결과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가 이러한 보조동사들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보조동사의 사용에 있어 회피 현상이 있고 혼동하기 쉽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2장에서 검토한 완료상 보조동사에 관한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가 지니고 있는 ‘버리다’, ‘내다’, ‘말다’의 인식 및 습득 양상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학습자의 오류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조사 설계

##### 1.1. 연구 참여자 정보

본 연구는 중국 내 대학교 한국어과 4학년 학생 총 62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국제통용 한국어교육의 표준 모형 2단계 문형 부록>에 따라 ‘버리다’와 ‘말다’는 중급 문형 목록에 속하고 ‘내다’는 고급 목록에 속한다. 따라서 중급 학습자보다 고급 학습자가 조사 참여자로서 더욱 적절하다.

조사 대상 선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에서 널리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에는 ‘버리다, 말다, 내다’가 주로 3학년 교재에서 출현한다. 대학교 2, 3학년인 중급 학습자는 아직 이 3가지의 문형을 다 학습하지 못한 상태이고, 한국어 수준이 높지 않음에 따라 문형의 심층적인 의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단계에 있다. 대학원생이나 다른 기관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고급 학습자들은 목표 문형을 배운 지 오래되어 기억하지 못하거나 체계적으로 목표 문형을 배우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사 참여자로서 적절하지 못하다. 이들에 비해 4학년 재학 중인 학습자들은 이미 목표 문형을 모두 배우고 비교적 높은 한국어 실력을 갖추어 큰 어려움 없이 이 3가지의 문형들을 잘 인식하고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능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버리다’, ‘내다’, ‘말다’의 다양한 의미적이고 통사적인 특징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진 단계인 4학년 학습자에 한정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중국 국내의 한국어교육에 있어 지역별 주로 사용하는 교재와 교수 환경 등 요소가 천차만별이어서 지역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

하여 본 연구는 북경 지역에 있는 대학교로 한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대상자는 주로 중국 북경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4학년 학습자 총 62명으로 구성되었다.

중국인 학습자에게 한 조사 결과가 유의미한지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인 모어 화자에게도 같은 조사를 실시하였고 결과 분석할 때 두 집단의 수치를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대조 집단은 한국인 모어 화자 43명으로 구성되었는데 모든 조사 참여자는 중국인 학습자와 비슷하게 20대의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었다. 조사 참여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5> 연구 참여자 정보

분류	중국인 학습자 <sup>8)</sup>		한국인 모어 화자 <sup>9)</sup>
인수	62명		43명
성별	남자 23명, 여자 39명		남자 15명, 여자 28명
한국어 수준	고급(4학년 재학)		해당 안 됨
소속 대학 및 인수	북경외국어대학교	18	
	북경제2외국어대학교	15	
	북경어언대학교	13	
	중앙민족대학교	7	
	중국전매대학교	9	

## 1.2. 조사 구성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완료상 보조동사 ‘버리다’, ‘내다’, ‘말다’의 의미와 통사적 제약을 어떻게 인식하고 사용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조사 참여자에게 예비 조사, 본 조사, 사후 인터뷰의 총 3 단계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는 주로 빈칸 채우기 문제와 번역 문제로 구성되었다. 예비 조사를 통해서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이 완료상 보조동사 ‘버리다’, ‘말다’, ‘내다’의 학습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중국인 학습자들이 이런 완료상

8) 이하 ‘CL’로 씀

9) 이하 ‘KN’로 씀

보조동사 간의 의미상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고 실제 상황에서 이들을 어떻게 구별해 써야 되는지 명확히 파악하지 못해 회피현상이 종종 일어남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예비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이 완료상 보조동사를 학습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완료상 보조동사에 대한 중국인 학습자의 구체적인 습득 양상 및 자주 범하는 오류의 유형 및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주로 설문지<sup>10)</sup>법으로 진행했는데 학습자의 인식 양상 조사, 습득 양상 조사 및 교수·학습 실태 조사가 모두 포함된 총 3 차례의 조사로 구성되었다. 1차 조사에서는 중국인 학습자가 완료상 보조동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고 2차 조사에서는 목표 문형에 대한 중국인 학습자의 습득 양상을 조사하였다. 보조동사를 사용할 때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모어 화자와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어떤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조사 대상으로 중국인 학습자뿐만 아니라 한국인 모어 화자도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중국인 학습자가 완료상 보조동사의 학습과 관련하여 교사와 교재, 교육과정 등에 대한 생각을 파악하기 위하여 교수·학습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상의 세 차례의 조사를 거쳐 수집한 설문지의 결과를 정리하여 전체적인 수치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설문조사를 통해 학습자가 완료상 보조동사를 사용할 때 자주 범하는 오류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이는 통계적인 수치뿐이고 학습자가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왜 정답이 아닌 다른 답을 선택했는지 등을 알아보고 오류 원인을 파악하는 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따라서 조사 결과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후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사후 인터뷰는 총 10명의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사후 인터뷰 참석자가 집단은 2차 조사에 정답률이 가장 높은 학습자 3명, 정답률이 가장 낮은 학습자 3명, 임의적으로 뽑은 4명으로 구성되었다.

사후 인터뷰는 설문조사가 끝난 후 1주일 안에 모두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이 편안하게 인터뷰에 응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모국어인 중국어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학습자의 응답을 녹음하여 전사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든 조사의 결과를 정리하여 중국인 학습자의 인식 및 습득 양상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오류 원인을 상세하게 검토하였다.

---

10) 설문지 양식- 부록 참조

설문지는 다음과 같이 구안되었다. 1차 조사는 ‘학습자 인식 양상’에 대한 조사이고 중국인 학습자가 평소에는 완료상 보조동사를 사용하는 빈도와 인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설정한 조사이다. 습득 양상 조사를 먼저 실시할 경우 인식 조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인식 조사를 먼저 실시하여 1차 조사와 2차 조사가 최대한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하고자 하였다. 학습자 인식 양상 조사는 총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됐는데 1번과 2번 질문은 학습자가 완료상 보조동사의 사용에 대해 빈도와 인식 정도를 스스로 평가하여 채점하게 하는 문항이고 3번 질문은 ‘-어 버리다’, ‘-어 내다’, ‘-고 말다’에 대한 아는 의미와 기능을 모두 쓰게 하는 단답형 문항이다. 학습자 인식 양상 조사의 예시는 다음 표와 같다.

<표 6> 한국어 완료상 보조동사 인식 양상 조사의 구성

문항 유형	문항 예시
선다형 (채점 평가) 단답형	<p>1. 평소에 한국어를 사용할 때 아래의 보조동사를 자주 쓰니까? (1써본 적 없다— 3보통이다 — 5매우 그렇다) -어 버리다: 1 2 3 4 5 -어 내다: 1 2 3 4 5 -고 말다: 1 2 3 4 5</p> <p>2. 각 보조동사의 의미 및 용법에 대한 잘 압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 3 보통이다 -- 5 매우 그렇다) -어 버리다: 1 2 3 4 5 -어 내다: 1 2 3 4 5 -고 말다: 1 2 3 4 5</p> <p>3. 아래의 문항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의미 및 용법을 써 주십시오.) -어 버리다: -어 내다: -고 말다:</p>

예비조사 결과, 많은 중국인 학습자들이 ‘버리다, 내다, 말다’ 이 세 가지의 보조동사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거나 이들 간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했고, 중한 번역 문제에서 보조동사를 안 쓰는 회피 현상이 많이 나타났으므로 이는 모국어의 간섭, 부정적인 전이, 학습 숙달도 낮음 등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상된 결과를 확증하고 중국인 학습자의 완료상 보조동사의 구체적인 습득 양상 및 오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2차 조사 실시하였다. 2차 조사는 주로 보조동사의 습득 양상에 대한 조사인데 2차 설문지 문항은 번역 테스트, 담화 완성 테스트 및 문법성 판단 테스트로 구성됐다. 문항 설정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7> 완료상 보조동사 습득 양상 설문 조사 구성 및 원리

문항 유형	측정 목표	문항 출처	개수
번역 테스트	회피현상 발생 유무의 확인	중국 대학교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에서 나온 예문 (문장이나 대화문)	6
담화 완성 테스트	주어진 상황에서 보조동사를 사용하는 양상; 완료상 보조동사의 양태적인 의미 습득 양상	세종 말뭉치 자료, 드라마 대본, 토픽 문형 및 교재 예문을 활용하여 일정한 상황을 설정하여 대화문을 만들었음	9
문법성 판단 테스트	완료상 보조동사의 통사적인 결합 관계에 대한 인식	말뭉치 자료, 토필 문형 및 교재 예문	30

<표 7>에서 문형 유형별 측정하고자 하는 총체적인 목표 및 문항 출처를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번역 테스트는 총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중국어로 된 짧은 대화문이나 발화 상황을 읽고 주어진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문제들이다. 한국어 교재에서 나온 예문의 중국어 번역문을 활용하여 보조동사로서의 ‘버리다’와 ‘내다’, ‘말다’가 포함된 문장이나 대화문을 각각 2개씩 선정하여 출제하였다. 이러한 번역 테스트는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발화할 때 보조동사를 쓰는지 또는 쓰는 빈도가 어떤지, 상황에 맞게 쓸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정한 문항이다. 또한 조사 참여자가 뒤에 나오는 보조동사가 포함된 대화문이나 문장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번역 문항을 설문지 가장 앞부분에 두었다. 그리고 이 6개의 문항은 대조 집단인 한국인 모어 화자에게 제공한 설문지에서는 제외하였다.

이어서 담화 완성 테스트는 엄밀히 말하자면 담화 완성 테스트와 문법성 판단 테스트를 혼합하여 만든 문항이다. 이 9개의 문항은 주로 중국인 학습자의 ‘버리다’, ‘내다’, ‘말다’의 양태적인 의미 습득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어진 맥락에서 대화를 주고 화자의 가장 알맞은 발화를 문장이나 고르게 하는 유형이다. 이 부분은 단순히 학습자들에게 대화 상황을 주고 학습자들이 자의적으로 답을 쓰는 것이 아니라 대화문에서 보조동사와 선행하는 용언까지만 지워 빈칸을 만들고 몇 개의 의미상 유사한 보조동사가 쓰인 답을 제공하여 상황 맥락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보조동사 구성을 모두 고르게 하는 것이다. 이는 학습자가 ‘버리다’, ‘내다’와 ‘말다’의 의미를 어떻게 습득하는지 그리고 의미상 유사점과 차이점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혼동하여 쓰는 경우가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구안한 문항이어서 학습자들이 자유롭게 답을 만들게 하면 이 몇 가지의 보조동사와 아예 상관없는 답이 나올 수도 있으므로 대답의 범위를 통제할 수 있도록 선다형 테스트로 만들었다.

이러한 선다형 테스트를 통해 측정하고자 하는 의미 기능은 주로 각 보조동사의 양태적인 의미이다.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버리다’는 주로 ‘아쉬움’, ‘후회’, ‘부담 제거’, ‘시원함’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내다’는 ‘성취’, ‘어려움 극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말다’는 ‘중지’, ‘아쉬움’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또한 ‘말다’는 ‘버리다’와 의미상 유사한 점이 있고 특히 ‘아쉬움’이라는 심리적인 태도를 나타낼 때 자주 교체 사용이 가능하지만 ‘말다’는 ‘버리다’와 달리 ‘시원함’이라는 의미를 드러내지 않고 ‘버리다’와 ‘내다’보다 문어적인 특성이 더욱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기도 하며, ‘말다’는 ‘-겠-’과 같이 쓰일 때 화자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러한 ‘버리다’, ‘내다’, ‘말다’의 서로 다른 양태적인 의미를 중국인 학습자가 잘 인식하고 구별하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9개의 문항을 만들었다.

이 9개의 문항은 대화문도 있고 문어적인 특성이 잘 드러나는 신문 기사도 있는데 말뭉치 검색 결과에 예문과 교과서에서 나온 예문들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의미별 특정 보조동사 구문이 실현되도록 적절한 상황 맥락을 만들어서 조사 참여자가 해당 상황에서 요구되는 특정 보조동사 구문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지 아니면 혼동하여 사용하는지 하는 학습자의 습득 양상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말다’와 ‘버리다’는 의미상 겹치는 부분이 있으므로 둘 다 사용 가능한 상황과 대화도 제시하고 학습자들로 하여금 답을 하나만 고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답을 선택하게 하였다. 이러한 복수 응답형 테스트의 개방성 때문에 학습자가 유사한 의미 간에 차이를 구별하지 못해 범하는 오류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설문지에는 ‘-어 버리다’, ‘-어 내다’, ‘-고 말다’ 뿐만 아니라 적절하게 다른 보조용언을 섞어 학습자들이 조사 목적에 대해서 쉽게 알아채지 못하도록 하였다.

학습자 습득 양상 조사의 마지막 부분은 전형적인 문법성 판단 테스트인 진위형 판단 테스트이다. 이 부분은 주로 문장이 문법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를 판단하라는 문제이고 완료상 보조동사의 통사적인 특징 및 제약의 습득 양상을 밝히기 위해서 설정한 것이다. 이 부분에는 총 30개의 문항이 있다. 보조동사 ‘버리다’, ‘내다’, ‘말다’는 공통적으로 대부분 형용사가 선행어에 올 수 없고 존대 선어말어미 ‘-시-’나 시제 선어말 어미 ‘-았/었/겠-’ 등은 보조동사와만 결합이 가능하다. 학습자가 이러한 통사적인 제약에 대하여 어떤 습득 양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교재에서 나온 비문 예시나 말뭉치 자료에 있는 문장을 비문으로 바꾸어 출제하였다.

또한 각자의 보조동사의 양태적인 의미 때문에 결합이 제약되는 선행 동사가 있다. 예를 들면 ‘내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 선행어와 결합하면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고 ‘버리다’는 상황에 따라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지 못할 때가 있어 선행하는 용언이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면 안 된다. 그러므로 이 보조동사들의 의미를 측정하기 위해서 설정한 선다형 테스트와 통사적인 제약에 초점을 맞춘 진위형 테스트는 서로 대립적으로 양태적 의미나 통사적 제약의 양상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통사적인 제약과 보조동사의 의미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목표 문형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습득 양상도 함께 엿볼 것이다. II 장에서 ‘버리다’, ‘내다’, ‘말다’의 의미 및 통사적 기능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한 가지 양태적 의미에 문항을 2개씩 출제하였고 통사적 관계에서는 하나의 문항을 출제하였다. 구체적인 2차 학습자 습득 양상에 대한 설문조사의 구성은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완료상 보조동사에 대한 중국인 학습자의 습득 양상 조사 구성 예시

문항 유형	목표 문형	의미 기능	문항 예시
----------	----------	----------	-------

번역 테스트	버리다 내다 말다	동작의 완료	<p>4. 小时候不愉快的记忆差不多忘光了。 -어렸을 때의 안 좋았던 기억은 거의 다 잊어버렸어요.</p> <p>6. 她经过了刻苦的努力, 终于获得了学位。 -그녀는 열심히 노력한 끝에 마침내 학위를 받아 냈다.</p>
선다형 테스트 [담화 완성 테스트]	버리다	[아쉬움] [부담 제거]	<p>10. B는 원래 머리가 길어서 예뻐는데 갑자기 머리를 자르고 왔다. A가 물어보았다. A: 너 긴 머리가 예뻐는데 어떻게 된 거니?? B: 아, 그냥 (            ). (자르다) A: 그랬구나. 아쉽네. a. 잘라 냈어 b. 잘라 버렸어 c. 자르고 말았어 d. 잘라 왔어</p>
	내다	[어려움 극복]	<p>다음 주 ‘내가 존경하는 인물’을 소개하는 발표가 있다. 수업 시간에 교사가 학생들에게 존경하는 인물과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게 한다. 이제 B의 차례이다. B: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에디슨입니다. A: 왜요? B: 에디슨은 항상 성공만 한 것이 아니지만 여러 번의 실패 후에 마침내 전기를 (            ). (발명하다) a. 발명해 냈습니다 b. 발명해 버렸습니다 c. 발명하고 말았습니다 d. 발명해 있습니다</p>
	말다	[중지] [아쉬움] [문어]	<p>15. [농민 의보 정책에 대한 신문 기사이다.] 농민들이 전국적인 의료 보험료 납부 거부 운동을 펼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여</p>

			<p>전히 제도는 안 바뀌고 있다. 심지어 국회에서 통합 의보 실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을 통과시켰는데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의료 보험 제도의 개혁은 ( ).(무산되다) 의료 보험 제도의 개혁으로 하루빨리 농민들도 도시인 못지않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p> <p>a. 무산돼 냈다      b. 무산되고 말았다 c. 무산돼 놓았다      d. 무산돼 버렸다</p>
	버리다 말다 내다	<p>교체 사 용 버리다- 말다 [아쉬움]</p>	<p>13. A는 오랫동안 못 만났던 친구B와 식당에서 우연히 만났다. A: 정말 오랜만이다. 여자 친구와 잘 지내? B: (슬픈 표정으로) 아니, ( ). (헤어지다) A: 무슨 일이 있었어? B: 성격이 서로 달라서 자주 싸웠거든. a. 헤어지고 말았어      b. 헤어져 버렸어 c. 헤어져 냈어      d. 헤어져 놓았어</p>
진 위 판단 테 슷	버리다	상태동사 형용사	45. 밥을 못 먹어서 배가 고파 버렸어요.
		동사	20. A는 문을 닫아 버렸다.
		명령형	19. 담배를 끊어 버리세요.
		-겠-	32. 나는 이번 방학엔 살을 빼 버리겠어.
		-시-	35. 선생님께서 청소를 혼자 다 하셔서 버렸어.
		-었-	38. 돈을 다 썼어 버렸어요.
	내다	부정형	41. 네가 먹어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상태동사	34. A는 일 년 사이에 기가 많이 커 냈다.
		동사 [- 의지]	30. 그녀는 친구의 말을 그대로 믿어 냈다.
		동사 [- 긍정]	39. 그 고양이는 사고로 죽어 냈다.
	주어 [무 정]	25. 꽃이 시들어 냈다.	

	말다	형용사	18. 친구의 소식을 듣고 슬프고 말았어요.
		-았-	21. 약속을 어겼고 말았어요.
		-겠-	40.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아요.
		명령형	37. 담배를 끊고 마세요.
		부정	43. 책을 읽고 말지 못했다.
	주어	31. 그녀도 시험에 합격하고 말겠어요.	
	보 조 동 사 의 연속		26. 부장님께서 맡기신 일을 기어이 해내고 말겠어.

다음에는 몇 개의 선다형 테스트 문항을 통해 이 부분의 출제 원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어 버리다’에 관한 예시를 하나 살펴보겠다.

다음 대화를 읽고 ( )에 들어갈 적절한 답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A와 B는 하루 종일 굶었다. 그러나 집에 과자밖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 A는 배가 너무 고파서 B에게 물어보았다.

A: 형, 이 과자 먹어도 돼?

B: 응, 그렇지만 다 ( ) 안 돼. 나도 먹고 싶은데. (떡다)

a. 먹어 내면    b. 먹어 버리면    c. 먹어 놓으면    d. 먹고 말면

본 문항의 답은 b이다. 이 문항은 ‘버리다’가 동작이 완료됨에 따라 나타내는 ‘기대에 어긋남’이라는 양태적인 의미에 대한 학습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이 대화문의 배경 상황을 보면 둘이 배가 고프지만 먹을 수 있는 것이 과자밖에 없으므로 둘 다 이 과자를 먹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A, B 모두 과자를 둘 중 어느 한 명이 다 먹는 것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화자의 이러한 ‘기대에 어긋남’이라는 심리 태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어 버리다’를 쓰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다음으로 보조동사 ‘-어 내다’의 문항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음 대화를 읽고 ( )에 들어갈 적절한 답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지 꼭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결심을 나타낼 수 있는데 ‘내다’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는 양태적인 의미가 지닌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이 대화에서 A가 비록 계획을 꼭 완성하겠다는 결심을 먹었지만 그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힘겹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단지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과 관계없이 강한 의지만 표현할 때 ‘-고 말다’ 구성이 더욱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세 개의 보조동사 사이에는 차이점이 존재하면서도 의미상 유사한 점도 있고 서로 교체 사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서 학습자가 이들을 사용하는 양상이 어떤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항을 개발하였다.

다음 대화를 읽고 ( )에 들어갈 적절한 답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A는 오랫동안 못 만났던 친구B와 식당에서 우연히 만났다.

A: 정말 오랜만이다. 여자 친구와 잘 지내?

B: (슬픈 표정으로) 아니, ( ). (헤어지다)

A: 무슨 일이 있었어?

B: 성격이 서로 달라서 자주 싸웠거든.

- |             |            |
|-------------|------------|
| a. 헤어지고 말았어 | b. 헤어져 버렸어 |
| c. 헤어져 냈어   | d. 헤어져 놓았어 |

앞에 말한 바와 같이 선다형 테스트에 있어 답을 하나만 고르라는 것이 아니다. 이 문형에 답은 a와 b 두 개가 있다. 이는 사건이 끝남에 따라 화자의 아쉬운 마음을 표현할 때 ‘-어 버리다’와 ‘-고 말다’를 교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제시한 문항 예시와 같이 선다형 테스트는 이러한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학습자의 학습 양상 조사에서는 통사적인 제약에 대한 습득 양상을 밝히기 위하여 진위형 판단 테스트를 설정하였다. 이 부분에서 선행어와의 결합 관계에 관한 문제를 출제했을 때 동작류 분류 기준에 따라 각 동작류에 속하는 대표적인 단어 1~2개를 골라 문장을 만들었다. 즉, 설정한 선행어는 주로 상태동사, 동작동사 등 다양한 분류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완료상 보조동사의 통사적인 제약에 대한 설문지 예시

완료상 보조동사	문장	번 호
-어 버리다 -어 내다 -고 말다	A는 일 년 사이에 키가 많이 <u>키</u> 버렸다.	16
	A는 영화를 보고 슬퍼서 <u>울어</u> 버렸다.	17
	A는 문을 <u>닫아</u> 버렸다.	20
	그녀는 혼자서 멋진 집을 만들어 <u>냈다</u> .	42
	그 강아지는 사고로 <u>죽어</u> 버렸다.	33
	A는 중간 시험에서 B를 <u>이겨</u> 버렸다.	27
	그녀는 친구의 말을 그대로 <u>믿어</u> 냈다.	30

학습자의 인식 및 학습 양상 조사에 뒤이어 3차적으로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수·학습 실태 조사도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학습자들이 받고 있는 중국 내 대학 한국어교육에서 보조동사의 교수·학습 실태 및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설정한 것이다. 교육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행위’로 규정될 수 있어 교사, 학습자와 교재는 언어 교육의 3대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목표 문형의 학습 양상에 대해서 파악하기에 앞서 언어 교육의 3대 요소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 및 인식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표 아래서 학습자 교수·학습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의 대상자는 중국인 학습자만이다. 조사는 총 8개의 단답형 문제들로 구성되었고 주로 학습자의 학습 방식, 교사의 교수 방식, 교재 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특히 학습자가 평소에 사용하는 교재에 대한 태도를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 학습자가 배운 지 오래되어 교재의 예문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연구자는 먼저 교재에서 추출한 예문을 그대로 제시하고 난 후 질문을 던졌다. 교재의 예문이 2차 학습 양상 조사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교수 학습 실태 조사는 3차로 실시하였다.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중국 국내 대학교에서 완료상 보조동사의 교육의 교수·학습 활동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서 학습자가 느끼는 어려움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구체적인 조사의 문항은 다음과 같다.

<표 10>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교육 실태 조사의 구성 예시

문항 유형	문항 예시
단답형	<p>2. 수업에 교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 문형들을 가르칩니까?</p> <p>4. 교재에 제시한 완료상 보조동사에 대한 뜻풀이와 예문을 보고 교재에서 실린 예문이 보조동사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지 평가해 주십시오.</p> <p>예 1(예) : -어 버리다 表示彻底完了的意思 그 일을 벌써 다 끝내 버렸어요?</p> <p>예 2 : -고 말다 表示动作的最终完成, 相当于汉语的“最终...” 말았던 일을 어제 다 끝내고 말았다.</p> <p>예 3 : -어 내다 用于他动词后, 表示该动作做到底, 最后得到某种结果 직원들이 모두 힘을 합해서 어려움을 이겨 낸 결과겠지요. 도움이 전혀 안 된다</p> <p>1                      2                      3                      4                      5</p>

그러나 학습자 인식 양상조사 및 학습자 습득 양상 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학습자가 자주 범하는 오류의 유형뿐인데 이것만으로는 왜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는지, 즉 오류의 원인을 밝히기는 어렵다. 특히 문법성 판단 테스트의 답은 단지 ‘맞다’, ‘틀리다’ 뿐이고 학습자가 어떤 문장이 왜 틀리다고 생각하는지 파악할 수 없으므로 사후 인터뷰를 실시하여 조사 참여자와 면대면 대화나 메일을 통해 학습자의 더 생각을 심층적으로 알아보았다. 인터뷰는 주로 학습자의 모국어인 중국어로 진행되었는데 인터뷰에서 행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표 11> 사후 인터뷰 질문 예시

<p>1. 你平時會經常使用這些語法點嗎? 會在什麼情況下使用? 你知道他們的含義嗎?</p>
---------------------------------------------------------

-평소에 ‘버리다’, ‘내다’, ‘말다’와 같은 보조동사들을 자주 쓰나요?

-보통 어떻게 써요?

-이들의 의미에 대해서 잘 알아요?

2. 這個題目你為什麼覺得應該選擇-버리다呢?

你為什麼認為這句話時錯誤的呢?

你覺得正確的表達方式應該是怎樣的呢?

-이 질문에 왜 이 답을(‘버리다’를) 선택했어요?

-왜 이 문장이 틀린다고 생각해요?

-정확한 문장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3. 你有學習過關於的用法嗎?

是通過怎樣的方式學習或了解的呢?

‘-버리다’의 용법에 대해서 배워 본 적이 있어요?

## 2. 조사 결과 분석

이 절에서는 세 차례의 조사의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학습자 인식 양상 조사와 교육 실태 조사는 주로 단답형 조사인데 각 답안의 빈도를 제시하고 학습자의 실제적인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학습자 습득 양상 조사 결과를 정리할 때 단지 빈도나 비율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집단 간, 집단 내 그리고 보조동사별 각 요소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독립표본 t검정도 함께 실시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분석하고 나서 조사 결과를 통해 중국인 고급 학습자에게 나타나는 한국어 완료상 보조동사의 학습 양상 및 오류의 유형을 밝히고자 한다. 우선 중국인 학습자의 인식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 2.1. 완료상 보조동사의 인식 양상 및 분석

중국인 학습자가 평소에 한국어를 할 때 가지고 있는 완료상 보조동사의 사용에 대한 인식 양상을 1차 설문 조사와 사후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보았다. 우선 중국인 학습자가 평소에 보조동사 ‘버리다’, ‘내다’, ‘말다’를 사용하는 빈도에 대

한 조사 결과이다.

<표 12> 완료상 보조동사 사용 빈도 조사

사용 빈도	1-써 본 적 없음	2	3-보통	4	5 - 자 주 씀
버리다	6.4	66.1	16.1	8.1	3.2
내다	14.5	72.6	6.4	4.8	1.6
말다	43.5	53.2	3.2	0	0

위 <표 12>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인 학습자들이 평소에 완료상 보조동사를 잘 안 쓴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보조동사로서의 ‘말다’에 대해 95%의 조사 참여자가 써본 적이 없거나 거의 써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피험자와의 사후 인터뷰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가 주로 ‘잊어버리다’와 ‘해내다’ 식으로 ‘버리다’와 ‘내다’를 많이 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전체적인 수치를 보면 대부분 학습자가 이 세 가지의 보조동사들을 생산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표 13> 완료상 보조동사의 습득 인식 조사

질문	각 보조동사의 의미 및 용법에 대한 잘 압니까?				
인지도	1- 전혀 모른다	2	3-보통	4	5 - 매 우 그렇다
버리다	0	37.1	40.3	14.5	8.1
내다	1.6	9.7	62.9	21	4.8
말다	4.8	33.9	37.1	19.4	4.8

다음에는 완료상 보조동사에 대한 학습 숙달도 인식 조사의 결과이다. 이 조사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완료상 보조동사 ‘버리다’, ‘내다’, ‘말다’의 의미와 용법을 얼마나 잘 습득하는지를 스스로 평가하게 하는 것이다.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보조동사 ‘버리다’와 ‘내다’에 대하여 잘 습득했다고 생각하는 학습자가 많은 편이다. 특히 ‘내다’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보통’ 이상이라고 답한 조사 참여자는 약 90%에 달했다. 그러나 전체적인 수치를 보면 ‘버리다’와 ‘말다’의 의미를 잘 모른다고 답한 학습자들이 각자 30%를 넘었다. 이는 같은 4학년 학습자라도 학습자 개인별로 학습 수준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같은 문형에 대

한 인식이 다양하게 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학습자들이 이 3가지의 문형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어 이들의 의미와 기능을 다소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습자 인식 양상 조사에 마지막 질문은 보조동사로서의 ‘버리다’, ‘내다’와 ‘말다’ 각자의 의미를 쓰게 하는 것이다. 단어별로 대답은 다음과 같다.

<표 14> 보조동사 ‘버리다’의 의미 인식 조사

의미	빈도
동작의 완료	61
부정적인 의미 지님	22
어떠한 정서가 담김	2
어떤 일을 완성해서 마음이 편해짐	5
화자의 심리 태도가 표현됨	3
동작이 끝난 뒤에 지속되는 모습 강조	1
동작이 완료됨에 따라 그 결과를 변할 수 없음	1

<표 15> 보조동사 ‘내다’의 의미 인식 조사

의미	빈도
어떤 일을 완성함	59
어떤 일을 완성하여 목표를 달성함	46
어려움을 극복하여 성취함	23
노력을 통해 성취함	20
모름	1

<표 16> 보조동사 ‘말다’의 의미 인식 조사

의미	빈도
동작의 완료/ 어떤 일이 끝났음	57
어떤 사실을 진술함	1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옴/ 자신의 의지나 기대에 어긋남	6
결심	11
부정적인 의미	3
의미를 모름	3

위 <표 14>~<표 16>에서 볼 수 있듯이 조사 결과에 따라 대부분 학습자는 보조동사 ‘버리다’, ‘내다’와 ‘말다’의 완료라는 기본적인 상적 의미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단어별로 학습자의 구체적인 인식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거의 모든 피험자는 ‘버리다’가 동작의 완료라는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양태적인 의미에 대한 인식이 아주 부족했다. 22 명의 학습자는 ‘버리다’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답했는데 구체적으로 이 부정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했다. 두 명의 학습자는 ‘버리다’가 화자의 심리 태도를 나타낼 수 있다고 답했으나 그 중에 한 명에게 사후 인터뷰 했을 때 ‘버리다’가 화자의 어떠한 심리 태도를 표현하는지 하는 물음에 이 학습자가 모른다고 답했다. 또한 ‘버리다’는 완료상 보조동사로서 지속이나 유지의 의미를 일반적으로 드러내지 못하나 ‘버리다’는 동작의 지속되는 모습을 강조한다고 답한 학습자도 있고 동작이나 행위가 끝남에 따라 그 결과가 변하지 않고 유지된다는 의미가 있다는 답이 있었다. 조사 결과를 통해 대부분 학습자들이 보조동사 ‘버리다’가 지닌 완료라는 기본적인 상적 의미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그 밖에 다른 의미에 대한 깊은 인식이 아직 없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보조동사 ‘내다’의 의미를 쓰게 하는 질문에서도 역시 대다수의 학습자는 ‘내다’가 동작의 완료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많은 학습자는 ‘내다’가 ‘어려움 극복’, ‘성취’라는 의미를 가지고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였다. 그러나 각 대답의 비율을 보면 거의 모든 학습자는 ‘내다’가 동작의 완료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약 75% 학습자는 ‘내다’의 성취라는 의미를 알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겪은 어려운 과정을 아는 학습자는 30%에 그쳤다. 즉, 중국인 학습자가 ‘내다’의 양태적인 의미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수치는 ‘버리다’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고 말다’의 의미를 써 주십시오.”라는 질문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부분 학습자들이 ‘말다’가 ‘동작의 완료’라고 답했다. ‘버리다’와 ‘내다’의 경우와 같이 이는 학습자가 ‘말다’의 기본적인 상적 의미에 대한 잘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학생들이 ‘말다’가 ‘완료’라는 의미 외에 다른 양태적인 의미, 즉 주어나 화자의 어떤 심리태도를 나타내는지를 모른다. ‘말다’는 어떠한 부정적인 의미, 특히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답한 학

습자도 있긴 하지만 많지 않았다. 심지어 배운 적이 있지만 의미가 뭔지 모른다고 답한 학습자도 있다. 이에 따라 학습자들이 ‘말다’의 의미에 대한 인식이 아주 부족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의 원인은 교육 과정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뜻밖에 ‘말다’가 ‘화자의 강한 의지’나 ‘결심’이라는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고 답한 학습자는 11명이 있고 전체 실험 집단의 인원수의 17.7%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 11명 학습자 중에 9명이 북경어언대 학생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이 9명 중의 2명과 사후 인터뷰를 했는데 이들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말다’는 화자의 결심을 나타낼 수 있다고 설명해 주시고 ‘-고 말겠다’ 구성에 대한 연습도 많이 시켜 주셨어요.”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언어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중국의 한국어교육에서 학습자가 어떤 문형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교사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학습자의 습득 인식 조사의 결과와 의미 인식 조사의 결과를 정리하여 비교해보면 약 60%의 학습자가 보조동사 ‘버리다’와 ‘말다’의 의미에 대한 습득 정도는 보통 이상이라고 답했으나 ‘버리다’와 ‘말다’의 다양한 양태적인 의미를 다소 알고 있는 학습자는 30%에 불과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많은 학습자들이 완료상 보조동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신의 학습 양상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판단도 함께 내릴 수 있다.

## 2.2. 완료상 보조동사의 습득 양상 및 분석

여기에서는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완료상 보조동사의 사용에서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어떤 오류를 자주 범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SPSS 23.0 프로그램을 통해서 중국인 학습자 집단과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였다. 즉,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두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학습자의 습득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담화 완성 테스트 문형 9개와 문법성 판단 테스트 30개 합쳐 총 39개의 문형을 설정하였다. 조사 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 문형씩 1점으로 각 조사 참여자의 답안을 채점하였다. 모든 조사 대상자의 점수를 정리하여 두 집단의 수치를 통계적으로 비교하였다. 전체적인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7> 한국어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의 완료상 보조동사 습득 양상 통계

측정 요소	측정 요소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F값	유의 확률
전체	한국인	43	35.05	1.77	8.054	.000*
	중국인	62	23.21	2.74		
양태적 의미	한국인	43	7.91	1.04	7.281	.000*
	중국인	62	3.76	1.54		
통사적 제약	한국인	43	27.14	1.36	9.050	.000*
	중국인	62	19.45	2.31		

\* $p < 0.5$

<표 1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먼저 모든 테스트 문형에 중국인 학습자는 한국어 모어화자와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총 36개 문형에 대한 중국인 학습자의 평균 점수는 23.21이고 한국인 모어 화자는 35.05이며 두 집단의 유의확률은 .000으로 유의 수준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조동사의 양태 의미와 통사적인 제약에 대한 유형별로 두 집단의 답안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다시 검정하였다. 분석 결과는 완료상 보조동사 양태의미와 통사적 제약에 대한 습득에서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모어화자와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단어별로 두 집단의 설문조사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표 18> 한국인과 중국인 학습자의 완료상 보조동사별 조사 결과 비교

측정 문형	집단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F값	유의 확률
버리다	한국인	43	14.02	1.26	5.404	.000*
	중국인	62	9.42	1.81		
내다	한국인	43	8.91	.29	47.603	.000*
	중국인	62	5.18	1.50		
말다	한국인	43	12.12	1.31	2.84	.000*
	중국인	62	8.39	1.51		

\* $p < 0.5$

보조동사별 한국인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의 사용 양상을 비교해 보면 모든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버리다’의 경우 한국인 모어 화자의 평균 점수는 14.02, 중국인 학습자는 9.42이고 유의확률은 .000으로 유의 수준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다’와 ‘말다’의 경우에도 두 집단이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에서 제시한 두 가지의 통계 결과를 종합하면 한국어 완료상 보조동사의 사용에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인 모어화자와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검정하였다.

다음으로는 중국인 학습자 집단 내부에서 한국어 완료상 보조동사를 습득 양상이 단어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세 보조동사 중에 두 개씩 짝을 지어 조사 결과를 유의수준 .05에서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 결과는 전체적인 습득 양상, 양태적인 의미와 통사적인 제약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정리하였다. 구체적인 통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9> 중국인 학습자의 완료상 보조동사별 조사 결과 비교

측정 요소	측정 문형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F값	유의 확률
전체	버리다	62	0.57	.12	6.969	.007*
	내다	62	0.64	.16		
	버리다	62	0.57	.12	.810	.000*
	말다	62	0.65	.12		
양태적 의미	내다	62	0.64	.16	4.238	.720
	말다	62	0.65	.12		
	버리다	62	0.45	.26	1.750	.090
	내다	62	0.54	.34		
통사적 제약	버리다	62	0.45	.26	3.760	.942
	말다	62	0.44	.35		
통사적 제약	내다	62	0.54	.34	.239	.123
	말다	62	0.44	.35		
통사적 제약	버리다	62	0.61	.13	3.753	.046*
	내다	62	0.66	.17		

	버리다	62	0.61	.13	.008	.002*
	말다	62	0.68	.12		
	내다	62	0.61	.16	4.235	.489
	말다	62	0.68	.12		

\* $p < 0.5$

<표 19>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인 학습자의 완료상 보조동사 ‘버리다’, ‘내다’와 ‘말다’의 습득 양상에서 이 세 문형의 양태적 의미에 대한 습득 양상이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인 학습자들이 완료상 보조동사의 의미를 학습할 때 어느 것의 의미는 다른 것보다 더 잘 습득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세 문형의 양태적인 의미에 대한 인식이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완료상 보조동사의 통사적인 제약의 습득에서 버리다와 내다, 그리고 버리다와 말다에 있어 유의확률이 각자 .046과 .002로 나타나므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중국인 학습자가 ‘버리다’의 통사적인 제약에 대한 습득 양상이 다른 두 문형과 큰 차이가 나고 ‘버리다’보다 ‘내다’와 ‘말다’의 통사적인 제약에 대한 더 잘 습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전체적인 통계 수치를 살펴보면 역시 내다와 말다의 비교에 유의 확률이 .720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판단을 내리기 어렵고 ‘내다’와 ‘말다’는 각각 ‘버리다’와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버리다’는 이 세 완료상 보조동사 중에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황에서 다양한 양태적인 의미를 나타낼 수 있으니 학습자에게 많은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앞에 학습자 인식 양상 조사 결과를 통해 대부분 중국인 학습자가 보조동사 ‘버리다’의 다양한 양태 의미에 대한 인식이 아주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버리다’의 습득 양상이 다른 두 보조동사의 습득 양상과 차이가 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중국인 학습자가 보조동사 ‘내다’와 ‘말다’를 잘 습득했다는 증거가 된 것이 아니고 앞에 확인한 바와 같이 완료상 보조동사의 사용에서 중국인 학습자가 역시 한국인 모어 화자와 큰 차이를 보인다. 다음으로는 중국인 학습자가 완료상 보조동사의 구체적인 습득 양상과 오류 양상을 살펴보도록 한다.

### 2.2.1. 보조동사 ‘버리다’의 습득 양상

### 2.2.1.1. 중국어 대응 표현 고찰

보조동사 ‘버리다’의 기능을 모두 고려하여 개발한 문항은 총 17개이다. 우선 ‘버리다’에 대한 2개의 번역 문제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0> 보조동사 ‘버리다’의 대응 표현 조사

테스트	동사+ ‘-어 버리다’	동사+ 과거형
4. 小時候的不愉快的記憶差不多忘光了 (어렸을 때의 안 좋았던 기억은 거의 다 잊어 버렸어요.)	잊어버렸다 - 100%	잊었다 - 0
5. 來韓國留學不長時間, 錢都花光了 (한국에 유학 온 지 얼마 안 되지만 돈을 다 써 버렸어요.)	써 버렸다 - 88.7%	썼다 - 11.3%

이 두 질문에 답을 보면 대부분 학습자들이 보조동사를 잘 쓴다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에 2장에서 한국어 완료상 보조동사와 중국어의 대응 표현에 대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어의 결과보어인 ‘光’은 한국어의 완료상 보조동사인 ‘버리다’와 잘 대응한다. 따라서 실제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많은 교사들이 이러한 대응 관계를 통해 ‘-어 버리다’의 의미를 해석해 준다. 그러므로 학습자들이 이러한 결과보어를 볼 때 자연스럽게 이와 대응하는 한국어의 보조동사가 머릿속에 떠오른다. 특히 ‘잊어버리다’라는 표현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쓰이는 말이므로 대부분 학습자들이 이 표현의 의미를 잘 알고 있고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러나 사후 인터뷰에서 이러한 현상의 원인에 대한 다른 해석도 나왔다.

연구자: 질문 4번과 5번에는 중국어 원문에서 모두 다 “忘光”, “花光”과 같은 ‘동사+ 결과보어’식으로 쓰여 있잖아요. 근데 왜 4번 질문에 ‘잊어버렸다’를 썼는데 5번에 ‘썼다’만 썼어요?

L5: ‘잊어버리다’는 한 단어로 자주 쓰죠. 그래서 뭔가를 완전히 잊었다고 말하려면 자연스럽게 ‘잊어버리다’ 그 한 단어 전체가 나왔어요. 그런데 다른 동사를 쓸 때 이러한 느낌이 없고 그냥 과거만 표현할 수 있는 ‘썼다’를 쓰고 그리고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부사어 ‘다’를 썼어요.

위에 사후 인터뷰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학습자들이 ‘잊어버리다’라는 표현에 대한 노출 빈도가 높아서 이 표현을 잘 쓸 수 있는 반면 다른 ‘본동사+버리다’ 구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또한 정도를 표현할 때 어떤 결과를 강조하기 위하여 부사어만 쓰면 된다는 학습자의 생각도 엿보일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학습자의 답안을 정리해 보면 대부분 학생들이 ‘버리다’와 중국어의 결과보어의 대응 관계를 잘 알고 있고 중국어의 결과보어는 ‘버리다’의 의미 이해 및 사용에 있어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 2.2.1.2. 양태적인 의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조동사 ‘버리다’를 사용할 때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모어 화자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다음으로는 보조동사 ‘버리다’에 대한 중국인 학습자의 구체적인 학습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21> 보조동사 ‘버리다’의 양태 의미 습득 조사

측정 의미	번 호	테스트 문형	집단별 정답률 대답 상황		
			선택	CL (%)	KN(%)
아쉬움; 아까움; 기대에 어긋남	7	B: 응, 그렇지만 다 ( ) 안 돼. 나도 먹고 싶은 데.	먹어 내면	43.5	0
			먹어 버리면	<u>56.5</u>	100
			먹어 놓으면	0	0
			먹고 말면	0	0
	10	B: 그냥 ( ) A: 그랬구나. 아 쉽네.	잘라 냈어	11.3	4.7
			잘라 버렸어	<u>45.2</u>	95.3
자르고 말았어			40.3	0	
		잘라 왔어	3.2	0	
시원함; 부담 제 거	12	A: 나 내 비밀 을 다 ( ). 이 제 마음이 편해	말해 버렸어요	<u>41.9</u>	83.7
			말해 냈어요	0	2.3
			말하고 말았어 요	58.1	11.6
			말해 놓았어요	0	2.3
	14	B: 국수? 그대 로 놔두면 상황 까봐 내가 다 ( ).	먹고 말았어	37.1	2.3
			먹어 냈어	25.8	0
			먹어 놓았어	1.6	0
			먹어 버렸어	<u>35.5</u>	97.7

위 표에서 제시한 조사 결과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가 ‘버리다’의 양태적인 의미에 대한 학습 양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중국인 학습자들이 ‘버리다’의 양태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모른다고 할 수 있다. 각 문형 중에 정답률이 가장 높은 것은 질문 7번인데 그 비율은 불과 56.5%이고 나머지 질문에 대한 정답률은 모두 다 50%이하이다. 모어 화자에 비해 큰 차이가 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인 학습자가 보조동사 ‘버리다’의 양태적인 의미에 대한 인식이 아주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10.B는 원래 머리가 길어서 예뻐는데 갑자기 머리를 자르고 왔다. A가 물어보았다.

A: 너 긴 머리가 예뻐는데 어떻게 된 거니??  
 B: 아, 그냥 (        ). (자르다)  
 A: 그랬구나. 아쉽네.

a. 잘라 냈어   b. 잘라 버렸어   c. 자르고 말았어   d. 잘라 왔어

14. 한여름이다. B는 아침을 먹었을 때 남은 국수를 버리려고 했는데 찾지 못했다. A에게 물어 보았다.

A: 언니, 남은 국수는? 나 버리려고 하는데...  
 B: 국수? 그대로 놔두면 상할까봐 내가 다 (    ). (먹다)  
 A: 우와. 잘했어.

a. 먹고 말았어   b. 먹어 냈어   c. 먹어 놓았어   d. 먹어 버렸어

위에 두 질문에 답은 모두 ‘버리다’이다. 그러나 이 두 상황에서 ‘버리다’가 나타내는 화자의 심리적인 태도는 다르다. 문형 10번에는 화자가 원래 예뻐던 머리를 잘라서 기대한 것과 달리 아쉬운 감정이 담겨져 있다. 그러나 14번에는 음식이 상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음식을 먹어 치우는 것이 걱정했던 부담을 제거하므로 ‘먹어 버리다’가 가장 적절하다. 이 두 질문에 정답률은 한국인 모어 화자는 각자 100%와 95%인 반면 중국인 학습자는 단지 45.2%와 35.5% 뿐이

다. 이러한 상황 맥락에 안 맞게 ‘말다’나 ‘내다’를 택한 학습자도 적지 않았다. 그러므로 중국인 학습자가 보조동사 ‘버리다’를 써야 하는 자리에서 다른 보조동사를 쓰는 경우가 많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학습자와 사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사후 인터뷰 중에 대표적인 응답은 다음과 같다.

연구자: 질문 7번에 왜 ‘내다’를 선택했어요?

L4: ‘먹어 내다’는 ‘모두 다 먹었다’는 뜻이죠. 여기서 남은 게 없이 모든 음식을 먹은... 그 정도..를 얘기하고 싶어서 내다를 골랐어요. ‘버리다’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 안 좋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여기서 그런 뜻이 있을까...음 근데 저도 확실히 어느 것이 정답인지 몰랐어요.

연구자: 질문 14번에 왜 ‘-어 내다’를 선택했어요?

L9: ‘내다’는 ‘해내다’처럼 어떤 일을 완수한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음식을 빨리 안 먹으면 상황 수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음식을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먹어 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연구자: ‘버리다’가 부담의 제거라는 뜻이 있는 것을 알아요?

L9: 잘 몰라요.

사후 인터뷰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의 두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버리다’의 다양한 양태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다. 둘째는 보조동사 간의 차이점을 인식하지 못해 혼동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버리다’는 주로 동작이 끝남에 따라 그 결과를 강조하여 화자가 그 결과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아쉬움이나 부담의 제거에서 온 시원함을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질문 11번의 경우 ‘버리다’는 선행 동작이 완료됨에 따라 주어의 부담을 제거하는 의미를 가지는데 이럴 때 문장 뒤에 자주 ‘마음이 편하다’, ‘시원하다’와 같은 표현이 붙어 쓰인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정답률은 42%이고 많은 학습자들이 아직 이러한 의미와 구조에 대하여 익숙해지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학습자가 ‘버리다’의 심층적인 의미를 몰라서 오류를 범하기가 쉽다.

### 2.2.1.3. 통사적인 제약

‘버리다’는 통사적인 제약이 심하지 않지만 존대 선어말어미, 형용사와의 연결 등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많아서 중국인 학습자의 습득 양상을 알아보기 위

해 총 12개의 문형을 설정하였다. 다음으로는 ‘버리다’의 통사적인 제약에 대한 문형별 정답률은 다음과 같다.

<표 22> 보조동사 ‘버리다’의 통사 제약 습득 조사

번호	테스트 문형	측정 요소	집단별 정답률	
			CL(%)	KN(%)
16	A는 일 년 사이에 키가 많이 커 버렸다.	상태동사	16.1	86
17	A는 영화를 보고 슬퍼서 울어 버렸다.	선행동사	67.7	100
19	담배를 끊어 버리세요.	명령형	69.4	95.3
20	A는 문을 닫아 버렸다.	선행동사	74.2	100
24	A는 친구의 말을 그대로 믿어 버렸다.	선행동사	67.7	100
27	A는 중간시험에서 B를 이겨 버렸다.	선행동사	54.8	41.9
32	나는 이번 방학엔 살을 빼 버리 겠어.	-겠-	58.1	86
33	그 강아지는 사고로 죽어 버렸 다.	선행동사	80.6	100
35	선생님께서 청소를 혼자 다 하 셔 버렸다.	-시-	34.8	65.1
38	돈을 다 썼어 버렸어요.	-었-	38.6	81.4
41	네가 먹어 버리지 않으면 안 된 다.	부정형	62.9	86
45	밥을 못 먹어서 배가 고파 버렸 어요.	형용사	91.9	83.7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인 보조동사 ‘버리다’가 포함된 문항에 대한 정답률은 전체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조동사 ‘버리다’의 통사적인 제약에 대한 중국인 학습자의 평균 정답률은 불과 51%인데 한국인 모어화자와 큰 차이가 나타났다. 그 중에 ‘버리다’의 선행동사로서의 ‘올다, 닫다, 믿다, 죽다’와 결합 관계에 대한 정답률은 비교적 높은 편이고 대개 70%~80%이다. 이는 ‘버리다’가 선행동사와의 결합 관계에서 제약이 약하므로 대부분 동사와의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형용사나 상태 동사와의 결합

관계에서 ‘버리다’는 약간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즉, ‘버리다’는 상태 동사나 형용사와 잘 결합하지 않지만 변화의 자질을 가진 상태 동사인 ‘크다’, ‘밝다’ 등 일부 상태 동사와의 결합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다. 90% 이상인 학습자들이 ‘버리다’의 선행어에 형용사인 ‘고프다’가 올 수 없다는 답을 골랐는데 선행어가 ‘크다’인 경우에 역시 약 85%의 학습자가 ‘키가 많이 커 버렸다’라는 문장이 비문이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존대 선어말어미 ‘-시-’는 일반적으로 선행동사가 아닌 ‘버리다’와 결합하는 점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도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선생님께서 청소를 혼자 다 하셔서 버렸어’라는 문장에 대한 정답률은 34.8%로 전체 질문 중에 가장 낮게 나타났다. 존대 선어말어미 ‘-시-’는 일반적으로 보조동사 뒤에만 붙어 쓰일 수 있다는 점을 학습자들이 유의해야 한다.

모든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버리다’의 의미 및 통사적인 제약에 대한 정답률이 높지 않았으며 이는 학습자가 ‘버리다’의 의미 기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습득하지 못한다는 증거로 보인다. 그러나 앞에 ‘크다’와 ‘아프다’가 포함된 두 문장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둘이 분명하게 형용사인데 ‘버리다’와의 결합에 있어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을 학습자가 잘 습득하지 못하는데 학습자의 구체적인 오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후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자: 왜 ‘키가 커 버렸다’라는 문장이 비문이라고 생각해요?

L6: ‘크다’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버리다’가 동사와 함께 써야 하고 형용사와 함께 쓸 수 없어요. ‘커지다’로 바뀌어야 해요.

연구자: 만약에 질문 35번처럼 보조동사 ‘버리다’가 쓰인 문장을 높이려면 존댓말로 바꾸려면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 알아요? 그리고 다른 선어말어미, 예를 들어 과거시제 ‘-았-’이나 미래시제 ‘-겠-’을 이 문장에 어디로 삽입해야 하는지 알아요?

L6: 정확히 모르겠지만 ‘잊어버렸다’처럼 아마 시제 어미는 ‘버리다’에 붙어서 써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시-’는 주어를 높이기 위해 본동사와 함께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연구자: 수업 시간에 이런 결합 관계에 대한 배워 본 적이 있나요?

L6: 아니요. 의미는 대충 알지만 자세히 어떻게 쓰는지 잘 몰라요.

사후 인터뷰를 통해 학습자가 ‘크다’와 ‘고프다’의 품사적인 차이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크다’ 뿐만 아니라 많은 형용사들이 형용사의 의미만 지닌 것이 아니라 동사로서 쓰일 수도 있다. 또한 중국인 학습자들이 다른 선어말 어미나 선행 동사와 결합 관계에 대한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많은 학습자들이 의미뿐만 아니라 어떠한 고정적인 규칙을 잘 모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이런 규칙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2.2.2. 보조동사 ‘내다’의 습득 양상

### 2.2.2.1. 중국어 대응 표현 고찰

보조동사 ‘내다’의 모든 기능을 포함한 문항이 총 11개 있다. 우선 ‘내다’에 대한 2개의 번역 문제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3> 보조동사 ‘내다’의 대응 표현 조사

테스트	‘-어 내다’(%)	다른 형식(%)
3. 為了實現目標，有再大的困難我也會忍受。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아 내야 한다.)	버텨 냈- 1.6 참아 냈- 11.3	참다 - 83.9 극복하다 - 3.2
6. 她經過了刻苦的努力，終於獲得了學位。 (그녀는 열심히 노력한 끝에 마침내 학위를 받아 냈다.)	0	받았다 - 90.3 따고 말았다 - 9.7 드디어 - 75.8 결국 - 19.4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보조동사 ‘내다’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많은 중국인 학습자들이 ‘내다’의 ‘어려움 극복’이나 ‘성취’라는 의미를 잘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실제적인 사용에서 자연스럽게 ‘내다’ 구문을 생산해 내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번역 질문에서 4번의 경우 ‘내다’를 쓴 학습자는 13%뿐이고 5번에는 모든 피험자가 ‘내다’를 안 쓰고 동사의 과거형만 썼다. 또한 많은 학습자들이 부사어 ‘드디어’나 ‘결국’을 주로 사용하여 번역문을 만들었다.

연구자: 질문 3번에 왜 ‘버텨 낼 것이다’라는 식으로 번역했어요?

L3: ‘내다’는 노력을 통해서 무엇을 해낸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버티다’를 쓰는 것보다 ‘내다’를 붙으면 그 어려운 과정을 더 드러낼 수 있어요.

연구자: 그러면 6번에 왜 ‘내다’를 안 쓰고 ‘-고 말다’를 썼어요?

L3: 사실 저도 좀 헷갈려요. 둘에 차이가 무엇인지... 근데 교재에서 이렇게 ‘말다’는 “終於”의 뜻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終於”와 대응하기 위해서 ‘결국 받고 말았다’ 썼어요.

연구자: 평소에 주로 어떤 식으로 보조동사 ‘내다’를 써요?

L10: 평소에는 ‘내다’를 거의 안 써요. 쓸 때는 ‘해내다’를 많이 써요. 무엇을 해결하다 그런 의미로 쓰는 거예요. 다른 상황에서 ‘내다’를 거의 안 써요.

사후 인터뷰 및 조사의 결과를 종합하면 중국인 학습자가 완료상 보조동사인 ‘내다’를 쓸 때 모국어의 영향을 받아 상황에 안 맞게 다른 용어를 쓰는 경우가 있고 ‘내다’와 다른 보조동사의 의미 차이를 구별하지 못해 혼동하여 쓰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동작의 끝남을 강조하기 위해 또한 화자의 어떠한 심리태도를 표현하려고 할 때 중국인들이 항상 부사어로 이러한 감정이나 강조 의미를 표현하므로 한국어의 보조동사로 자연스럽게 화자의 심리 태도를 나타낼 수 있는 경우에 보조동사를 쓰지 않고 부사어만 쓰는 경우가 많다. 비록 문장이 비문이 되는 것이 아니겠으나 이러한 모국어의 영향은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완료상 보조동사의 학습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학습자가 보조동사 ‘내다’에 대한 인식이 가장 분명한 것은 ‘해내다’이다. 무엇을 달성하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에는 ‘해내다’를 자연스럽게 쓰게 되지만 다른 경우에는 보조동사 ‘내다’의 사용 빈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내다’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2.2.2.2. 양태적인 의미

‘내다’는 완료라는 상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주로 어떤 목표에 이루거나 어려움을 극복하여 성취하는 뜻이다. 이러한 양태적인 의미에 대한 문형은 총 2개 있고 이 둘 문형에 있어 중국인 학습자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4> 보조동사 ‘내다’의 양태 의미 습득 조사

측정	번	테스트 문형	집단별 정답률 대담 상황
----	---	--------	---------------

의미	호		선택	CL (%)	KN (%)
어려움 극복 ; 성취	8	B: 매일 사장님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해서 마침내 ( ) ).	받아 버렸어	12.9	0
			받아 갔어	9.7	2.3
			받고 말았어	16.1	7
			받아 냈어	<u>61.3</u>	90.7
	11	B: 에디슨은 항상 성공만 한 것이 아니지만 여러 번 의 실패 후에 마 침내 전기를 ( )	발명해 냈습니다	<u>46.8</u>	100
			발명해 버렸습니다	1.6	0
			발명하고 말았습니다	51.6	0
			발명해 있습니다	0	0

위 표에서 본 바와 같이 보조동사 ‘내다’의 양태적인 의미를 측정하는 문항의 정답률은 각각 61.3%와 46.8%이다. 조사 결과에 근거해 중국인 학습자가 보조동사 ‘내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다른 보조동사와 구별하여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8.B가 첫 월급을 받아 친한 친구 A에게 전화를 걸었다.  
 B: 나 첫 월급을 받았어.  
 A: 진짜? 그 사장 월급은 제대로 안 주는 편이라고 들었는데 네가 어떻게 돈을 받았어?  
 B: 매일 사장님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해서 마침내 (            ). (받다)

a. 받아 버렸어   b. 받아 갔어   c. 받고 말았어   d. 받아 냈어

14.다음 주 ‘내가 존경하는 인물’을 소개하는 발표가 있다. 수업 시간에 교사가 학생들에게 존경하는 인물과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게 한다. 이제 B의 차례이다.  
 B: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에디슨입니다.  
 A: 왜요?  
 B: 에디슨은 항상 성공만 한 것이 아니지만 여러 번의 실패 후에 마침내 전기

를 ( )

- a. 발명해 냈습니다.
- b. 발명해 버렸습니다.
- c. 발명하고 말았습니다.
- d. 발명해 있습니다.

문항 8번과 11번의 대화 상황을 보면 괄호에 들어가야 할 것은 힘겹게 노력한 끝에 어떤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뜻을 가져야 한다. 월급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에 결국 월급을 받게 되거나 수 천 번에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전기를 발명한 것에 대한 문장 주어의 성취감을 표현할 수 있도록 보조동사 ‘내다’의 사용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내다’를 택한 학습자는 전체의 학습자의 반 정도였고 11번 질문에서 ‘내다’를 택한 학습자보다 ‘말다’를 고른 학습자가 더 많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학습자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자: 질문 11번에 왜 ‘말다’를 선택했어요?

L4: ‘-고 말다’는 객관적으로 어떤 사건이 끝남을 진술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약간 고급스럽고 공식적인 발표나 회의 뉴스에서 자주 쓰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에디슨은 전기를 발명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고 발표문이기도 하고 ‘-고 말다’는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연구자: 그러면 다른 답이 왜 틀린다고 생각해요?

L9: 다른 것들이 문어에서 자주 쓰는 말이고 이 상황에 잘 맞는 것 같아요. ‘내다’는 노력을 통해서 어떤 일을 완성하는 말이에요...이제 보면 뜻이 잘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 답을 섞어서 뜻을 약간 헷갈린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 생각엔 여기서 “终于”의 의미를 드러낼 수 있는 ‘고 말다’가 가장 맞는 답이에요.

사후 인터뷰를 통해 학습자들이 ‘내다’의 의미를 특히 ‘어려움 극복’이라는 뜻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있는 그 표현에 대한 정보를 실제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단어의 뜻을 알고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 자주 쓰는지 모르고 의미상 비슷한 표현과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 아주 부족한 것이다. 이는 연습이나 목표어에 빈번하게 노출된다면 자연스럽게 그 표현들에 익숙해지고 상황에 맞게 쓰는 능력이 생기나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능력을 기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교육과정으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 2.2.2.3. 통사적인 제약

‘내다’의 통사적인 제약에 대한 조사의 문항별 정답률은 다음과 같다.

<표 25> 보조동사 ‘내다’의 통사 제약 습득 조사

번호	테스트 문항	측정 요소	집단별 정답률	
			CL(%)	KN(%)
23	A는 책을 읽고 슬퍼서 울어 냐다.	선행동사	64.5	100
25	꽃이 시들어 냐다.	선행동사	66.1	100
29	그녀는 예뻐 냐다.	형용사	67.7	100
30	그녀는 친구의 말을 그대로 믿어 냐다.	선행동사	53.2	100
34	A는 일 년 사이에 키가 많이 커 냐다.	상태 동사	35.5	100
39	그 고양이는 사고로 죽어 냐다.	선행동사	80.6	100
42	그녀는 혼자서 멋진 집을 만들어 냐다.	선행동사	96.8	100

위 표에서 본 바와 같이 ‘내다’의 통사적인 특징에 대한 정답률은 평균 66%이고 전체적으로 ‘버리다’보다 높게 나타났다. ‘내다’는 ‘버리다’와 ‘말다’와 달리 선행어에 대한 제약이 심하므로 ‘내다’의 통사적인 제약에 대한 판단 문항은 주로 선행동사에 대한 고찰이다. ‘내다’는 주로 화자의 ‘어려움 극복’이나 ‘의지’의 의미 자질을 가지므로 ‘내다’의 선행동사에 ‘죽다’와 같은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 동사나 ‘닫다’나 ‘믿다’와 같이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지 않는 동사들이 오는 것이 부자연스럽다. 선행동사 ‘죽다’인 경우 80% 학습자들이 이 문장이 비문이라고 생각했지만 나머지 문항에서 학습자의 정답률은 약 60%에 그쳤다. 이 문제는 단순히 통사적인 제약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이 부족한 데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다’의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해 ‘내다’와 자연스럽게 결합될 수 있는 선행어에 대해서도 잘 습득하지 못한 결과이다. 다시 말하자면 단지 통사적인 제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다’의 양태적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이러한 결합관계에 있어 오류가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동사로서의 ‘크다’와 결합 제약에 있어 정답률은 역시 35.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여

기서 ‘크다’가 동사임에도 불구하고 ‘버리다’와의 결합 관계와 달리 ‘내다’와 결합에 제약된다. ‘크다’는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의미를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연구자: 왜 ‘키가 커 났다’라는 문장이 맞다고 생각해요?  
 L8: ‘내다’는 어떤 목표를 이룬다는 뜻이 있잖아요. 긍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문장에서 만약에 이 사람이 키가 크고 싶어 하면 이 목표를 완성하면 ‘키가 커 났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연구자: 그러면 왜 ‘예뻐 났다’는 틀린다고 생각해요?  
 L8: ‘예뻐지다’라고 말해야죠. ‘예쁘다’는 ‘크다’와 달리 동사가 아니고 형용사이다. 그래서 동사로 바꿔 써야 돼요.

보조동사 ‘내다’에 대한 학습자의 습득 양상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대부분 학습자가 ‘내다’에 ‘어려움 극복하여 목표 달성함’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실제적인 발화나 상황에서 ‘해 내다’를 제외한 ‘내다’의 다른 용법을 모른다. 통사적으로 결합이 가능한 용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결합에 제약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 모자라고 부정적이지 않은 용언이라면 모두 다 결합이 가능하다고 답한 학습자가 있으므로 ‘내다’에 대한 학습이 한층 더 깊은 수준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

### 2.2.3. 보조동사 ‘말다’의 습득 양상

#### 2.2.3.1. 중국어 대응 표현 고찰

보조동사 ‘말다’의 모든 기능을 포함된 문항이 총 16개 있다. 우선 ‘내다’에 대한 2개의 번역 문제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6> 보조동사 ‘말다’의 대응 표현 조사

테스트	‘-어 내다’(%)	다른 형식(%)
3. 他終於離開了。 (그는 끝내 떠나고 말았다.)	0	가/떠나 버렸다 과거형-21
6. 結果什麼也沒得到。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말았다.)	0	과거형-100

중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를 살펴보면 ‘말다’를 설명할 때 자주 중국어의 부사어인 ‘終於<sup>11)</sup>’와 대응시켜 제시한다. 그러나 번역 문제를 통해 보면 대부분 학습자들이 이러한 ‘終於’가 포함된 중국어의 문장을 봐도 자연스럽게 한국어의 대응 표현인 ‘-고 말다’를 떠올리지 않는다. 물론 상황에 따라 ‘말다’와 ‘버리다’는 서로 대치하여 사용할 수도 있는데 수집한 답안지에 ‘-고 말다’를 사용하여 번역문을 만든 학습자가 하나도 없는 것은 대부분 학습자가 교재에서 나온 내용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발화하지 못하는 점에 증거가 되기도 한다.

### 2.2.3.2. 양태적인 의미

‘말다’는 ‘야’를 붙여 ‘-고야 말다’의 구성으로 자주 쓰이기도 어떤 일이 결국 일어났음을 나타내는데 주로 말하는 사람이 원하지 않거나 기대하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낸다. 이럴 때는 대부분 경우엔 ‘-어 버리다’와 교체 사용이 가능하나 ‘말다’는 ‘버리다’보다 문어적 특징이 더욱 두드러진다. 또한 ‘-고 말다’는 ‘-겠-’이 붙이면 화자의 강한 의지를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양태적인 의미에 대한 문형은 총 3 개 있고 이들에 대한 중국인 학습자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7> 보조동사 ‘말다’의 양태 의미 습득 조사

측정 의미	번 호	테스트 문형	집단별 정답률 대담 상황		
			선택	CL (%)	KN(%)
의지	9	B: 세운 계획은 꼭 ( )	이루어 버리겠다	0	0
			이루어 가겠다	19.4	0
			이루고야 말겠다	59.7	86
			이루어 내겠다	16.1	2.3
			이루고야 말겠다	4.8	11.6
아쉬움 (문어)	15	의료 보험 제도 의 개혁은 ( )	무산돼 냈다	14.5	0
			무산되고 말았다	29	74.4
			무산돼 놓았다	30.6	0
			무산돼 버렸다	25.8	25.6
‘버리다’	13	B: 여자 친구랑	헤어지고 말았어	40.3	20.9
			헤어져 버렸어	30.6	16.3

11) 한국어 제2권 178쪽, 민족출판사, 2001

와 교체 사용	( )	헤어져 냈어	29	0
		헤어져 놓았어	0	0
		헤어져 버렸어	0	62.8
		헤어지고 말았어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많은 중국인 학습자들이 ‘-고 말겠다’의 구성에 대해서 잘 인식한다. 질문 9번의 경우 화자의 의지 표현으로 ‘-고 말겠다’가 가장 적절하고 ‘-어 내다’는 화자의 의지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이 상황에서 화자는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과 관계없이 단지 욕심만 말하므로 ‘-고 말겠다’가 더욱 적절하다. 학습자 인식 조사의 사후 인터뷰를 통해 북경어언대학교의 교사가 학교 한국어 수업에서 ‘-고 말겠다’의 의미를 강조한 바가 있어 많은 학습자들이 이 구성에 익숙하므로 다른 문항보다 높은 정답률을 보인다. 그러나 나머지 두 문항에서 한국인 모어 화자는 주로 ‘-어 버리다’와 ‘-고 말다’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중국인 학습자는 다양하게 답을 선택했다. 심지어 제도가 무산되거나 여자 친구와 헤어지는 상황에서 ‘-어 내다’를 고른 답까지 나왔다. 이에 해당하는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사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자: 질문 13번에 왜 ‘내다’를 선택했어요?  
L2: 의미상 차이를 몰라서 느낌대로 답을 골랐어요.

연구자: 그럼 질문 15번에 이(질문11번)와 같은 이유로 ‘-고 말다’를 선택했어요?  
L4: 네,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여기서 이 상황은 신문 기사이니까 ‘-고 말다’는 이 상황에 가장 맞는다고 봐요. 그리고 이 기사를 보면 대부분 사람과 기대와 달리 원하지 않는 어떤 결과, 제도가 무산된 그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좀 부정적인 느낌이 있고 ‘-고 말다’가 최종적으로 어쩔 수 없이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뜻이 있는 것 같아서 ‘-고 말다’를 선택했어요.

연구자: 질문 13번에 ‘-고 말다’는 왜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L4: ‘-고 말다’는 일상 대화에서 자주 안 써서 그런지 ‘-어 버리다’는 구어적인 표현이고 그러한 특징이 있어서 말할 때 이를 쓰면 더 편하다고 생각해요.

사후 인터뷰를 통해 학습자의 실제적인 생각을 알아볼 수 있다. 역시 많은 학습자들은 보조동사에 대한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유사한 문형 간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해 상황에 맞게 보조동사를 쓰는 능력이 부족하다. 또한 어떤 학습자는 평소에 말하는 습관을 가지고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는 문항을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개인적으로 발화를 생산하는 방식인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도 있으나 학습자가 처음에 해당 문형을 배울 때 이 문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므로 계속 틀린 인식 속에서 이 문형들을 사용하여 그 인식이 화석화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처음에 그 문형을 가르칠 때 교사가 학습자들에게 그 문형의 뜻과 사용 맥락을 제대로 설명해줘야 이러한 문제를 피할 수 있다.

### 2.2.3.3. 통사적인 제약

‘말다’는 버리다와 비슷하게 받는 통사적인 제약이 심하지 않다. 그러나 화자의 강한 의지를 표현하려면 ‘-겠-’과 결합할 때 주어의 인칭이 제약을 받고, 또한 고 말다 구성은 자주 ‘버리다’와 ‘내다’ 뒤에 오고 보조동사 연속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런 점에 대한 학습자의 습득 양상이 다음과 같다.

<표 28> 보조동사 ‘말다’의 통사 제약 습득 조사

번호	테스트 문형	측정 요소	집단별 정답률	
			CL(%)	KN(%)
18	친구의 소식을 듣고 슬프고 말았어요.	형용사	51.6	100
21	약속을 어겼고 말았어요.	어미‘-었’	17.7	88.3
22	끝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말았다.	부정형	87.1	74.4
28	나는 그 책을 다 읽지 못하고 말았다.	부정형	88.7	76.6
31	A도 시험에 합격하고 말겠어요.	주어+‘-겠-’	64.5	95.3
36	이번 게임에서는 반드시 이기고 말겠다.	주어+‘-겠-’	59.7	100
37	담배를 끊고 마세요.	명령형	82.3	100
40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아요.	‘-겠-’	33.9	93
43	책을 읽고 말지 못했다.	부정형	71	100

44	아버지께서는 떠나고 마셨다.	존대 ‘-시-’	93.5	60.5
26	부장님께서 말기신 이 일을 기여이 해 내고 말겠어.	보조동사 연속 내다+말다	100	100

‘말다’의 통사적인 제약에 대한 인식 및 습득 양상을 측정하기 위해서 총 10개의 문항을 설정했고 보조동사의 연속 사용 현상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내고 말다’의 구성이 포함된 문항까지 출제하였다. ‘말다’는 ‘내다’와 ‘버리다’보다 선행어와 결합 관계에서 제약이 더 약하지만 ‘-어’로 선행어와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고’로 연결되어서 통사적인 측면에 있어 ‘버리다’와 ‘내다’와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인다.

조사 결과를 보면 많은 학습자들이 ‘말다’의 통사적인 제약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시제 선어말 어미 ‘-았/었-’과의 결합에 대한 정답률은 17.7%로 아주 낮게 나왔다. ‘약속을 어겼고 말았다’라는 문장에 시제 선어말 어미 ‘-었-’은 본동사와 결합이 제약된다. 중국인 학습자들이 시제 선어말 어미는 선행동사 말고 보조동사 뒤에만 붙을 수 있는 점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II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말다’는 ‘-겠-’과 결합할 때 주어의 인칭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주어가 1인칭인 경우 ‘-고 말겠다’는 주어의 강한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데 이는 주어가 어떤 것을 꼭 완성하겠다는 뜻을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의지를 표현할 때 주어는 반드시 1인칭이어야 하고 3인칭과의 결합이 불가능하다. 또한 ‘-겠-’은 다른 선어말어미와 마찬가지로 본동사와 ‘-고’ 간에 삽입될 수 없는데 이 질문에 대한 정답률은 역시 33.9%로 낮았다. ‘말다’의 선행 용언으로 형용사가 잘 오지 않는 점에 학습자의 인식이 역시 부족하고 이 질문에 대한 정답률은 51.6%이다.

연구자: 왜 ‘약속을 어겼고 말았어요’라는 문장이 맞다고 생각해요?  
L2: 이 표현은 상황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원래 약속을 잡고 했는데 약속이 가기 전에 그반 일이 생겨서 못 간다면 약속을 어겼고 말았다 할 수 있지 않아요?  
연구자: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고 말다’를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나 형태적으로 혹시 틀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봤어요?

L2: 아니요. 그냥 의미적으로 맞고 이해가 잘 가면 되지 아닐까요?

조사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들이 완료상 보조동사의 통사적인 결합 관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보조동사를 사용할 때도 이런 구조에 대해 신경을 안 쓰는 편이라는 것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사후 인터뷰를 통해 또 하나의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했다. 학습자 L2의 대답을 보면 학습자가 문장의 의미에 대한 판단이 가장 우선시되고 다른 요소에 대한 관심이 그리 크지 않다. 즉, 문장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고 다른 문법적인 요소가 학습자의 이해에 방해가 안 되면 학습자가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따지지 않는 편이다.

지금까지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완료상 보조동사에 대한 인식 양상, 그리고 양태적인 의미와 통사적인 제약에 대한 습득 양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조사의 결과를 보면 대부분 학습자가 아직 보조동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유사한 의미를 지닌 보조동사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거나 보조동사의 통사적인 제약을 몰라 문법상 틀린 문장을 만드는 현상이 종종 일어난다. 물론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학습자가 스스로 이러한 보조동사의 의미를 파악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 학생들이 지닌 문형에 대한 지식은 주로 학교 수업에서 얻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과정이 학습자의 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2.3. 완료상 보조동사의 교육 실태

앞서 두 차례의 설문 조사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가 지닌 완료상 보조동사의 인식 및 습득 양상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이 조사의 결과는 학습자들이 왜 어떤 오류를 자주 범하는지 또한 왜 어떤 문형을 이미 배우더라도 그들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지 하는 질문들에 답하기에 부족한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이 질문들의 답을 찾기 위하여 3차 교수 학습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총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학습자의 학습 경력, 학습 방법, 수업에서 경험한 교수 방법, 교재에 대한 생각 등 여러 측면에서 중국 내에서의 한국어교육 현황 및 피험자의 학습 실태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우선 3차 조사에 주요 문제들의 문항

별 조사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2.3.1. 학습자의 학습 경력

이 질문의 결과를 보면 대다수의 학습자들이 ‘버리다’를 학습한 적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고 ‘내다’나 ‘말다’의 경우 기억이 안 나가거나 배워 본 적이 없다는 답이 종종 있다. 이에 학습자 개인의 수준이나 기억력 등에 따라 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대부분 학습자가 이 세 가지의 문형을 배워 본다고 할 수 있다. 그래도 ‘버리다’에 대한 학습자의 인상이 가장 깊다고 할 수 있고 ‘내다’와 ‘말다’의 교수에 부족한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 내릴 수 있다.

<표 29> 학습자 학습 경력 조사

질문#1~3	수업에서 아래의 문법 항목을 배워 본 적이 있습니까?		
문항	‘-어 버리다’	‘-어 내다’	‘-고 말다’
있음	61	55	53
없음	0	1	5
기억이 안 남	1	5	4

### 2.3.2. 교사

다음에는 교사의 교수 방식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표 30> 교수 방식 조사

3. 수업 시간에 교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 문법 항목들을 가르칩니까?	
문항의 뜻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나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시킨다.	3
문형의 의미 기능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관련 예시를 몇 개 제시한다.	47
사전 예습을 통해 학습자로 하여금 스스로 문형을 이해하게 하고 수업 시간에 어려운 점에만 초점을 맞추어 설명해 준다.	3
한 마디로 언급하거나 언급한 적이 없다.	9

<표 31> 교수 방식 만족도 조사

4. 교사가 이 문형들을 가르치는 방식에 대해서 채점해 주십시오. 1-매우 불만족 2-대체로 불만족 3-보통 4-대체로 만족 5-매우 만족					
점수	1	2	3	4	5

비율	4.8%	41.9%	27.4%	21%	4.8%
평균	2.79 점				

조사 결과를 보면 대다수의 학습자가 수업 시간에 보조동사에 대한 교사의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낀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 학교 수업은 교사가 문형의 의미 기능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몇 개의 관련 예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많은 교사들이 문법 항목을 가르칠 때 가장 전통적인 교수 방법으로 학습자의 기억을 강화시키기 위해 학습자들로 하여금 반복 연습을 하도록 하거나 학습자가 고급 단계에 올라갈수록 교사의 설명이나 해석이 간단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교수법에 대한 학습자의 만족도는 5점에서 2.79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현재 교사가 주도하는 수업 방식에 대한 태도는 대체로 불만족하다고 할 수 있다.

### 2.3.3. 교재

#### 2.3.3.1. 교재 분석

다음에 교재에 대한 조사이다. 조사 결과를 다루기에 앞서 중국 현지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3 가지의 교재를 선정하여 교재에서의 ‘버리다’, ‘내다’, ‘말다’의 제시 양상을, 문법 설명과 예문 등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선정된 교재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32> 중국대학의 한국어 교재 문형 비교

교재명	예문 및 의미 해석
한국어 <韓國語>	-고 말다(제2권 제12과): 用於動詞后, 表示動作的最終完成, 相當於漢語的“最終……”。-고後有時加補助詞-야, 表示強調。 설사 의미는 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매우 어색한 문장이 되고 맙니다. 即便其意思是表達了, 也只能成為一句很彆扭的句子。
	-어 내다(제2권 제13과): 用於他動詞后, 表示該動作做到底, 最後得到某種結果。 직원들이 모두 힘을 합해서 어려움을 이겨 낸 결과겠지

	<p>요.</p> <p>是職員們齊心協力克服困難的結果。</p> <p>-어 버리다(제3권 제8과): 表示徹底完了的意思。</p> <p>남기지 말고 몽땅 먹어 버려라.</p> <p>別剩下, 都吃掉。</p>
표준한국어 <標準韓國語>	<p>-고 말았다(제3권 제35과)</p> <p>가: 어제 축구 시합 어떻게 되었어요?</p> <p>나: 모든 선수들이 열심히 했지만 우리가 지고 말았어요.</p>
	<p>-어 버리다(제4권 제41과)</p> <p>가: 그 친구에게 충고하셨어요?</p> <p>나: 제 말을 다 듣지 않고 나가 버렸어요.</p>
	<p>-어 내다(제4권 제42과): 동작동사에 붙어서 그동작을 능히 끝까지 이룬다는 뜻을 나타낸다.</p> <p>무슨 일이 있어도 이 일은 제 힘으로 해 내겠어</p>
	<p>-었을 뿐 -고 말다(제5권 60과)</p> <p>가: 어제 하시던 일은 다 끝내셨어요?</p> <p>나: 늦게까지 앉아 있기만 했을 뿐 정작 일은 못 끝내고 말았어요.</p>
한국어교정 <韓國語教程>	<p>-어 내다(제3권 제16과): 동사 어간 뒤에 이어져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동작을 끝까지 이루어 낸다는 주관적인 의미를 더해 준다.</p> <p>가: 어떻게 그 힘든 일을 다 해 내셨습니까? 那麽累的工作怎麼做完的?</p> <p>나: 다 도와 주신 덕분입니다. 多虧您幫忙。</p>

선정된 교과서는 모두 중국에서 널리 사용하는 교재인데 완료상 보조동사 ‘버리다’와 ‘내다’, ‘말다’에 대한 해석과 예문을 위 표에서 본 바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이 세 가지의 교재는 문형 제시 면에서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문형 뒤에 간단한 중국어나 한국어 해석이 따르고 예문도 같이 제시

되는 방식을 취한다. 그리고 예문은 주로 한 문장이나 두 사람의 대화로 구성됐다. 교재의 문법 제시 방식에 대한 학습자의 타도는 뒤에 살펴볼 것이다. 그러나 이 3가지의 교재를 비교해 보면 ‘버리다’, ‘내다’, ‘말다’의 해석과 예문에 문제점이 적지 않다.

우선 ‘내다’를 설명하는 데 모든 교재에서 ‘내다’의 양태적인 의미, 즉 힘든 과정을 통해 성과를 거두게 된다는 뜻이 쓰여 있는 반면 ‘버리다’와 ‘말다’의 양태적인 의미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 두 표현에 단지 동작의 끝남을 표현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또한 ‘버리다’와 ‘말다’에 대한 의미 해석과 예문이 거의 비슷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 해석을 보면 학습자가 각 표현 간의 차이점을 이해하게 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정확하게 문형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조차 못할 수도 있다.

제시된 대화문이 어떠한 상황 맥락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가 어떤 상황에서 해당 표현을 써야 하는지 알아채기가 힘들다. 게다가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대부분 교사는 교재에서 나온 내용대로 문형을 교수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러한 교재를 바탕으로 교사의 보충적인 자세한 설명이 없으면 학습자가 각 문형을 잘 습득하고 서로의 차이점을 구별하여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2.3.3.2. 교재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이어서 학습자가 교재에 대한 만족도와 평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학습자가 교재에 대한 채점하게 하는 문제와 교재의 문제점을 기술하게 하는 문제에 대한 대답은 다음 <표 33>와 같다.

<표 33> 교재에 대한 학습자 만족도 조사

7. (교재에서 나온 뜻풀이를 및 예문 <sup>12)</sup> 을 제시하며) 교재에서 나온 예문들이 문법 항목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됩니까?				
1-매우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1	2	3	4	5
18(29%)	15(24.2%)	22(35.5%)	7(11.3%)	0(0)
평균	2.29점			
8. 교재의 문제점에 대해서 써 주십시오.				
중국어 해석이 있지만 중국어 해석조차 이해하지 못한다				27

다양한 의미를 가진 보조동사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15
적절한 실제적인 사용 맥락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실제 용법을 파악하기 힘들다	55
의미가 비슷한 문형 간에 차이점에 대한 설명과 예시가 부족하다	38

이러한 교재에 대한 학습자의 만족도 조사에는 평균 점수 2.29로 나와 약 90%인 학습자가 교재에 대한 태도는 보통이나 보통 이하였다. 대부분 학습자가 현재에 사용하고 있는 교재가 학습에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고 이러한 교재의 개선이 한국어교육에서 급선무가 되어야 한다고 할 수도 있다.

교재의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한 조사 결과는 학습자들이 ‘중국어 해석이 있지만 중국어 해석조차 이해하지 못한다(27)’, ‘다양한 의미를 가진 보조동사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15)’, ‘적절한 실제적인 사용 맥락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실제 용법을 파악하기 힘들다(55)’, ‘의미가 비슷한 문형 간에 차이점에 대한 설명과 예시가 부족하다(38)’라고 다양하게 답했다. 특히 그 중에 사용 맥락이 없이 문법 뜻풀이와 예문만 제시하는 점에 대한 학습자의 불만이 가장 심하다. 또한 교재에는 문법 항목이 한 번만 나오면 다시 한 번 출현하지 않는데 이는 의미상 유사한 문법 항목 간에 대조와 비교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이에 따라 교사의 정리나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하지만 중국의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고급으로 올라갈수록 수업의 목표는 종합적인 한국어 능력을 기르는 것으로 설정되어 초급처럼 문법 항목에 초점을 두는 것과 달리 통역이나 번역, 문학 등 영역에 중점을 기울인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교사의 보충적인 설명이 없으면 교재에서 나온 예문이 더욱 중요해지고 예문이 적절해야 학습자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반면 기준에 유사한 문형에 있어 유사한 문형을 제시하는 것은 학습자가 두 문형을 짝을 지어 비슷한 의미를 잘 기억할 수 있지만 이러한 문형을 혼동하여 사용하기는 십상이다. 따라서 이러한 교재는 학습자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것보다 혼란을 일으키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12) I장에서 중국 북경 외국어 대학교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는 민족출판사의 “한국어 (1~4)”인에 실린 보조동사로서의 ‘버리다’, ‘말다’, ‘내다’의 의미 해석과 예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뜻풀이 와 예문을 조사 참여자에게 제시하고 나서 학습자의 생각이 어떤지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구체적인 뜻풀이 와 예문은 앞에서 제시한 예문과 똑 같다.

## 2.4. 시사점

지금까지 중국인 학습자들이 완료상 보조동사에 대한 인식 및 습득 양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세 단계의 조사를 걸쳐 중국인 학습자들이 완료상 보조동사인 ‘버리다’, ‘내다’, ‘말다’를 사용할 때 오류를 많이 범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앞에서 단어별 그리고 유형별로 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자세하게 분석하였는데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중국인 학습자의 오류 양상을 크게 몇 가지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브라운(Brown, 2000)에 따르면 학습자의 오류를 가장 일반적인 분류 방법은 대치, 첨가, 생략, 어순이다. 한국어 교육학 사전(2014:254)에 따르면 오류의 양상은 오류가 나타난 유형에 따라 오류를 분류하는 것을 말하고 오류의 유형은 과사용, 누락, 첨가, 대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처럼 기존의 연구에 오류에 분류 방식은 다소 차이가 나지만 크게 대치, 첨가, 누락, 과잉 적용 등의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중국인 학습자가 자주 범하는 오류 양상도 이러한 오류의 유형에 해당되어 아래와 같은 몇 가지의 특징을 보인다.

첫째, 중국인 학습자가 완료상 보조동사 ‘버리다’, ‘내다’, ‘말다’를 사용할 때 대치 오류를 자주 범한다. 대치(misformation)란 학습자가 어떤 문법 형태를 쓰는 자리에서 다른 것으로 바꾸어 쓰거나 유사한 어휘를 선택하여 쓰는 것을 가리킨다. 여기서 말한 대치는 예를 들자면 ‘버리다’를 써야 하는 상황에서 학습자가 다른 보조동사를 쓰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 a. A: 형 이 과자 먹어도 돼?

B: 응, 그렇지만 다 먹어 내면(~~√먹어 버리면~~) 안 돼. 나도 먹고 싶은데.

b. 에디슨은 항상 성공만 한 것이 아니지만 여러 번의 실패 후에 마침내 전기를 발명하고 말았습니다(~~√발명해 냈습니다~~).

위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A가 과자를 다 먹는 것이 B의 생각이나 기대한 것과 부응하지 못해서 B가 자신의 이러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하여 ‘먹어 버리다’를 쓴다. 그러나 절반의 중국인 피험자가 ‘먹어 내다’로 답했다. 또한 힘든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전기를 발명한 에디슨에 대한 글에 ‘발명해 냈다’가 맞는 답이지만 많은 중국인 학습자가 ‘발명하고 말았다’로 답했다. 이처럼 상황에

맞게 화자의 심리태도를 잘 나타내 주는 보조동사가 쓰여야 할 자리에서 중국인 학습자가 다른 보조동사를 사용하여 대치 오류를 많이 범했다.

둘째, 보조동사의 통사적인 제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범하는 오류 중에 과잉 적용<sup>13)</sup>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과잉 적용(over-indulgence) 혹은 과사용(over-use)은 단순한 표현을 더 복잡하게 만들거나 목표어의 규칙을 확대 적용하는 두 가지의 경우를 말하는데 중국인 학습자들은 목표어의 규칙을 부적절하게 적용하여 오류가 많이 발생했다. ‘-어’나 ‘-어서’의 앞에 시제 선어말 어미 ‘-았/었-’ 등이 오지 않고 ‘-고’ 앞에 올 수 있으나 ‘-고 말다’의 본동사에 시제 선어말 어미가 오면 비문이 된다. 또한 존대 선어말 어미 ‘-시-’를 어디서 넣어야 하는지 모를 때 과잉 존대 현상과 같이 본동사와 보조동사에 모두 ‘-시-’를 붙이거나 자신의 느낌대로 선행동사에만 ‘-시-’를 붙이는 경우가 있다. 이런 현상은 고급 학습자가 전에 배운 내용을 전이시켜 낯선 표현에 적용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런 문법 규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데에 있다.

셋째, 중국인 학습자는 완료상 보조동사의 사용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회피(avoidance)란 제2 언어 화자가 어려운 어휘나 구조의 사용을 피하고 보다 단순한 어휘와 구조를 대신 사용하는 현상을 말한다. 중국인 학습자의 중한 번역 문제의 대답을 분석했을 때 완료상 보조동사를 써야 하는 문장에 동사 과거형이나 부사어로 문장의 뜻을 표현하는 중국인 학습자가 많았다. 특히 ‘-어 내다’와 ‘-고 말다’의 경우 대부분 학습자들이 번역했을 때 동사 과거형이나 부사어 ‘결국’, ‘드디어’ 등만 사용하고 보조동사를 안 썼다. 그러나 이와 달리 ‘버리다’의 경우 ‘있어버리다’나 ‘써 버리다’라고 답한 학습자가 많았다.

넷째, 대부분 중국인 학습자가 완료상 보조동사에 대한 학습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동사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다. 거의 모든 학습자가 학교에서 완료상 보조동사를 배워 본 적이 있으나 약 80%의 피험자가 완료상 보조동사의 습득 수준이 ‘보통 이하’라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각 보조동사의 의미를 쓰게 하는 질문에 거의 모든 학습자가 이 세 보조동사의 완료라는 상적인 의미를 알고 있었으나 다른 의미를 제대로 답하지는 못했다. 그 후에 완료상 보조동사 습득 양상 조사에서도 대부분 학습자가 보조동사의 양태적인 의미를 정확히

13) 이정희(2003)에 따라 과잉 적용은 목표어로 표현할 때 단순한 표현을 더 복잡하게 만들거나 목표어 규칙을 부적절하게 적용하여 규칙을 확대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알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대부분 학습자의 현행 한국어 교육과정(교재·교사 등)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편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보면 중국인 학습자가 보조동사로서의 ‘버리다’, ‘말다’, ‘내다’의 다양한 양태적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해 실제적인 사용에 있어 오류를 자주 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부분 중국인 학습자들이 완료상 보조동사의 상적인 의미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심층적인 의미와 자주 쓰이는 상황 맥락에 대한 인식이 아주 부족하여 보조동사를 혼동하여 쓰는 오류를 범하거나 보조동사의 사용을 회피하여 보다 이해하기 쉽고 익숙한 ‘부사+과거 시제’의 구성을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중국인 학습자가 완료상 보조동사의 통사적인 제약에 대한 인식 부족은 대부분 보조동사의 의미를 모른다는 점에서 온다. 이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보조동사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해 계속 문장의 뜻에 지나치게 주목하고 신경 쓰느라 통사적이나 형태적인 정확성을 간과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현지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에도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으로는 주로 교재에서의 문형 제시 방식과 교사의 교수 방식 등이 들 수 있다. 그러므로 다음에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완료상 보조동사의 사용에 있어 자주 범하는 오류의 원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 3. 중국인 학습자의 완료상 보조동사 오류 원인 분석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인 학습자의 완료상 보조동사 ‘버리다’, ‘내다’, ‘말다’에 대한 인식 및 습득 양상을 분석하여 중국인 학습자가 이러한 보조동사의 기본적인 완료라는 상적인 의미 외에 다양한 양태적인 의미 및 통사적인 제약에 대한 인식이 아주 부족하여 쉽게 오류를 범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외국어 학습에서 오류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류는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된다면 학습자의 학습 능력을 높이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다. 앞에서 이미 중국인 학습자가 완료상 보조동사의 사용에 있어 자주 범하는 오류의 양상을 살펴봐왔는데 이 절에서는 오류를 초래하는 심층적인 원인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이정희(2003)에서는 학습자가 무엇을 어렵게 생각하고 많이 틀리는지, 또한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것은 문법의 교수·학습 내용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오류에 대하여 자세하게 검토하면 학습자가 완료상 보조동사의 습득 양상을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향후 더 효과적이고 학습자 중심적인 교수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학습자가 언어 학습에서 범하는 오류의 원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돼 왔고 학자의 의견이 분분하다. 오류 원인에 대한 연구는 학자마다 다소 차이가 났지만, 정리하면 오류의 원인은 크게 모어의 영향에 의한 오류, 목표어에 의한 오류, 교육과정의 오류, 전략적 오류로 나눌 수 있다. 중국인 학습자가 완료상 보조동사의 학습에서 범하는 오류의 원인은 ‘모국어의 영향’, ‘목표어의 영향’, ‘교육과정의 영향’ 이 세 가지가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분류 기준에 따라 중국인 학습자의 보조동사 사용 오류 원인을 ‘모국어 간섭에 의한 오류’, ‘목표어 복잡성에 의한 오류’, 그리고 ‘교육 과정에 영향에 의한 오류’의 세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 3.1. 모국어의 영향에 의한 오류

앞에 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상을 표현하는 데에 있어 한국어와 중국어는 다양한 대응 관계를 보인다. 한국어의 완료상 보조동사에 대한 인식 조사의 결과를 따라 대부분 중국인 학습자들이 이러한 표현들을 중국어의 시상표현 ‘了, 著, 過’나 결과보어 ‘光, 掉’ 등과 대응하여 기억하는 방식을 취하며 이들의 ‘완료’라는 상적인 의미를 잘 아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인 학습자들이 중국어의 시상 표지나 결과보어가 포함된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자주 보조동사를 안 쓰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은 주로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한국어의 완료상 보조동사는 다양한 양태적인 의미를 가져 중국어에는 이에 완전하게 대응될 수 있는 표현이 없기에 학습자가 보조동사를 이해하고 습득하는 데에 어려움을 준다. II장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한국어의 보조동사와 중국어의 결과보어는 많은 유사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대일 대응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 한국어의 보조동사는 중국어의 부사나 구로 표현될 수도 있다. 한국어의 완료상 보조동사는 기본적으로 상적인 의미, 즉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데 중국어의 결과보어는 선행 동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어떤 사건의 결과를 보충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데 시상적인 의미가 그리 강하지 않다. 이는 앞에 언

급한 듯이 중국어에는 시제와 상의 개념의 차이가 뚜렷하지 못하고 심지어 상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으므로 완료상 보조동사와 완벽하게 대응하는 표현을 찾기가 어렵다. 또한 한국어의 완료상 보조동사는 시상적인 의미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양태적인 의미, 즉 화자의 심리적인 태도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중국어에는 이와 같은 기능을, 즉 상적인 의미와 양태적인 의미를 잘 드러내는 표현이 없다고 할 수 있고 결과보어나 ‘부사어+ 시상 표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어 원문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대부분 중국인 학습자들이 완료상 보조동사를 배울 때 간단하게 대응표현을 통해 완료상 보조동사를 이해하여 기억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완료상 보조동사의 상적과 양태적인 의미를 잘 습득하기 위해 보조동사가 쓰이는 다양한 상황, 예문 그리고 교사의 자세한 설명 등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둘째, 한국어의 보조동사와 중국어 대응 표현은 다양한 대응 관계를 보이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가 단지 중국어의 소위 대응 표현을 통해 한국어의 완료상 보조동사의 의미를 잘 습득하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앞에 교재 분석에 대한 부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중국의 한국어 교재는 완료상 보조동사를 설명할 때 항상 중국어의 부사어 ‘最終’ 등이나 시상 표시 등과 대응시켜 제시하는데 중국어의 시상 표시나 부사어는 한국어의 완료상 보조동사와 대응하는 양상을 보일 뿐만 아니라 한국어의 부사어나 과거형과의 대응 관계가 더 자연스럽다. 많은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문형을 배울 때 자주 교사의 설명이나 교재에서 제시하는 중국어 대응 표현을 통해 목표 문형을 이해하여 기억을 강화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러므로 중국인 학습자들이 완료상 보조동사를 배울 때 때로는 결과보어 때로는 부사어나 시상 표시를 통해 완료상 보조동사의 의미를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어의 부사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한국어의 완료상 보조동사가 쉽게 떠오르지는 않는다. 즉, 중국어에는 시상과 시제의 구별이 그리 뚜렷하지 않고 중국인 학습자들이 사건의 ‘완료’라는 의미를 표현할 때 단지 ‘了’나 ‘過’와 대응하는 한국어의 시제 선어말 어미만 쓰고 한국어의 완료상 보조동사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번역 문제의 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부사어 ‘最’이나 ‘終於’(결국, 끝내)가 들어 있는 중국어 문장을 한국어 문장으로 번역했을 때 약 80%의 학습자가 문장의 상황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부사어+ 동사 과거형’의 형태로 답했다. 그러므로 발화시와 사건시의 관계인 시제 표현과 사건 내적의 장면을 보여주는 시상 표현 간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완료상 보조동사를 배워도 이들을 잘 활용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예: 我把剩饭都吃了。

[나] [남다] [밥] [다] [먹었다]

나는 남은 밥을 다 먹어 버렸다.

이 예문에서 보듯이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부사어 '다'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만 쓰면 중국어의 문장과 완전히 대응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 경우에 화자가 남은 밥에 대한 걱정이나 심리적 부담감을 제거하기 위하여 '버리다'를 쓰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중국어에는 이런 심리 태도를 표현하려면 자주 억양이나 표정과 같은 방식으로 발화하여 부사어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보조동사를 잘 쓰지는 않는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들이 이런 표현을 회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기 쉽고 완료상의 개념에 대한 강화 연습 없으면 완료상 보조동사의 습득에 있어 오류를 범하기 쉽다.

### 3.2. 목표어의 복잡성에 의한 오류

목표어의 복잡성에 의한 오류라는 것은 한국어의 완료상 보조동사 자체의 복잡성으로 인해 언어 습득 과정에서 나타난 이해 부족과 표현 능력 부족 등을 가리킨다. 완료상 보조동사의 복잡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각 보조동사가 다양한 상적인 의미와 양태적인 의미와 통사적인 특성을 지녀서 발생하는 보조동사별 의미 기능의 복잡성이고 또 하나는 보조동사 간의 의미상 유사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해와 구별 사용에서의 복잡성이다. 보조동사 '버리다', '내다', '말다'는 같은 '완료'라는 기본 의미를 가지며 다양한 양태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보조동사들은 상황에 따라 화제의 주어나 화자의 다른 심리 태도를 나타낼 수 있으며 다양한 상황 속에서 정확히 어떠한 의미를 표현하는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들 간에 의미상 차이점이 존재하더라도 큰 차이가 아니라 심지어 의미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고 교체 사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이를 학습할 때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 3.2.1. 보조동사별 의미와 통사적 제약의 복잡성

보조동사 ‘버리다’, ‘내다’, ‘말다’는 완료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다양한 양태적인 의미를 가지며 많은 통사적인 특성을 보인다.

예: 남은 밥을 다 먹어 버렸다. (아쉽다/걱정이 없어진다)

위의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버리다’는 대체로 ‘어떤 동작을 완료됨에 따라 부담을 제거하다’라는 뜻이나 상황 맥락에 따라 ‘기대와 다르게 어떤 동작이 끝났다’라는 의미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보조동사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려면 학습자가 보조동사의 기본적인 의미에 대한 인식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대화의 상황, 보조동사의 양태적인 의미 등을 다 잘 알아야 되고 맥락적인 정보까지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위에 ‘버리다’의 습득 양상을 분석했을 때 질문 10번과 14번의 경우 많은 학습자가 ‘버리다’의 다양한 의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상황에 맞게 적절한 보조동사를 사용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예: 1) a. 돈을 써 버렸어요.  
b.\* 돈을 썼어 버려요.  
c.\* 돈을 썼어 버렸어요.
- 2) a. 약속을 꼭 지키고 말겠어요.  
b.\* 약속을 꼭 지키겠고 말아요.  
c.\* 약속을 꼭 지키겠고 말겠어요.

보조동사는 의미상 복잡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통사적인 제약에 있어서도 다양한 규칙이 있다. 위 예문에서 본 바와 같이 (1a)와 (2a)는 모두 정확한 문장이고 나머지는 비문이다. 보조동사와 선어말 어미와 결합할 때 어디서 선어말 어미를 삽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학습자가 인식이 부족하다면 오류를 범하기가 쉽다. 또한 보조동사의 통사적인 제약은 단순히 형태적인 것이 아니고 보조동사의 의미와 관련이 있기도 한다. 완료상 보조동사로서 이 세 개의 표현은 약간, 아직 등 부사어와 결합에 제약되고 ‘버리다’는 ‘부담의 제거’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 자

주 ‘마음이 편하다’나 ‘시원하다’라는 표현 혹은 ‘드디어’, ‘마침내’ 등 부사어와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다. 학습자가 단순히 이러한 제약을 기계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우선 해당 보조동사의 의미를 잘 알아내야 한다. 그러나 보조동사가 지닌 다양한 의미를 잘 습득하여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쉬운 일이 아니고 보조동사의 사용의 맥락까지 파악하는 것은 학습자에게 더욱 어렵다. 그러므로 학습자가 이러한 보조동사의 학습과 사용에 있어 오류를 범하기가 심상이다.

### 3.2.2. 보조동사 간 의미 기능의 유사성

‘버리다’의 의미만 잘 알면 완료상 보조동사를 잘 습득하는 것은 아니다. ‘말다’가 ‘버리다’와 비슷하게 아쉽다는 의미를 나타낼 때가 있고 왜 어떤 경우엔 ‘말다’만 쓰일 수 있고 ‘버리다’가 왜 안 되는가 하는 질문에 대답할 수 없으면 보조동사를 잘 습득했다고 할 수 없다. 이처럼 보조동사 간에 존재하는 유사점과 차이점이 역시 보조동사 학습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 되고 학습자의 오류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13. A는 오랫동안 못 만났던 친구B와 식당에서 우연히 만났다.

A: 정말 오랜만이다. 여자 친구와 잘 지내?

B: (슬픈 표정으로) 아니, (                      ). (헤어지다)

A: 무슨 일이 있었어?

B: 성격이 서로 달라서 자주 싸웠거든.

- a. 헤어지고 말았어                      b. 헤어져 버렸어  
c. 헤어져 났어                              d. 헤어져 놓았어

문항 13번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상황에 맞는 대답은 하나가 아닌 두 개가 있다. B는 여자 친구와 헤어진 것에 대한 태도는 그의 말과 표정을 나타내는 지시문에 모두 나타난다. 즉, B는 여자 친구와 헤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둘은 결국 기대와 다르게 돼 버렸다. 이처럼 어떤 사건이 끝남에 따라 화자의 아쉬운 마음이 있을 때 ‘버리다’와 ‘말다’는 모두 다 이런 ‘아쉬움’을 잘 드러낼 수 있어 교

체 사용이 가능하다. 이 문항을 출제했을 때 피험자로 하여금 답을 하나만 고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답을 선택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조사의 결과를 보면 40.3%의 학습자는 ‘-고 말다’를 택하고 30.6%의 학습자는 ‘-어 버리다’를 선택하였다. 또한 ‘-고 말다’와 ‘-어 버리다’를 동시에 고른 중국인 학습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 하나의 놀라운 사실은 29%인 학습자가 ‘-어 내다’를 선택한 것이다. ‘내다’는 힘겹게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노력을 통해 목표를 이룬다는 뜻을 지니므로 대부분 긍정적인 상황에서 쓰이고 이 경우와 절대 안 맞는다. 놀랍게도 이 질문에 ‘내다’를 고른 학습자 한 명과 사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자: 질문 13번에 왜 ‘내다’를 선택했어요?

L9: 일단 이 일은 이미 끝난 얘기죠. ‘내다’는 어떤 일이 끝난다는 뜻이 있고 보통 안 좋은 상황에서 버티고 성공적으로 벗어나고 좋은 결과가 나온다. 그런 의미로 쓰는 것 같아서요. 이 문장의 경우 둘이 자주 싸우다 보니 사이가 별로 좋지 않고 헤어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내다’를 골랐어요.

연구자: 혹시 ‘내다’와 ‘버리다’나 ‘말다’의 차이를 잘 알아요?

L9: 평소에 별 쓰지도 않고 거의 이런 표현에게 신경을 안 써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치를 잘 모르지만 아마 ‘버리다’는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 같고 ‘잊어버리다’와 같이 안 좋은 상황에서 주로 쓰고 ‘말다’는 그냥 ‘끝나다’와 비슷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학습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선 이 대화의 배경 상황에 대한 틀린 판단을 내린 것을 알게 되고 유사한 보조동사 간의 차이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도 함께 밝혀냈다. 다른 질문에 대한 사후 인터뷰를 통해서도 보조동사 간에 차이를 구별하지 못해 답을 잘못 고른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완료상 보조동사의 양태적인 의미 측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통사적인 제약의 측면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예: a. 그녀는 일 년 사이에 키가 많이 커 버렸다.

b. 그녀는 일 년 사이에 키가 많아 커 냈다.

위의 예문에서 본 바와 같이 선행 용언이 같은 경우에도 결합할 수 있는 보조동사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에 따라 학습자가 이러한 보조동사의 유사한 의미와 통사적인 제약에 대해 변별하지 못해서 사용하지 않거나 혼동하여 쓰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보조동사의 의미와 기능상의 유사성이 학습자가 오류를 범하는 데에 하나의 요인으로 입증된다.

### 3.3. 교육과정에 의한 오류

앞에서 완료의 보조동사 자체의 복잡성과 모국어의 영향 등 언어적인 측면에서 학습자의 오류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목표 문형이 서로 유사해서 학습자가 그들 간의 차이점을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런 문제는 교육과정에서 각 보조동사의 의미 기능의 출현 빈도와 관련을 지을 수 있으며 학습자의 개인적인 성향과도 관련이 있다. 특히 양태적으로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보조동사들의 의미를 파악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고 많은 연습이나 실제적인 경험이 필요한 것과 달리 보조동사의 통사적인 제약은 많지만 이러한 제약들을 이해하여 기억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조사의 결과를 보면 통사적인 제약에 대한 질문에 정답률이 낮게 나타난다는 것이 교육과정에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 과정에 의한 오류는 주로 교육 자료 및 교육 방법에 의한 오류라고 할 수 있는데 교사가 설명을 잘못하거나 학습하고자 하는 문형에 대해서 잘못된 내용이 책에 제시되어 있거나 교사의 교수 방법 등 원인으로 학습자가 오류를 범하는 것을 가리킨다.

우선 언어 학습에 있어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므로 교사가 취하는 교수 방식에 문제점이 있으면 학습자의 학습에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 중국의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교사가 초급 학습자에게 상세하게 문형을 설명해주고 수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방식과 달리 고급 학습자에게 문형을 가르칠 때에는 다른 방법을 취한다. 3차 조사의 결과에 따라 완료상 보조동사에 대한 교사의 설명 방식은 주로 교재에서 나온 문법 항목의 의미 기능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관련 예시를 제시해 주는 단계에만 머무는 경향을 보인다. 교사의 교수 방식이 학습자의 학습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고급 수준인 학습자를 가르칠 때 교사들이 다양한 교수법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동기 부여나 흥미를 중요시하는 것에 중점

을 두지 않는 편이다. 또한 수업 시간 및 학습자 인원수 등 요소로 인하여 교사가 교재에 크게 의존하여 문법 항목의 뜻풀이와 예문만 설명해 주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학습자가 수업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학습 효과가 나빠질 수밖에 없다.

또한 고급에 올라갈수록 학습자가 일상적인 대화에서 큰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발화할 수 있어 새로 나온 문법 항목이 어려우면 의미상 유사한 쉬운 문법만 선택하여 고급 단계의 문법 항목을 회피하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보조동사와 같은 문형이 어렵더라도 일상대화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편이고 한국어 실력을 높이기 위하여 이런 보조동사를 잘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교사가 이런 문법을 가르칠 때 초급 문법보다 신경을 더 써야 되고 특히 학습자의 학습 동기 부여에 있어 효과적인 교수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문형을 교수할 때 단지 교재에서 나온 예문만 집중하는 것보다 실제적인 발화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예시를 보여주는 것이 학습자들에게 인식 전환을 시킬 수 있다. 게다가 이러한 문법 항목을 하나만 가르치고 마치는 것보다 이 세 가지의 문형을 모두 가르치고 나서 이것들을 대조하거나 비교하여 정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자세한 설명과 적당한 예시와 연습을 통해 학습자들로 하여금 목표 문형들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파악하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위에 이미 중국에서 널리 사용하는 교재에서의 완료상 보조동사의 제시 방식에 대해서 분석하였고 학습자들에게 교재에 대한 생각을 조사하였다. 리버스(Rivers, 1981)는 교재의 선정 기준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는데 이는 교육과정 및 학습자 특성에 관련된 구체적인 조건의 적절성, 교사 및 학습자에 대한 적절성, 언어 사항의 선택과 배열의 적절성, 활동 예의 적절성, 실용상의 적절성, 즐거움과 흥미로움을 제공할 것 등을 그 기준으로 삼았다. 이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교재는 학습자 요구와 수준, 교재의 정확성과 적절성 및 교수 가능성 등 측면에서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세 가지의 교재는 교수 가능성이 높지만 학습자의 요구 및 적절성에 있어 부족한 점이 있다. 특히 교재에서 사용하는 예문이 상황을 제시하지 않고 학습자가 상황 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보조동사의 학습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이 점은 교재에 대한 설문조사에 학습자들이 응답한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데 많은 학습자가 교재에 대해 만족도가 낮고 교재에서 예문을 제시할 때 대화문이나 문장뿐만 아니

라 적절한 대화의 맥락도 같이 제시해야 한다는 학습자의 요구를 확인하였다. 또한 중국 내 대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재들 중에 출판한 지 꽤 오래 된 책도 있는데 이런 교재에서 쓰이는 예문을 보면 부자연스럽거나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이러한 교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부분 중국인 학습자가 보조동사의 양태적인 의미에 대한 지식을 얻기 어렵고 이들 간의 차이점을 인식하기도 힘들다.

이러한 교육 현장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학습자들로부터 ‘버리다’, ‘말다’, ‘내다’의 다양한 의미와 통사적 특징을 파악하여 정확하게 활용하는 것이 아주 어렵다.

## IV. 한국어 완료상 보조동사 교수·학습 방안

완료상 보조동사 구문 ‘-어 버리다’, ‘-어 내다’와 ‘-고 말다’는 행위자의 행위에 대한 결과가 끝났음을 나타내는 ‘완료’를 기본 의미로 한다. ‘-고 말다’, ‘-어 내다’와 ‘-어 버리다’는 행위자의 심리적인 태도를 나타내기도 하고 완료된 동작이나 대상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도 한다. 이러한 판단은 ‘긍정적인 가치가 제거되거나 중단되는 데서 오는 부정적인 평가’, ‘자신의 의지나 어려움을 극복하는 성취감’과 ‘부정적인 가치를 지닌 것을 중단하거나 제거하는 데서 오는 긍정적인 평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은 바로 완료상 보조동사의 양태적인 의미에 해당된다. 완료상 보조동사는 이러한 상적인 의미와 양태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통사적인 제약, 부사어 등과 공기 관계에 있어도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인다. 한국인의 일상생활에서 출현 빈도가 높은 완료상 보조동사는 이러한 의미적·통사적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특성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기도 하며 어려움을 주는 하나의 문형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중국 대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교재의 경우를 보면 ‘-고 말다’, ‘-어 내다’와 ‘-어 버리다’ 체계적으로 제시되지 못했고 심지어 문형 항목에서 제외된 경우도 있었으며, 세 표현의 기능도 체계적으로 제시되지 못하는 현황이다. 또한 학습자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어 교사들조차 완료상 보조동사에 대한 지식이 결여되어 있어 수업 시간에 이들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거나 사용하는 교수방법이 효과적이지 못하여 학습자들에게 목표 문형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제시하여 전달하지 못할 때가 많다. 그러므로 II장에서 상세하게 검토한 완료상 보조동사로서의 ‘버리다’, ‘내다’, ‘말다’의 의미와 형태적인 특징과 III장에서 다뤘던 중국인 학습자의 학습 양상과 오류 원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들 바탕으로 이 장에서 한국어 완료상 보조동사에 대한 교육 내용 및 효과적인 교수 학습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1. 완료상 보조동사 교육의 목표

효과적인 교수·학습 내용을 설정하기 위해서 교육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먼저 학습자의 요구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 학습자

가 사용하는 교재와 받는 교육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한국어 학습에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할 때 이런 학습자의 불만을 고려해야 한다. 브라운(Brown 2010)에서는 교육의 목표는 종합목표와 목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종합목표는 달성 가능한 프로그램 목적과 지향점에 관한 일반적 진술이며 목표는 종합목표보다 구체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민현식(2004)에서도 교육과정에서 ‘목적(goals)’과 ‘목표(objectives)’를 구별하여 기술하였다. 목적은 교육과정에 대한 철학과 학습자가 도달해야 할 개괄적, 일반적 수준을 가리키고 일반적 방향을 제시하며, 목표는 ‘목적’을 구체화하여 구체적으로 계량화한 성취목표를 기술한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목적과 목표에 대한 설명을 고려하여 앞에 학습자의 습득 양상 및 오류 원인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한국어 완료상 보조동사의 교육 목적과 목표를 설정한다.

<표 34> 한국어 완료상 보조동사의 교육 목적과 목표

목적	중국인 학습자가 완료상 보조동사 ‘버리다’, ‘내다’, ‘말다’의 상적 의미, 다양한 양태적 의미 및 통사적인 제약을 단계적으로 학습하며 세 개의 보조동사의 유사한 의미와 차이점에 대한 변별 인식을 향상하고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조동사 ‘버리다’, ‘내다’와 ‘말다’의 상적 의미, 양태적인 의미 및 형태적 특징을 이해하여 정확하게 사용한다.</li> <li>2. 보조동사 ‘버리다’, ‘내다’와 ‘말다’가 써야 할 상황에서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잘 파악한다.</li> <li>3. 이 세 개의 보조동사의 유사한 의미를 변별하여 상황에 맞게 특정 표현을 사용한다.</li> </ol>

민현식(2004)에서 학습자의 동기, 학습 순서 등에 대한 요구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목적을 설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한국어의 완료상 보조동사 ‘버리다’, ‘내다’, ‘말다’는 공통적으로 ‘완료’라는 상적인 의미를 가지지만 동작의 완료됨에 대한 주어나 화자의 심리적인 다른 태도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므로 우선 이 세 개의 보조동사 각자의 의미 및 통사적 결합 관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유사한 의미의 비교나 상황을 파악하여 올바르게 사용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즉, 보조동사로서의 ‘버리다’, ‘내다’, ‘말다’가 포함된 문형들의 상적인 의미, 양태적인 의미 그리고 통사적인 특성에 대한 잘 습득해야 한다는 것을 한국어 완료상 보

조동사의 1차적인 목표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3장에서 중국인 학습자가 완료상 보조동사를 사용할 때 만들어 내는 오류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많은 학습자가 ‘버리다’, ‘내다’, ‘말다’가 기본적으로 ‘동작의 완료’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지만 세부적이고 심층적인 의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그들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구별하지 못하므로 의미적으로나 통사적으로 오류를 많이 범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완료상 보조동사의 의미를 파악하여 차이점을 인식하기에 앞서 먼저 개별 보조동사의 기본 상적 의미, 양태적 의미 및 결합 관계를 이해하고 습득한 다음에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이들의 차이를 구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 2. 완료상 보조동사의 교수·학습 내용

완료상 보조동사 ‘버리다’, ‘내다’, ‘말다’는 공통적으로 완료의 상적 의미를 바탕으로 다양한 양태적인 의미 기능이 있다. 이 세 개의 보조동사는 다양한 의미와 통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미적이거나 통사적으로 유사한 점도 있으며 학습자에게 혼란을 많이 일으키고 있다. 교수 학습 실태 조사의 결과에 따라 교사의 설명과 학습자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교재는 보조동사로서의 ‘버리다’, ‘내다’, ‘말다’의 주된 상적 ‘완료’라는 의미를 공통적으로 제시하지만 다양한 양태적인 의미를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III장에서의 학습자의 인식 양상 및 학습 양상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학습자가 이러한 수업 시간에 배운 보조동사 ‘버리다’, ‘내다’, ‘말다’의 다양한 의미 기능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하며 한 보조동사의 부분적인 의미와 용법만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 학습자가 유사한 의미 기능을 구별해서 사용하는 방법까지 알지 못해 실제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보조동사의 사용을 회피하고 대신에 더욱 익숙한 표현인 부사나 시제 표현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서로 의미를 혼동하여 상황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버리다’, ‘내다’와 ‘말다’의 다양한 양태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별 보조동사의 의미와 용법 학습 및 보조동사 간 유사한 의미의 구별 학습 내용을 구성하고자 한다. 내용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II장에서 살펴본 ‘버리다’, ‘내다’, ‘말다’의 의미 및 통사적인 제약과 III장에서 제시한 학습자들이 한국어 완료상 보조동

사를 사용할 때 자주 범하는 오류 양상을 종합해서 이를 바탕으로 교육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 2.1. 완료상 보조동사 제시 순서

교수 학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앞 절에서 교육 목표를 설정했는데 이 절에서는 교수 학습 내용을 구축할 것이다. 교육 내용을 선정할 때 몇 가지의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최은규(2013)에 따르면 문법 항목의 사용빈도, 난이도, 활용도 등 요소들이 교육용 문법을 선정하고 배열하는 기준으로 작용하는데 그중에 빈도와 난이도는 선정 및 배열의 주요 기준이라고 지적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듯이 국립국어원의 국어 사용빈도 조사2에 따라 보조동사로서의 버리다(124위), 말다(129위), 내다(180위)는 각자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사용 빈도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버리다’의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이다. 또한 <국제통용 한국어교육의 표준 모형 2단계 문형 부록>에 따라 ‘버리다’와 ‘말다’는 중급 문형 목록에 속하고 ‘내다’는 고급 목록에 속한다. 이런 것들이 완료상 보조동사의 교육 내용을 선정할 때 문형의 배열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교재 분석을 통해 중국에서 널리 사용하는 교재에서 완료상 보조동사가 제시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는데 교재마다 각 보조동사의 배열 순서를 다시 정리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게다가 한국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의 교재에서 문형의 배열 양상도 같이 정리했다.

<표 35> 중국 교재에서 완료상 보조동사의 제시 순서

교재 \ 보조동사	한국어 <韓國語>	표준한국어 <標準韓國語>	한국어교정 <韓國語教程>
버리다	3권 8과	4권 41과	
내다	2권 13과	4권 42과	3권 16과
말다	2권 12과	3권 35과	
-있을 뿐... -고 말다		5권 60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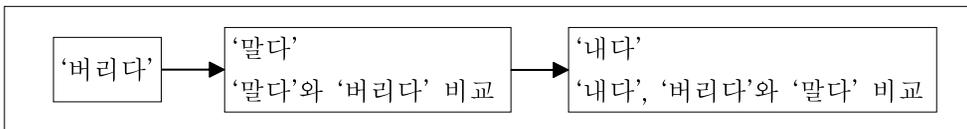
<표 36> 한국 교재에서 완료상 보조동사의 제시 순서

교재 보조동사	서울대	연세대	이대	서강대	경희대
버리다	2-33	3-2-7	3-7	4B-5	중2-4
내다	5B-9		5-4	5B-3	고2-4
말다		4-2-5			중2-7
-고 말겠다			4-13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거의 모든 한국의 한국어 교재에서 버리다가 가장 먼저 나오고 ‘버리다-말다-내다’와 같은 수서로 문형이 배열되어 있는 것과 달리 중국에서 사용하는 교재에서 ‘말다’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경향이 있고 ‘버리다’와 ‘내다’가 그 뒤에 따른다. 문형의 사용 빈도와 난이도에 따라 문형을 배열하는 한국의 한국어 교재와 달리 중국의 한국어 교재는 문형 제시하는 순서에 있어 약간 혼상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모든 교재에서 각 보조동사 나오는 시기 간의 간격이 길어서 학습자가 뒤에 나오는 문형을 학습할 때 최초에 배운 완료상 보조동사에 대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문형의 사용 빈도와 난이도의 기준의 따라 ‘버리다-말다-내다’의 순서로 학습자들에게 완료상 보조동사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교육 내용은 개별 보조동사의 교수와 2개나 2개 이상의 완료상 보조동사의 비교하는 부분 두 단계로 구성되고자 한다. 완료상 보조동사의 제시 순서 및 교육 단계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다.

<그림 2> 한국어 완료상 보조동사의 제시 순서



## 2.2. 개별 보조동사의 의미 및 통사적 교육 내용 구성

학습자들로 하여금 ‘버리다’, ‘내다’, ‘말다’의 다양한 의미 및 통사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개별 보조동사의 의미·통사적 특징을 이해시키는 것을 선행해야 한다. III장에서 중국인 학습자가 ‘버리다’, ‘내다’, ‘말다’를 인식하여 사용할 때 자주 범하는 오류의 원인을 살펴본 결과에 따라 학습자가

‘버리다’, ‘내다’, ‘말다’의 다양한 양태적인 의미를 잘 알지 못하거나 보조동사에 결합하는 선행 동사나 주어 부사어 등과의 공기 관계에 대한 인식 부족 등 이유로 오류가 많이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중국인 학습자가 보조동사를 잘 습득하려면 보조동사의 주된 상적인 의미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화자의 심리 태도도 함께 파악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조동사의 형태적, 통사적인 제약도 잘 알아야 정확하게 상황에 맞게 보조동사를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학습자에게 완료상 보조동사로서의 ‘버리다’, ‘내다’, ‘말다’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능력을 키워 주려면 ‘버리다’, ‘내다’, ‘말다’의 의미 및 용법을 제시하는데 보조동사의 양태적인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각각의 통사적인 제약도 같이 설명해 주어야 한다. ‘버리다’, ‘말다’, ‘내다’의 다양한 양태적인 의미와 학습자의 오류 양상을 고려하며 ‘버리다’, ‘내다’, ‘말다’의 교수·학습 내용을 설정하는 데에 보조동사의 상적 의미와 양태적 의미, 그리고 완료상 보조동사에 결합하는 선행어와 문장 다른 성분의 통사적 호응 관계를 함께 고려해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서 ‘버리다’, ‘내다’, ‘말다’의 교수·학습 내용을 각 보조동사별로 의미·통사적 특징에 따라 정리하였다.

<표 37> ‘버리다’ 교육 내용 구성

보조 동사	버리다
사전적 의미	「보조동사」 (동사 뒤에서 ‘-어 버리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나타내는 행동이 이미 끝났음을 나타내는 말. 그 행동이 이루어진 결과, 말하는 이가 아쉬운 감정을 갖게 되었거나 또는 반대로 부담을 덜게 되었음을 나타낼 때 쓴다.
상적 의미	어떤 행위를 완전히 끝냄을 나타내는 표현. 예문: a. 지난 일은 다 <u>잊어버리고</u> 새로 시작합시다. b. 기차는 이미 <u>도착해 버렸다</u> . c. 창문을 잘 닫았는데 다시 <u>열려 버렸어</u> .
양태적 의미	1. 아쉬움, 아까움, 기대에 어긋남, 후회 예문: a.가: 이제 옷을 다 샀으니 영화 보러 갈까?

	<p>나: 미안. 난 영화를 못 볼 것 같아.  가: 아까 영화 보고 싶다고 했잖아?  나: 돈을 다 <u>써 버려서</u> 영화 볼 돈이 없어.  b. 아까 산 거울이 깨져 버려서 정말 짜증이 났다.</p> <p>2. 상황 맥락에 따라 화자의 시원함을 나타낼 수 있다.  a. 밀렸던 빨래를 다 해 버리니 기분이 좋았다.</p> <p>보통 ‘버리다’로 나타낸 양태적 의미, 즉 화자의 심리 태도는 주로 후행절을 통해 나타낸다.</p>
<p>통사적  결합  관계</p>	<p>선행어: ‘변화’/동작동사/ 형용사와의 결합이 제약된다  부사어: 보통 ‘아직, 여태, 조금, 약간’과 결합이 부자연스럽지만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  부정: 짧은 부정, 긴 부정  선어말어미 위치: 보조동사 결합</p>
<p>중국어  대응  표현</p>	<p>결과보어 ‘掉, 光, 完’과 비교  a. 한국에 유학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돈을 다 <u>써 버렸다</u>.  来韩国留学不长时间, 钱都花光了.  b. 책의 내용이 너무 재미있어서 하루 만에 다 <u>읽어 버렸다</u>.  书的内容太有意思了, 所以一天就<u>读完了</u>.</p>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완료상 보조동사의 제시 순서는 ‘버리다-내다-말다’이다. ‘말다’는 의미적으로 ‘버리다’와 겹치는 부분도 있고 각각 두드러진 특성도 지니므로 ‘말다’의 교육 내용의 설정에서 ‘말다’와 관련된 내용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전에 교수하면 ‘버리다’와 비교하는 부분도 추가된다. 이 부분은 학습자가 두 표현 간의 차이점을 인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전에 배운 내용에 대한 기억을 강화시킬 수 있고 완료상 보조동사 체계에 대한 개념을 수립하게 할 수도 있다. 더불어 ‘말다’의 ‘정상적인 상황에 일탈한 동작의 종결’이라는 의미도 교육 내용으로 포함시킨다. 이는 일부 학습자들에게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으나 고급 학습자라서 보조동사에 대한 국어학적인 정의나 특성에 대한 지식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학습자들이 ‘말다’와 ‘버리다’를 비교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대략적인 말다의 교육 내용 구성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8> ‘말다’ 교육 내용 구성

보조 동사	말다
사전적 의미	「보조동사」 (동사 ‘-고(야) 말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 끝내 실현됨을 나타내는 말. 일을 이루어 낸 데 대하여 긍정적인 생각 또는 부정적이고 아쉬운 느낌이 있음을 나타낸다.
상적 의미	어떤 행위를 완전히 끝냄을 나타내는 표현. 일을 끝냈다는 완료의 의미를 나타내는 ‘-고 말다’는 주로 과거를 나타내는 ‘-았-’이 붙어 ‘-고 말았다’의 형태로 쓴다.
양태적 의미	1.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어떤 일이 끝내 일어났음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그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나타낼 때 쓴다. 예문: a.가: 어제 몇 시까지 공부했어요? 나: 어제 피곤해서 일찍 잤어요. 가: 저도 어제 너무 피곤해서 9시에 자고 말았어요 나: 우리 오늘부터는 시험공부를 열심히 합시다. b. 늦잠을 자는 바람에 중요한 행사에 지각하고 말았어요.  2. 이루기 쉽지 않은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나타낼 때 쓴다. a. 이번 올림픽에서 반드시 금메달을 따고 말겠습니다. b. 열심히 돈을 모아서 내년에는 꼭 유럽으로 여행 가고 말거야.  3. ‘정상적인 상황에 이탈’  4. ‘버리다’와 비교

	<p>a. 아쉬움이나 후회 등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어 버리다’와 ‘-고 말다’를 대부분의 경우에 바꿔 쓸 수 있다. 예: 차가 막히는 바람에 기차를 놓쳐 버렸어/놓치고 말았어.</p> <p>b. 부담을 덜게 되어 시원한 감정을 나타낼 때는 ‘-어 버리다’를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예: 그동안 하고 싶었는데 못 했던 이야기를 해버리니까/*하고 마니까 시원해요.</p> <p>c. ‘-겠-’과 결합되어 의지를 표현할 때 ‘-어 버리다’는 해당 사태가 사실 관계와는 상관없이 마치 화자가 마음만 먹으면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는 듯이 가정하는 태도로 말할 때 쓴다.</p>
통사적 결합 관계	<p>선행어: 동작동사/ 형용사와의 결합이 제약된다. 부사어: 아직, 여태(X) 부정: 짧은 부정 선어말어미 위치: 보조동사 결합; 선행 용언과 결합할 때 ‘-었-’, ‘-겠-’, ‘-시-’가 개재되기 어렵다. ‘-겠-’과 결합할 때 주어는 반드시 1인칭</p>
중국어 대응 표현	<p>부사어 ‘終於, 最終, 一定要’등과 대응하거나 대응 표현이 없 이 실현되기도 한다. 그는 끝내 떠나고 말았다. 他终于离开了</p>

마지막으로 ‘내다’에 대한 교육 내용 구성이다. ‘말다’와 마찬가지로 ‘내다’의 의미를 교수한 다음에 ‘버리다’와 ‘말다’에 대한 언급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 단계는 개별 보조동사 교수·학습 단계이므로 깊이 보조동사간의 차이점을 다룰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완료상 보조동사 체계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게 하고 보조동사의 차이점에 대한 일정한 지식을 갖추게 하고 일상대화에서 완료상 보조동사를 사용하거나 볼 때 각각의 사용법과 차이점을 유의하게 하기 위해서 설계하는 단계이다. 구체적인 보조동사간의 유사한 의미에 근거한 통합적인 교육 내용이 후절에서 따로 다루겠다.

<표 39> '내다' 교육 내용 구성

보조 동사	내다
사전적 의미	「보조동사」 (동사 뒤에서 '-어 내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 스스로의 힘으로 끝내 이루어짐을 나타내는 말. 주로 그 행동이 힘든 과정임을 보일 때 쓴다.
상적 의미	어떤 행위를 완전히 끝냄을 나타내는 표현.
양태적 의미	1. 주로 이루기 어려운 일을 끈질긴 노력으로 이룬 것이라는 화자의 생각과 관련된다. 따라서 노력을 통하지 않고 얻은 성과에 대해서는 쓰기 어렵다. 예: a. 가: 결국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내다니 정말 대단해요. 나: 제가 고집이 좀 센 편이에요. b. *나는 복권 당첨금을 받아 냈다.  2. 또한 '받다'와 같은 동사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자칫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지나치게 조르거나 우겨서 억지로 받는 일을 나타낼 수 있다. 나는 (선생님을 졸라서 억지로) 장학금을 받아 냈다.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아 냈다.  '버리다'와 비교 '-어 버리다'는 해당 사태가 사실 관계와는 상관없이 마치 화자가 마음만 먹으면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는 듯이 가정하는 태도로 말할 때 쓴다. 우리 선수단은 이번에도 손쉽게 금메달을 따 버렸다. 우리 선수단은 어려운 족수를 물리치고 마침내 금메달을 따 냈다.
통사적 결합	선행어: 의지/타동사 부사어: 아직, 여태, 조금, 약간(X)

관계	노력 끝에 얻은 성취를 나타내므로 ‘마침내’, ‘결국’ 등의 부사와 잘 어울린다. 부정: 짧은 부정, 긴 부정 주어: 유정명사 선어말어미 위치: 보조동사 결합
중국어 대응 표현	결과보어 ‘成, 好, 完’등과 대응

위 표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버리다’, ‘내다’, ‘말다’의 의미와 용법 및 이 세 표현에 결합할 수 있는 선행어, 부사어, 선어말어미 등 문장 성분에 대해서 모두 기술하였다. 교사가 이와 같은 완료상 보조동사 각자의 상적인 의미부터, 양태적 의미와 통사적인 제약을 모두 포함하여 교수하면 학습자가 ‘버리다’, ‘내다’, ‘말다’의 양태적인 의미를 더 쉽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데도 통사적인 제약을 고려하며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의 오류 양상에 있어 중국어의 대응 표현에 영향을 받아 보조동사의 사용에 회피 현상이 일어난다. 이는 많은 교사가 완료상 보조동사에 대해서는 항상 중국어의 특정 표현을 대응하여 교수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대응 방식이 보조동사의 부분적인 의미만 설명할 수 있고 학습자가 보조동사에 대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므로 실제 상황에서 활용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보다 쉬운 표현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적절하게 중국어의 대응 표현을 사용하면 학습자들로 하여금 보조동사의 의미를 쉽게 이해하게 할 수 있으나 지나치게 중국어의 대응표현에 의존하면 안 되고 그 선을 넘어 상황에 따라 보조동사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어야 한다. 그러므로 일정한 중국어의 대응 표현을 교육 내용으로 삽입하지만 중국어 표현과 한국어 표현의 잘 대응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이 둘 간에 차이점에 대한 인식도 강화시킬 것이다. 게다가 보조동사의 특정 양태적인 의미를 설명할 때 그 의미를 산출할 수 있는 적당 맥락도 같이 제시해야 한다.

위에 제시하는 ‘버리다’, ‘내다’, ‘말다’의 교수·학습 내용은 항상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융통성이 있는 것이다. 즉, 보조동사의 양태적 의미, 사용하는 맥락, 학습

자의 수준, 요구 등 사항에 따라 교육의 내용 및 초점도 달라질 수 있다. 실제적으로 교수 활동을 진행할 때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유의 사항이 있다.

첫째, 학습자의 인식·습득 양상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학습자는 ‘버리다’, ‘내다’, ‘말다’의 다양한 양태적 의미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지 못하고 있으며 유사한 의미를 구별하지 못해 혼동하여 대치 오류를 자주 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습자가 보조동사의 양태적인 의미에 대한 지식이 결여되어 실제 상황에서 보조동사의 사용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에게 완료상 보조동사로서의 ‘버리다’, ‘내다’, ‘말다’의 다양한 양태적인 의미 및 주로 사용 상황적 맥락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인식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완료상 보조동사를 가르칠 때 교사가 이번 수업 시간에 교수 내용과 전에 가르친 내용을 비교하여 교수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가 최대한 많은 입력을 받고 유사한 의미를 지닌 완료상 보조동사의 비교 작업을 빈번하게 하므로 각 보조동사의 주로 사용 맥락과 완료상 보조동사 간에 차이점에 대한 인식이 깊어질 수 있다. 또한 보조동사의 사용 맥락을 수업 시간에만 제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후 연습이나 다른 형식인 교육을 통해 학습자에게 보조동사의 사용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학습자로 하여금 완료상 보조동사의 다양한 양태적인 의미와 통사적 제약을 내재화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둘째, 완료상 보조동사 ‘버리다’, ‘내다’, ‘말다’의 다양한 양태적인 의미는 결합하는 선행 동사나 부사어, 주어 등에 양형을 주며 이들 간에 깊은 관계가 있다. 2차 학습자 학습 양상 조사 중에 통사적인 제약에 대한 습득 양상 조사의 결과에 따라 학습자가 세 개의 완료상 보조동사에 결합하는 다양한 요소의 관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므로 시제나 준대 선어말 어미 그리고 선행동사와 결합하는 데에 오류를 많이 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사적인 특징에 대한 교육은 학습자가 완료상 보조동사의 다양한 의미를 학습한 기초에서 나아가 진행해야 한다. 보조동사 자체의 의미는 통사적인 제약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통사적인 제약의 교육은 양태적인 의미의 교육 내용과 함께 다양한 맥락과 상황을 통해 통사적 특성을 보여주고 학습자로 하여금 완료상 보조동사의 다양한 의미와 용법을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완료상 보조동사 ‘버리다’, ‘내다’, ‘말다’를 가르칠 때 이들의 의미와 용법을 중국어의 결과보어 ‘掉’, ‘光’나 부사 ‘終於’와 대응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II장에서 보조동사와 중국어의 대응 관계는 크게 3 가지 유형으로 나누

어 봤는데 이는 보조동사와 중국어의 대응 표현의 간에 복잡한 대응 양상을 보이므로 꼭 어떤 것이 어느 특정한 구조와 완전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대응 표현의 영향으로 인해 중국인 학습자가 보조동사의 의미를 구별하고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데 오류가 많이 나타났다. 또한 중국어에 대응하는 표현이 없는 경우에 보조동사의 사용을 회피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난 것도 확인할 수 있다. 보조동사 ‘버리다’, ‘내다’와 ‘말다’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을 잘 선정하여 정리하고 한국어의 완료상 보조동사와 비교나 대조를 제대로 해야 중국인 학습자의 보조동사 학습에 긍정적인 전이를 줄 수 있다.

### 2.3. 보조동사 간 유사한 의미 비교에 근거한 통합적 교육 내용

김재욱(2009)에서 “한국어 문법교육의 초급 단계에서는 문법 형태의 의미와 기능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고, 고급 단계로 갈수록 문법 체계 습득을 목표로 하여 복합 구성 표현, 유사 문법 표현 차이 구별 등이 교육 내용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방성원(2003)에서도 역시 고급 단계의 문법 교육에 있어 유사 문법에 대한 비교와 대조, 그리고 문법 체계 이해를 통한 절차적 지식 습득 등의 내용 구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완료상 보조동사에 대한 교육은 개별 보조동사의 양태적인 의미와 통사적인 제약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문법 항목 간 비교 대조를 바탕으로 그 의미상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학습자들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III장의 학습자 습득 양상 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듯, 중국인 학습자는 완료상 보조동사 간의 의미 차이를 쉽게 구별하지 못해, 이들을 혼용하는 오류를 자주 범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교재 분석 결과, 현재 중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교재는 완료상 보조동사를 제시하는 데 있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유사한 문형을 비교·대조하는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이 주요한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보조동사 ‘버리다’, ‘내다’, ‘말다’의 의미 차이는 각 보조동사의 양태적인 의미 특성과 관련이 있는데, 이는 각 보조동사가 사용되는 통사적인 맥락에 영향을 받으며, 상황 맥락에 따라 상호 교체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때문에 학습자에게 ‘버리다’, ‘내다’, ‘말다’를 교수할 때는 이 세 개의 보조동사 간의 의미상 유사성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각 표현이 자주 사용되는 실제 맥락을 제시해줌으로써 서로

교체 사용이 가능한 상황과 불가능한 상황을 보여주고, 나아가 학습자들로 하여금 보조동사 간의 차이를 깊이 인식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II장에서 세 보조동사의 의미에 대해 비교 분석한 결과를 교육 내용으로 재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0> 통합적인 교육 내용 예시

목표 문형	의미 기능 비교 및 예문
-고 말다	1) 어떤 일이 결국 일어났음을 나타내는데, 주로 말하는 사람이 원하지 않거나 기대하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낸다.  예: 서두르다가 실수를 하고 말았다. 서두르다가 실수를 해 버렸다.
-어 버리다	2) 그러나 화자의 시원함, 후련함을 드러낼 때는 주로 ‘버리다’를 사용한다.  예: 한 달 동안 돈을 모아서 사고 싶던 가방을 사 버렸어요./*사고 말았어요.  3) 고의적으로 한 일에는 ‘-아/어 버리다’를 자주 쓰는 반면, 자신도 모르게 벌어진 일에는 주로 ‘-고 말다’를 사용한다.  예: 화가 나서 일부러 소리를 질러 버렸어요./*지르고 말았어요.
-어 버리다	‘-어 버리다’는 동작의 변화를 나타내므로, 동사로도 쓰일 수 있는 일부 형용사와 결합이 가능하다. 그러나 ‘내다’는 이러한 형용사와 결합이 불가능하다.
-어 내다	
보조동사 연	‘내다’는 좀 더 강한 표현을 하기 위하여, 다른 보조동사

속	‘-고 말다’, ‘-어 버리다’와 결합하여 쓰기도 한다.  예: 그들은 결국 상대 팀을 이겨 내고 말 것이다.
---	---------------------------------------------------------------------

이 중 ‘버리다’와 ‘말다’의 비교를 예로 삼아, 구체적인 교육 내용 제시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버리다’와 ‘말다’는 공통적으로 완료라는 상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어떤 일이 결국 일어났음을 나타낼 수 있는데, 주로 화자가 원하지 않거나 기대하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낼 때에는 교체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학습자의 습득 양상 조사 결과, 이렇듯 교체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 대다수의 학습자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특정 상황에 적절한 표현은 하나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학습자가 많았다. 그러므로 이를 교수할 때에는 ‘버리다’와 ‘말다’ 각각의 양태적인 의미를 가르친 후, 두 문형을 비교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위 표에서도 내용 설명과 그에 적절한 예문을 함께 제시하였듯, 의미상의 유사점을 교수할 때에는 단순히 설명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상황까지 함께 제시해 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한편 이처럼 문형 간 교체 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해도, 두 문형은 완전히 동일한 것이 아니라 미묘한 차이도 있고, 근본적으로 다른 용법도 있다는 것을 학습자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두 문형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인식을 고루 갖추으로써, 기존에 학습한 ‘버리다’, ‘말다’ 각각의 양태적인 의미에 대한 지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통사적인 제약에 대한 교육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완료상 보조동사의 양태적인 의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보조동사마다 어떤 단어를 선행어로 삼을 수 있는지 판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형용사는 선행어의 자리에 올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되, 형용사와 동사에 품사 통용되는 예인 ‘크다’, ‘밝다’ 등의 단어는 예외적으로 보조동사 ‘버리다’의 선행어로 올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결합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렇듯 품사 통용되는 단어들은 동작의 변화상을 보여 주므로, ‘버리다’의 선행어로는 올 수 있지만 ‘내다’와의 결합은 제약된다. 이러한 제약을 학습자에게 잘 설명해 주어야 학습자가 과잉 적용 현상을 보이지 않고 각 문형들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완료상 보조동사들의 상적, 양태적, 통사적 특징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이

마무리되면, 보조동사의 반복과 연속 현상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좋다. 보조동사의 반복 사용 현상은 출현 빈도가 높지 않으므로 학습자들이 이러한 구성을 적극적으로 생산하도록 유도할 필요는 없으나, 이러한 표현 방식에 대해 인식하게끔 할 필요는 있다. 위 표의 관련 부분에서 제시한 예문 중, ‘이겨 내고 말 것이다’는 ‘-어 내다’와 ‘-고 말다’의 결합을 통해 동작의 완료의 의미를 더욱 강조한다. 이는 핵심적인 교육 내용은 아니지만, 완료상 보조동사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상의 교육 내용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개별 보조동사의 의미를 온전히 파악하게끔 해 줄 수 있다. 특히 각 보조동사의 의미 및 용법을 통합적으로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은 기존에 배운 내용을 강화함과 동시에 보조동사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3. 완료상 보조동사의 교수 방법

앞 절에서 완료상 보조동사의 효과적인 교육을 위한 교육 내용을 정리하였다. 이 절에서는 이렇게 선정된 교육 내용을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교수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가 완료상 보조동사 ‘버리다’, ‘내다’, ‘말다’의 다양한 상적인 의미와 양태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세 보조동사의 의미상 유사점과 차이점을 인식하고 구별하여, 이들을 상황 맥락에 따라 정확하고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어의 완료상 보조동사는 기본적으로 완료라는 상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양태적 의미와 통사적인 특성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인 학습자는 ‘버리다’, ‘내다’, ‘말다’의 상적인 의미를 잘 알고 있음에도 완료상 보조동사의 다양한 양태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고, 유사한 의미를 지닌 보조동사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며, 통사적인 제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보조동사를 정확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오류를 범하기가 쉽다. 때문에 보조동사 ‘버리다’, ‘내다’, ‘말다’의 교수·학습은 각 보조동사의 의미 이해와 사용, 그리고 통사적인 제약 등도 고려해야 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을 넘어, 보조동사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구별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조사 결과를 통해 대부분 중국인 학습자가 완료상 보조동사에 대한 배운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동사에 대한 인식이 아주 부족하다. 사후 인터뷰 및 교수·학습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이러한 현상은 교재의 문제와 교사의 교수 방식 문제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교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앞 절에서 이미 다시 교육 내용을 구안하였다. 교사의 교수 방식에 있어 주로 교사의 설명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 즉 교사의 설명이 간단하여 학습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입력이 부족하고, 또한 교사의 설명이 주로 교재에서 나온 예시대로 진행하여 완료상 보조동사가 주로 쓰이는 맥락이나 문맥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현행의 교수 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학습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입력이 부족하고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우선 학습자들에게 보조동사에 대한 최대한 많은 입력을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형태 초점 접근법에 자주 쓰이는 입력 강화 기법 및 문법 의식 고양 과제는 입력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더불어 입력이 적절해야 한다. 문장이나 단순한 문법의 의미에 대한 설명이 효과적인 입력이 아닐 수도 있고, 완료상 보조동사의 주로 사용하는 맥락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그러므로 목표 문형의 사용 맥락을 중요시하는 문맥 중심 교수법이 이에 적합한 방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형태 초점 접근법과 문맥 중심 교수법을 활용하여 입력이 필요한 단계, 특히 개별 보조동사를 교수하는 단계에 형태 초점 접근법을 주로 사용하고, 보조동사의 사용 맥락 정보를 제공할 때, 특히 보조동사간의 차이를 비교하는 단계에 주로 문맥 중심 교수법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완료상 보조동사에 대한 효과적인 교수 학습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3.1. 형태 초점 접근법

최근에 들어 외국어교육에서 교수법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고 한국에서의 외국어교육 현장을 보면 다양한 교수법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중국 대학교에서 한국어 교수에 사용해 온 주요 교수법은 문법식 교수법, 청각구두식 교수법 등이다. 의사소통식 교수법, 통합식 교수법에 대한 논의는 점점 많아지고 있으나 크게 주목을 받고 있지 않는 현황이다 중국대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역시 교사가 주도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중국의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역할이 더욱 부각된다.

때문에 한국어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인 문법 교육 역시 교사의 수준에 따라 교육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학습자가 고급 단계에 올라갈수록 목표 문형에 대한 교사의 설명이 더욱 간단해지므로, 고급 학습자가 수업 시간에 새로운 문형에 대해 얻을 수 있는 지식은 점점 줄어든다. 또한 교사가 주도하는 방식의 교수-학습 활동은 학습자의 동기 부여에도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 내의 한국어교육 현황과는 달리, 최근의 외국어 교육 학계에서는 문법에 관심을 기울이는 의사소통식 언어 교수(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CLT)와 형태 초점 접근법(focus on form)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의사소통 위주로 하는 교육은 학습자의 오류 표현이 화석화(fossilization), 안정화(stabilization) 될 우려가 있어, 언어 표현의 정확성 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또한 최근의 언어 교육은 상호작용을 강조함으로써 의사소통적 교수 활동을 지나치게 중시하여 문법 등과 관련 요소들은 간과하는 현상이 종종 일어난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롱(Long, 1998)은 형태 초점 접근법(focus on form)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특정 의사소통 상황에서 적절한 언어 사용과 해당 문맥 내의 문법 형태에 대한 교수-학습을 결합하는 접근법이다. 즉, 형태 초점 접근법은 언어 학습에서 언어의 형태, 의미, 기능에 모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유창성과 정확성을 모두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라센 프리먼(Larsen-Freeman, 2003)에서는 언어 교육에서 문법을 형태(form)와 의미(meaning), 그리고 사용(use)의 3가지 차원으로 파악하였다. 형태 초점 접근법은 형태만을 중시하는 교수 방법과, 의사소통만을 강조하는 교수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여, 문맥의 의미를 강조함과 동시에 형태의 정확성도 중시하여 완전한 의사소통을 하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문법의 형태와 의미를 고루 적절하게 알고 사용하게끔 할 수 있다.

II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완료상 보조동사 ‘버리다’, ‘내다’, ‘말다’는 완료상의 의미를 기초로 하여 여러 가지의 양태적 의미를 표현할 수 있으며, 통사적 제약도 다양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법 항목을 가르치는 데에는 형태 초점 접근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기대된다. 우형식(2012)에서는 시제나 양태 범주의 표현에서와 같이, 한국어 의사소통에서 사용빈도가 높고 기능 부담량이 크면서도 사용되는 환경과 실현 의미가 유사하여 학습에서 혼돈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 문법 형태들에 형태 초점 접근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

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어 완료상 보조동사 ‘버리다’, ‘내다’, ‘말다’는 유사한 의미 기능으로 인하여 학습자에게 혼동을 일으키는 항목이므로, 이들의 정확한 사용을 위해서는 형태와 의미를 모두 고려할 수 있는 형태 초점 접근법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우티와 윌리엄스(Doughty & Williams, 1998)에서는 형태 초점 접근법의 주요 기법을 총 11개 제시하였다. 민현식(2008)에서는 이 열한 개의 기법을 일일 열거하여 설명하였다. 이는 입력 포화(input flood), 과제 수행 필수 언어(task-essential language), 입력 강화(input enhancement), 의미 협상(negotiation), 오류 교정용 대체 표현 제시(recast), 출력 강화(output enhancement), 상호작용을 통한 강화(interaction enhancement), 창의적 받아쓰기(dictogloss), 의식 고양(consciousness raising), 입력 처리(input processing), 가든 패스(garden path)이다. 특히 이 중에 목표 문법 항목을 주목하도록 시각적으로 글자의 색깔, 크기, 모양 등을 달리하거나 청각적으로 억양을 달리하여 강조하는 방법인 ‘입력 강화’와, 문법 문제를 해결하고자 상호작용활동을 통해 언어형식에 집중하게 하는 ‘의식 고양’이 완료상 보조동사의 교육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 ‘입력 강화 기법’과 ‘의식 고양 과제’ 두 가지의 기법을 종합하여 하나의 완성된 교수 방안을 구성하고자 한다.

### 3.1.1. 입력 강화 기법

언어 습득에서 입력은 의사소통 상황이나 환경에서 학습자에게 노출된 언어의 샘플들을 말한다. 즉, 입력은 발화 장면에서 의사소통을 위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언어이다. 입력은 제2언어 습득 과정의 첫 단계에서 주어지며, 학습자가 목표 언어를 이해하고 언어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의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입력은 주로 언어적인 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교재를 통해 제시된다. 그러나 앞서 교재 분석을 통해서도 살펴보았듯, 중국 대학교의 현행 한국어교육 과정에서 보조동사 ‘버리다’, ‘내다’, ‘말다’의 의미를 가르치는 방식은 주로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으로 간단하게 설명한 뒤 몇 개의 예시만을 제시하는 것이다.

III장에서 중국인 학습자의 완료상 보조동사 습득 양상 조사 결과, 많은 학습자가 보조동사 ‘버리다’, ‘내다’, ‘말다’의 양태적인 의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통사적인 제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는 위와 같이 단순한 교재의 제시 방식으로 인해, 학습자가 보조동사 ‘버리다’, ‘내다’, ‘말다’의 기본적인 의미와 통사적 특징만을 학습하는 탓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교재의 형식적인 문제 때문에 교재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목표 문형에 대한 입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현행 교육 과정의 문제점에서 출발하여, 보조동사 ‘버리다’, ‘내다’, ‘말다’의 다양한 의미를 교수하고, 학습자들이 완료상 보조동사의 상적인 의미, 양태적인 의미 및 통사적인 특징에 주목할 수 있도록 형태초점 접근법 중 입력 강화 기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샤우드 스미스(Sharwood Smith, 1981)는 제2언어 문법 교수를 하기 위하여 ‘입력 강화’라는 개념을 소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입력 강화란 제2언어 입력에서 학습자들이 특정한 목표 문형이나 요소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그 요소들을 명시적인 방법으로 제시하는 의도적인 시도를 뜻한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입력 강화란 다양한 방식으로 목표 언어의 입력 자료들을 구성하여 학습자의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자면 입력 강화 기법에는 시각적 집중하기와 청각적 집중하기가 있다. 시각적 집중하기 방법은 목표 문법 항목의 글자 크기, 색깔, 모양 등을 조절하여 쉽게 눈에 띄게 하는 방법이고, 청각적 집중하기 방식은 억양이나 강세를 통해 목표 언어의 특정 부분을 강조하는 방법이다.

외국어 교수·학습의 가장 큰 목표는 학습자가 목표 언어를 정확하고 유창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표는 중국인 학습자가 보조동사 ‘버리다’, ‘내다’, ‘말다’의 다양한 양태적 의미와 용법을 단순히 이해하는 것을 넘어, 이를 의사소통 상황에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학습자가 ‘-어 버리다’, ‘-어 내다’, ‘-고 말다’ 구문의 다양한 의미를 적확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보조동사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여 해당 문법의 출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교수 활동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여기에서는 ‘버리다’의 시원함과 아쉬움의 의미를 예시로 구체적인 교수·학습 활동을 설계해 보고자 한다.

#### ◎활 동 1 : ‘버리다’ =[아쉬움]

단 계 1 : ‘버리다’의 ‘아쉽다’라는 양태적 의미가 포함된 대화문을 제시해 준다. ‘-어 버렸다’에 밑줄을 그어서 학습자가 목표 문형 형태에 집중하게 한다.

대화1 A: 어제 친구들은 잘 만났어?

B: 아니, 조금 늦게 갔더니 다 가 버리고 없더라고.

다들 오랫동안 못 만나서 보고 싶었는데.

A: 아쉽네.

대화2 B는 원래 머리가 길어서 예뻐는데 갑자기 머리를 자르고 왔다.

A: 너 긴 머리가 예뻐는데 어떻게 된 거니?

B: 망했지! 그냥 잘라 버렸어. 아, 진짜...

A: 그랬구나. 아쉽네.

단 계 2 : 교사가 학습자로 하여금 상황 맥락을 통해서 ‘버리다’의 의미를 추측하게 한다.

예: 교사: 여기에서 ‘버리다’는 화자의 어떤 심리 상태를 나타내고 있어요?

학생: 아쉬운 마음이에요.

교사: 왜 그렇게 생각해요?

학생: 화자가 친구를 보고 싶었는데 못 만나게 돼서 그래요.

단 계 3 : 교사는 학습자가 추측한 결과를 정리하고, 학습자에게 ‘버리다’의 ‘아쉽다/기대에 어긋남’의 의미를 명시적으로 설명해 준다. 의미를 설명할 때 ‘버리다’에 결합할 수 있는 선행 동사와 선어말어미 등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교사: 여기서 ‘버리다’는 친구가 이미 간 사실을 인정하고 그 동작이 끝났음을 강조해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 화자가 느끼는 심리를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상황을 보면 화자가 친구들이 간 것에 대해 아쉬워 하는 마음이 ‘버리다’로 잘 나타나고 있어요.

단 계 4: 반복 연습을 통하여 학습자가 목표 문법의 형태와 주로 사용하는 맥락에 집중적으로 주의하게 한다. 교사는 다음과 같은 연습 문제를 통해 ‘버리다’

의 ‘아쉽다’라는 의미를 익힐 수 있게끔 한다.

예: ‘버리다’를 사용하여 각 문장이나 대화문을 완성하세요.

1. 월급을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_\_\_\_\_.
2. 30분이 지나도 친구가 오지 않아서 그냥 \_\_\_\_\_.
3. 숙제를 끝내지 못하고 잠이 \_\_\_\_\_.

단 계 5: 짝 활동 또는 그룹 활동으로, ‘버리다’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맥락을 구성하여 짧은 대화 연습이나 소간단한 역할극을 하게 한다. 대화나 역할극이 끝난 후 ‘버리다’의 습득 양상에 대해서 적절하게 평가를 해 준다.

A는 드디어 기말 리포트를 완성해 냈다. 오랫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과 술자리에 와 있다. 친구들끼리 하는 대화 만들기. (2분 대화 만들기 + 3그룹 제시)

이상으로 입력 강화 기법을 활용한 수업 단계를 간단하게 제시해 보았다. 이 기법을 사용할 때에는 적절하고 다양한 입력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교수 학습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 3.1.2. 문법 의식 교양 과제

‘의식 교양’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 누군가의 의식을 높여 준다는 것을 가리킨다. 의식 교양 과제는 형태에 초점 맞춘 과제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목표 언어의 특정한 언어 규칙에 대해 심층적인 이해에 도달하도록 하는 교수 활동이다. 엘리스(Ellis, 1997)에 따르면 의식 교양 과제란 학습자가 일정한 과제를 토대로 어떤 학습 활동을 수행하는 교육활동인데, 여기서 설정한 과제의 목적은 목표 언어의 어떤 특징이나 규칙을 명시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의식 교양 과제의 주된 논제는 문법이고, 이는 문법의 귀납적인 교수와 관련이 있다. 교사는 학습자의 수준에 맞추어 목표 언어 형태에 관련된 적절한 과제를 구성하여 학습자에게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목표 문형의 규칙이나 제약을 추론하는 귀납적 교수 활동을 할 수 있다. 완료상 보조동사 ‘버리다’, ‘내다’, ‘말다’는 상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다양한 양태적인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데, 학습자들은 이들 간의 차이점을 구별하지 못해 혼동하기가 쉽다. 완료상 보조동사 각각의 의

미를 습득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유사한 의미를 구별하여 상황에 맞게 보조동사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어렵고 중요하다. 학습자가 보조동사 간의 차이를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교사의 설명에만 의존하는 방식보다는, 다양한 맥락에서 스스로 그 상황에 가장 맞는 표현을 선택하고 실제적인 사용 맥락을 인식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다시 말해, 학습자가 의식 고양 과제에 대해 나름의 귀납적 추론을 사용하여, 각 보조동사의 의미 특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다. 이러한 의식 고양 과제를 활용하여, ‘버리다’, ‘내다’, ‘말다’의 양태적 의미 차이에 관한 교수·학습 활동의 예시를 제시하고자 한다.

◎활 동 2 : 상황에 맞게 보조동사 사용하기

학생들에 대한 지시 사항: 학생들은 그룹별로 각 완료상 보조동사가 주로 사용되는 상황 맥락과 그들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다. 그리고 이 세 개의 완료상 보조동사가 쓰이는 문장이나 대화를 읽고 이 문장이 정문인지 비문인지 판단한다. 그리고 나서 팀 구성원들과 상의하여 각 문장이 비문이라고 판단을 내리면, 이것이 왜 틀린 혹은 맞는 표현인지 생각하면서 이 상황에서의 보조동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한다. 팀 구성원들의 답을 통일하고, 팀별로 한 명의 대표를 뽑아 본인 팀의 학습 성과에 대해서 발표한다. 문장은 다음과 같다.

1. 귀찮은 일일수록 미루지 말고 빨리 (끝내 버리세요).
  2. 내가 남겨 둔 빵을 동생이 (먹어 버렸어요).
  3. 너무 놀라서 커피를 (쏟고 말았다).
  4. 다음 경기에서는 꼭 (우승하고야 말겠습니다).
  5.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밝혀 낼) 것이다.
- .....

### 3.2. 문맥 중심 교수법

교수·학습 실태에 대한 3차 조사 결과, 많은 학습자가 실제적인 상황 맥락에서

의 문법 항목들의 특징 및 차이점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많은 중국인 학습자들은 각각의 보조동사의 사용 맥락을 정확히 알지 못하며, 이들 간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해 많은 오류를 범한다. 따라서 교수 학습 방법을 모색할 때 상적인 의미, 양태적인 의미 및 통사적인 결합 제약 관계 등 다양한 차원에서 교육 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 현지의 교과서에서 보조동사에 관한 교육이 의미 전달 단계에만 그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효과적인 보조동사에 관한 교육 방법은 더욱 절실하다.

앞 절에서 형태 초점 접근법 중 입력 강화 기법과 문법 의식 고양 과제를 통한 교수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그러나 보조동사의 양태적인 의미는 그것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아니라, 상황 맥락에 의존하여 나타난다.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인 입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각 보조동사의 적절한 사용 맥락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특히 의식 고양 과제에는 이 과제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 즉 학습자가 목표 문형의 규칙을 발견하여 그 의미를 추론할 수 있게 하려면, 보조동사가 쓰이는 문맥도 적절하게 제시해야만 한다.

이유경(2009)에서는 문맥 내에 존재하는 정보를 이용하여 목표 문형의 의미를 추론하는 방법을 문맥 중심 교수법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문맥에서 관련된 정보를 찾아 이를 학습자의 어휘 지식 및 경험과 관련지어 의미를 추론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학습자로 하여금 스스로 목표 문형의 의미를 추론하고 학습하게끔 만든다.

넬슨 허버(Nelson-Herber, 1986)에서도 문맥 중심 교수법의 유용성을 인정하였는데, 새로운 어휘를 교수할 때 문맥 중심 교수법이 특히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3장에서 분석하였듯이, 학습자는 완료상 보조동사를 정확하게 구별하여 쓰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므로 학습자에게 보조동사의 의미를 제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조동사 하나만을 개별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학습자에게 완료상 보조동사가 포함된 다양한 문맥을 만들어 제시하여, 학습자가 이를 통해 보조동사 ‘머리다’, ‘내다’, ‘말다’의 의미 차이를 인식해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여겨진다.

중급 이상의 학습자의 경우, 등급이 올라가면서 어휘량도 확대되기 때문에 주어어진 문맥을 통해 의미를 적절히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교수법은 본고에서 대상으로 삼은 대학 4학년 재학 중인 학습자들에게 매우 적절하다고 본다. 대학교 4학년 학습자들은 고급 학습자이며, 높은

수준의 한국어 실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문장 추론 및 이해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보조동사를 가르칠 때 문맥을 활용하여 의미를 추론 해내게끔 하는 교수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대략적인 교수 학습 단계는 다음 표와 같다.

<표 41> 문맥 중심 교수법의 교수 학습 단계

지도 단계	대화문이나 시문 기사와 같은 짧은 글을 제시하고, 교사는 중요한 정보를 강조하고, 해당 문형의 의미를 어떻게 추론하는 예시를 제시하기.
연습 단계 (의식 고양 과제)	학생들은 주어진 예문을 분석하여 목표 문형의 의미를 추론할 때 중요한 문맥적 정보를 발견한다. 그리고 목표 문형의 의미를 추측하기.
적용 단계 (의식 고양 과제)	a. 학습자가 주어진 글에 대한 추론을 시도한다. b. 교사가 학습자의 추론을 확인하거나 수정한다. c. 더 많은 예문을 제시하여 반복 연습한다.

문맥 중심 교수법을 활용한 이와 같은 수업 절차는 의식 고양 과제와 함께 활용될 수 있다. 즉, 위에서 제시한 활동 2를 진행하기에 앞서, 아래의 예문을 학습자들에게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학습자들로 하여금 이 예문에 쓰인 보조동사의 의미를 추론하여 설명하게 한다. 이후 교사가 전체적인 추론의 과정과 해당 완료상 보조동사의 의미를 명시적으로 설명한다. 학습자들은 이를 보고 과제를 수행한다. 지도 단계에서 제시할 수 있는 예문은 다음과 같다.

예문: 농민들이 전국적으로 의료 보험료 납부 거부 운동을 펼치는 등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여전히 제도는 바뀌지 않고 있다. 심지어 국회에서 통합 의보 실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을 통과시켰는데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의료 보험 제도의 개혁은 무산되고 말았다. 의료 보험 제도의 개혁으로 하루빨리 농민들도 도시인 못지않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sup>14)</sup>.

질문: 이 글에서 왜 ‘-고 말다’를 써요? ‘-고 말다’는 어떤 의미를 나타내요?

3명 정도의 학습자에게 대답을 듣고 나서, 목표 문형의 의미를 설명해 준다. 의미를 추론하는 과정을 기술한다. 이어서 활동 2를 진행한다.

14) 조성우(1992), 농민이야기주머니, 도서출판 녹두

#### 4. 완료상 보조동사의 교수·학습 실제

II장에서의 한국어 완료상 보조동사 ‘버리다’, ‘내다’, ‘말다’의 의미 및 통사적인 특징에 대한 분석과, III장에서의 습득 양상 분석 결과, 그리고 한국어 완료상 보조동사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등을 바탕으로, 본 절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적절한 완료상 보조동사 교육의 실제 수업 모형을 설계하고자 한다.

윤기옥(2002)에 따르면, 수업 모형이란 수업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교사가 수업의 구조 및 진행하는 절차를 결정 지어, 설계된 수업을 여러 수업 기법을 사용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수업 모형은 크게 상향식 접근 방식과 하향식 접근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상향식 교수 모형은 목표 문법을 사용하여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문법의 형태와 의미를 학습한 후에 생산을 유도하는 교수·학습 모형이다. 반면 하향식 모형은 의사소통 중심으로, 학습자가 목표 문형을 포함하는 문단, 과제 등을 이해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문법을 학습하는 교수·학습 모형이다.

이런 교수·학습 모형은 보조동사 ‘버리다’, ‘내다’, ‘말다’의 교수·학습에도 적용할 수 있다. 학습자가 완료상 보조동사인 ‘버리다’, ‘내다’, ‘말다’를 학습하는 첫 단계에서는 우선 각 보조동사의 개별적인 의미와 용법을 접하게 된다. 이때는 ‘버리다’, ‘내다’, ‘말다’의 다양한 의미와 통사적 규칙에 대한 명시적인 설명과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향식 모형을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 후에 ‘버리다’, ‘내다’, ‘말다’ 각각의 다양한 양태적인 의미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면, 세 보조동사 간의 유사한 의미 기능을 비교하는 학습이 필요하다. 이때는 하향식 교수 모형을 통하여 이 세 개 보조동사를 통합적으로 비교하여 교육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서 보조동사 ‘버리다’, ‘내다’, ‘말다’의 개별적인 의미 교육과, 문법 항목 간의 유사한 의미의 비교와 구별에 대한 수업 모형을 상향식 모형과 하향식 모형에 따라 마련하고자 한다. 전형적인 상향식 교수·학습 모형은 PPP 모형이다. PPP수업 모형은 제시(Presentation), 연습(Practice), 생성(Production)이라는 단계를 거쳐 목표 문형을 제시하고 연습시키고 발화하도록 하는 모형이다. 이 과정에 따라 보조동사 ‘버리다’, ‘내다’, ‘말다’의 개별 의미 학습에는 PPP 모형이 적절하다.

PPP모형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42> PPP 모형의 구성

문법 지식 학습	도입 단계: 주제 도입, 동기화 제시 단계: 문법 제시, 문법 이해, 이해 확인 연습 단계: 유의미한 연습 활동
문법 사용	활용 단계: 과제 활동, 과제 수행, 과제 평가 마무리 단계: 정리, 새 과제 부여

제시(Presentation) 단계는 학습자들에게 해당 문법을 제시하여 설명하는 단계이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학습자에게 문법 항목을 명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해 적절한 상황이나 맥락 속에서 목표 문법이 사용된 예문을 제시한다.

연습(Practice) 단계는 형태에 초점을 두고, 이를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내재화하는 단계이다. 교사는 학습자들이 목표 문법 형태를 사용하면서 오류를 범하지 않고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교사는 상황에 따라 간단한 설명을 제공하여, 학습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또한 형태를 활용하여 충분한 연습을 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도록 한다.

생산(Production) 단계는 학습자가 앞선 형태 연습을 바탕으로 출력하는 단계, 목표 문형을 직접 사용하는 단계이므로,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따라서 이때 교사는 학습자들이 목표 문법을 사용하여 적절한 의미를 생성하고, 그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과제 또는 역할극과 같은 활동을 유도할 수 있다.

한편 제시 단계에 앞서 도입 단계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이 단계에서는 교사가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목표 문법과 관련된 질문을 던지며 자연스럽게 목표 문법을 노출시킨다. 이때 학습자의 주의를 이끌기 위해 다양한 시각적인 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마무리 단계는 학습자가 활용단계에서 생성한 내용에 대해 교사가 피드백을 주고, 핵심적인 학습 내용을 다시 정리하는 단계이다. 통합적으로 보면 ‘도입 단계’, ‘제시 단계’는 학습자의 이해가 중심이고, ‘연습 단계’는 이해한 지식을 내재화하는 단계로, 사용단계의 준비 단계이고, ‘활용 단계’는 학습자의 사용이 중심이 되는 단계이다. 마무리 단계는 교사가 피드백을 주면서 학습 내용을 정리하는

단계이다.

하향식 수업 모형의 대표적인 예는 TTT 수업 모형이나 OHE 수업 모형이다. 앞서 3절에서 분석하였듯, 한국어 완료상 보조동사 간의 의미 차이는 매우 미묘하므로, 문맥을 통해 학습자가 스스로 그 의미 차이를 찾아내도록 하는 방법으로 교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루이스(Lewis, 1993)에서 제기한 OHE 모형은 학습자 스스로가 언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발견·인식하게끔 도울 수 있는 모형이다. 그러므로 한국어완료상 보조동사의 유사한 의미를 비교하는 데 OHE 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

OHE모형은 O(Observation, 관찰 단계), H(Hypothesis, 가설 단계), E(Experiment, 실험 단계)로 구성된다. OHE 모형을 적용하는 수업은 보통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먼저 학습자들은 주어진 학습 자료를 통해 목표 문형을 인식하는 관찰 단계를 거친다. 다음으로 학습자들은 관찰단계에서 추론한 목표 문형의 의미 기능과 용법을 분석하고, 내재된 문법 규칙에 대한 가설을 도출해 본다. 끝으로, 학습자들은 어휘항목을 통합적으로 사용해 보려는 탐구, 시도 단계를 거치며, 어휘항목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할 수 있는 의사소통 활동을 한다.

이와 같은 두 가지의 수업 모형을 종합하여 교수·학습 모형을 설정하고자 한다. 우선 수업 구성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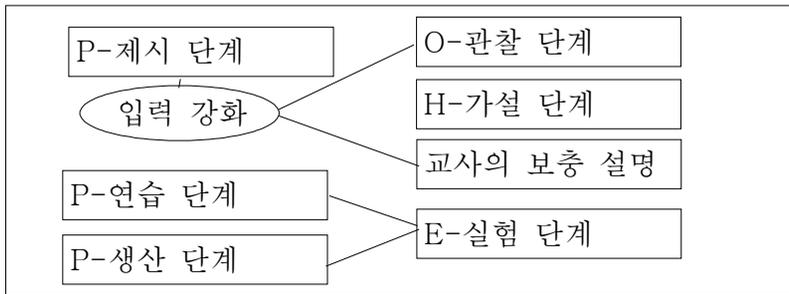
◎수업 구성

학습 대상	4학년 학습자
학습 내용	완료상 보조동사 ‘버리다’의 상적 의미, 양태적인 의미 및 통사적인 결합 관계
학습 목표	1. 보조동사 ‘버리다’의 상적인 의미, 양태적인 의미 및 통사적인 제약 파악하기 2. 보조동사 ‘버리다’를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능력 기르기
학습 시간	50분

수업은 구체적으로 총 5단계로 구성된다. 즉, 도입 단계, 제시 단계, 연습 단계, 활동 단계, 마무리 단계이다. 이는 PPP 모형에 따른 수업은 주로 ‘제시-연습

-생산' 3단계로 구성되고 OHE모형의 전형적인 수업은 '관찰-가설-실험' 단계인데 전체적인 수업은 PPP모형에 따라 구성되는 것이 더 적절하고, OHE 모형은 주로 제시 단계와 연습 단계에 적용된다. 즉 교사가 목표 문형을 제시하고 충분한 입력을 제공한 뒤에 OHE 모형에 따라 우선 학습자가 스스로 완료상 보조동사의 사용 맥락, 제약 등을 관찰하여 가설하는 것을 유도한다. OHE의 마지막 생산 단계는 PPP의 연습 단계와 활동 단계에 모두 해당된다. 즉 학습자가 자신의 관찰과 가설 토대로 교사의 설명을 듣고 나서 직접적으로 보조동사를 사용하는 단계이다. 연습 단계는 우선 난이도가 낮은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주어진 상황 제약이 심한 것부터 개방적인 상황으로 진행되는 단계이고 활동 단계는 개방성이 가장 높은 단계이며 학습자가 자유롭게 여러 가지 흥미로운 활동을 통해 실제적인 상황에서 목표 문형을 사용하여 발화를 시도하는 단계이다. 위에 검토한 내용을 정리하여 PPP모형과 OHE모형의 관계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3> PPP 모형과 OHE 모형의 관계도



이 두 모형을 종합해서 구체적인 수업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다. 여기서 '버리다'를 예시로 제시한다.

(1) 도입 단계 (5분 이내)

교사가 학습자의 생활 습관 등에 대해 학습자와 같이 간단하게 이야기한다. 대화에서 교사가 '버리다'를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버리다'의 '동작의 완료'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노출한다.

예: 교사: 여러분 만약에 용돈 15만원 받으면 사고 싶은 옷이 10만원인데 살거예요?  
 학생: 그냥 사요.

교사: 그러면 돈이 없이지죠.

그래도 그 옷을 너무 사고 싶어서 사 버렸어요.

(2) 제시 단계 (15분)

제시 활동 1

‘버리다’가 들어 있는 대화문을 만들고, ‘버리다’와 그에 결합하는 선행 동사에 줄을 긋거나 색을 넣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 학습자의 주의를 끈다. 대화문을 통해서 ‘버리다’의 완료의 의미 이외에 양태적인 의미인 ‘아쉬움’과 ‘시원함’을 선행 동사와 연관 지어 중국어로 설명한다. ‘버리다’에 결합하는 선행 동사의 유형을 대화문으로 제시해 준다.

대화문 (A)

A: 이제 옷을 다 샀는데 영화 볼까?

B: 미안. 난 영화를 못 볼 것 같아.

A: 아까 영화 보고 싶다고 했잖아?

B: 옷을 사는 데 돈을 다 써 버려서 영화 볼 돈이 없어.

대화문 (B)

A: 언니, 남은 국수는? 내가 지금 버리려고 하는데...

B: 국수? 그대로 놔두면 상할까봐 내가 다 먹어 버렸어.

A: 우와, 잘 했어.

설명 예시: 大家能從這兩段對話中體會到說話者B的不同心理嗎? 這兩段話中, B都對完成的時間進行了強調。但是對話A中, B的心態是對發生的事情, ‘錢花光了這件事感到可惜。而對話B呢, B是把剩飯吃掉了, 而消除了擔憂。(여러분, 이 두 대화를 읽으면 화자 B의 심리적인 태도에 어떤 차이를 느낄 수 있어요? 이 두 대화에서 화자 B는 모두 어떤 일이 끝남을 강조했어요. 대화 A에서는 화자 B가 돈을 다 쓴 것에 대한 자신의 ‘후회’나 ‘아쉬움’을 드러냈어요. 그러나 대화 B의 경우 화자 A가 남은 국수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데, 화자 B가 그 국수를 다 먹어서 이러한 걱정을 제거했어요. 다시 말해 여기서 ‘버리다’는 화자의 ‘부담 제거’, ‘시

원함'이라는 감정을 표현해요.)

<<참고>>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이다. 만약 귀납적인 방법이 잘 되지 않으면 교사가 적절한 명시적인 설명으로 수업 진도를 조절해야 한다.

### 제시 활동 2

※ 시간상 여유가 있으면, 대화문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고급 학습자의 동기 유발을 위하여 영화, 드라마, 연극 등 다양한 매체 수단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고급 학습자가 매체 내용을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에게 몇 개의 드라마에서 나온 장면을 보여주고 '버리다'의 구문의 의미를 추측하게 한다. 그리고 짝이나 그룹을 구성하여 본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기술하고, '버리다'가 나온 부분이 화자의 어떤 심리 태도를 나타냈는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한다. 그 후 조별로 논의된 '버리다'의 양태적인 의미에 대해 발표한다. 또는 두 그룹 정도를 골라, 감상한 드라마 내용을 바탕으로 보조동사 '버리다'를 사용하여 다시 대사를 만들어 연기하게 한다. '버리다'의 의미를 정확하게 썼는지에 대해 교사가 판단하고, 연기력 등에 대해 간단하게 평가해 준 뒤 상을 준다.

### (3) 연습 단계 (10분)

※ 이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학습한 내용을 사용하여 내재화하기 위해 반복 연습과 유의미한 연습 활동을 모두 실시한다. 연습을 통해서 학습자가 '버리다'의 의미·통사적 제약에 대해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예: '버리다'를 사용하여 각 문장이나 대화문을 완성하세요. 그리고 문장이나 대화문에서 화자의 심리적인 태도를 서술하세요.

1. 월급을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_\_\_\_\_
2. 30분이 지나도 친구가 오지 않아서 그냥 \_\_\_\_\_
3. 숙제를 끝내지 못하고 잠이 \_\_\_\_\_

(4) 활용 단계 (15분)

※ 이 단계에서는 말하거나 쓰기 과제를 통해 ‘버리다’의 실제 사용능력을 기른다. ‘친구와 술자리에서 대화하기’와 같은 실제 상황을 제공하고, 보조동사 ‘버리다’를 사용하여 대화를 만들게 한다.

예: A는 드디어 기말 리포트를 완성해 냈다. 오랫동안 못 만나던 친구들과 술 자리에 와 있다. ‘-아/어 버리다’를 포함하여 친구들과끼리 하는 대화 만들기. (2분 대화 만들기 + 2그룹 발표)

(5) 마무리 (3분)

※ 이 단계에서는 우선 교사가 학습자가 만든 내용을 평가한다. 그리고 다시 한번 ‘버리다’의 완료라는 상적 의미와, ‘아쉬움/후회스러움’과 ‘시원함/부담제거’의 양태적인 의미 및 주로 사용하는 선행 동사 등의 지식을 다시 정리하고 마무리한다.

## V. 결론

한국어의 보조동사는 통사적으로나 의미적으로 본동사를 도와서 동사의 서술 기능을 문법적으로 완전하게 해 줄 수 있는데, 시제와 상, 양태, 사동과 피동 등 다양한 문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보조동사는 현대 국어에서 사용 빈도가 높고 일상대화에서 자주 나타나는 표현으로, 한국어교육의 어휘와 문법 교육에 중요한 부분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동작의 완료된 모습을 나타내는 완료상 보조동사는 기본적으로 유사한 상적인 의미를 가지지만, 각각 나름의 양태적인 의미도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완료상 보조동사 중에 ‘버리다’, ‘내다’, ‘말다’는 비교적 사용 빈도가 높고, 의미·통사적으로 유사한 점이 많아 중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학습에 많은 어려움을 준다. 그러므로 중국인 학습자가 완료상 보조동사의 의미와 통사적인 제약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능력을 키우게 하기 위한 효과적인 교수 학습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I장에서 연구의 필요성을 밝혔으며 선행 연구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기존의 연구를 정리하면, 완료상 보조동사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국어학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는데, 한국어교육에서는 관련 연구가 적다. 특히 중국인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국어 대응 표현을 검토한 연구는 많지 않고, 그러한 연구에서도 중국인 학습자의 학습 양상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완료상 보조동사의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II장에서는 국어학의 보조동사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완료상 보조동사 ‘버리다’, ‘내다’, ‘말다’의 본동사의 의미, 상적인 의미, 양태적인 의미 및 통사적인 결합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보조동사 ‘버리다’, ‘내다’, ‘말다’는 공통적으로 완료라는 상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실제 사용에 있어 이들은 단지 ‘완료’의 의미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상황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드러내기도 한다. ‘버리다’가 쓰이는 구문은 화자나 주어의 ‘후회’나 ‘시원함’과 같은 심리적인 태도를 잘 나타내고, ‘내다’는 ‘어려움 극복’의 의미를 가지며, ‘말다’는 ‘원하지 않은 일이 끝났음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선어말 어미 ‘-겠-’과 결합되면 강한 의지를 표현하기도 한다.

이렇듯 개별 문형의 의미를 검토한 후에 이 세 문형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해 보았다. 또한 중국인 학습자의 학습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국어의 대응 표현

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이때 기존에 주로 논의되어 온 중국어의 결과보어에만 초점을 맞춰 대조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어와 한국어의 완료상 보조동사의 다양한 대응 관계를 살펴보았다.

III장에서는 이론적인 고찰을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완료상 보조동사에 대한 인식과 습득 양상 및 중국 현지에서의 한국어교육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조사는 중국의 대학교 한국어과에 재학 중인 4학년 학습자 62명에게 총 3차례로 진행하였다. 1차 조사는 보조동사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조사인데, 이를 통해 학습자의 완료상 보조동사 사용 빈도 및 인식 양상을 파악하였다. 2차 조사는 학습 양상 조사인데, 번역 테스트, 담화 완성 테스트, 문법성 판단 테스트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의 완료상 보조동사 습득 양상 및 자주 범하는 오류의 양상에 대해서 밝혔다. 마지막 3차 조사에서는 현재 받고 있는 한국어교육 과정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를 파악하였다. 3차례의 설문 조사를 거쳐 학습자의 인식, 습득 양상 및 교육과정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았고, 학습자가 자주 범하는 오류의 원인을 찾기 위하여 사후 인터뷰도 함께 실시하였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의 완료상 보조동사의 사용에 회피 현상이 종종 일어나고, 학습자들이 보조동사의 의미상 차이를 구별하지 못해 쉽게 혼동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중국인 학습자는 보조동사의 통사적인 결합 관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형태적인 오류도 많이 범한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오류 양상을 크게 모국어의 간섭에 의한 오류, 목표어의 복잡성에 의한 오류와 교육과정에 의한 오류, 이렇게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 오류 원인을 분석하였다.

IV장에서는 II장과 III장에서 고찰한 이론적인 내용과, 학습자의 인식 및 습득 양상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어 완료상 보조동사의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설계하였다. 우선 완료상 보조동사의 교육 목표를 종합적인 목표와 세부적인 목적으로 나누어 세우고, 교육 내용을 개별 보조동사의 교수 내용과, 보조동사의 유사한 의미에 대한 교수 내용으로 설정하였다. 설정한 교수·학습의 목표와 내용에 따라 형태 초점 접근법에 속하는 입력 강화 기법과 의식 고양 과제, 그리고 문맥 중심 교수법을 활용하여 교수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교수법을 선택한 까닭은 중국 대학에서의 현행 한국어교육은 여전히 교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학습자가 고급으로 올라갈수록 문법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상황에 맞게 고급 문법을 활용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위와 같은 교수법을 활용하면 학습자의 동기 부여 및 실제적인 상황에서 문법을 사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고 생각하였다. 마지막으로 PPP 모형과 OHE 모형을 활용한 교수·학습 모형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한국어 완료상 보조동사의 학습에 대한 중국인 학습자의 인식과 습득 양상 및 오류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완료상 보조동사 ‘버리다’, ‘내다’, ‘말다’의 의미적·통사적인 차이를 구별하여 상황에 맞게 보조동사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하기 위한 교육 내용 및 교수 방안을 설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논의를 일반화시키지 못했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또한 화용적 측면에서 완료상 보조동사 ‘버리다’, ‘내다’, ‘말다’의 쓰임을 확인할 수 있는 학습자의 구어 자료 및 양상을 살펴보지 못한 점이 본 연구의 한계이다. 향후 보조동사의 교육 방법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 참 고 문 헌

### 1. 자료

<한국어 교재>

북경대 등 25개 대학교 공저(2002), 표준한국어 1-4, 북경대학출판사.

북경대학 조선문화연구소(2009), 한국어(개정판) 1-3, 민족출판사.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2007), 한국어교정 1-6, 세계도서출판회.

### 2. 국내 논저

강보유(2002), 중국대학교에서의 한국어교육과 교수법, 한국어 교육 13-2, 국제한  
국어교육학회.

강홍구(1999), 국어 보조동사의 통사·의미론적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고영근 외(1986), 서법과 양태의 상관관계, 탑출판사.

고영근(2004), 한국어의 시제 서법 동작상, 태학사.

고영근·구본관(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고영근·남기심(1985), 국어의 통사 의미론, 탑출판사.

고영근·남기심(2014), 표준국어 문법론 제4판, 박이정.

구현정(1982), '내다'의 의미 연구, 상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국립국어연구원(2005),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2, 국립국어원.

김기혁(1987), 국어보조동사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기혁(1983), 보조동사의 생산성, 연세어문학 16,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김기혁(1989), 진행구성의 문법범주, 배달말 14, 배달말학회.

김명희(1984), 국어 동사구 구성에 나타나는 의미관계 연구: V1+어+V2, 이화여  
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석득(1992), 우리말 형태론: 말본론, 탑출판사.

김성화(1989), '-{지/다가/고} 말-'의 의미 기능, 국어국문학 102, 국어국문학회.

김성화(2003), 국어의 상 연구, 한신문화사.

김소연(2003), 보조용언 '버리다, 보다, 가다, 주다'의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연희(2009), 現代 韓國語 終結相 補助動詞에 對한 研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영태(1997), 현대국어보조용언 연구, 문창사.

- 김용석(1983), 한국어 보조동사 연구, 배달말 8, 배달말학회.
- 김재욱(2009), 한국어 교사 교육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교육과정 분석,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9,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김지은(1998), 우리말 양태용언 구문 연구, 한국문화사.
- 김한샘(2012), 국어 보조 용언 교육 연구, 泮矯語文研究 33, 반교어문학회.
- 김효신(2007), 완료표현 ‘-고 말다’와 ‘-어 버리다’의 한국어 교육학적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진홍(2011), 보조동사 “버리다”와 “말다”의 의미기능연구, 중국조선어문 173, 길림성민족사무원위원회.
- 文璿永(2014), 상 범주의 의미와 종류에 관한 몇 문제, 진단학보 120, 진단학회.
- 민현식(1999), 국어 문법 연구, 도서출판 역락.
- 민현식(2004), 한국어 표준교육과정 기술 방안, 한국어 교육 15-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민현식(2008), 한국어교육을 위한 문법 기반 언어 기능의 통합 교육과정 구조화 방법론 연구, 국어교육연구 22,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박덕유(1998), 국어의 동작상 연구, 한국문화사.
- 박덕유(2010), 한국어의 시상 범주와 표현에 대한 연구 -상을 중심으로-, 우리말 연구 26, 우리말학회.
- 박선옥(2005), 국어 보조동사의 통사와 의미 연구, 도서출판 역락.
- 박선옥(2006), 補助動詞 ‘버리다’와 ‘치우다’가 쓰인 구문에 대한 統辭論的·意味論的 연구, 어문연구 34-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박선옥(2008), 完了相 표현의 보조동사 ‘버리다’와 ‘내다’에 대한 通時的 研究, 어문연구 36-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박진호(1998), 문법 연구와 자료, 태학사.
- 방성원(2003), 고급 교재의 문법 내용 구성 방안, 한국어 교육 14-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서정수(1978), 국어의 보조동사, 언어 3-2, 한국언어학회.
- 서정수(1990), 국어 문법의 연구, 한국문화사.
- 서정수(2006), 국어문법, 뿌리깊은나무.
- 성환갑·박선옥(2000), 國語 補助動詞의 意味 研究: ‘-어 가다/오다/내다/버리다’를 대상으로, 인문학연구 30, 중앙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손세모돌(1994), 보조 용언의 의미에 관한 연구-“두다/놓다, 버리다, 내다”를 중심으로-, 한글 223, 한글학회.

손세모돌(1996), 국어 보조용언 연구, 한국문화사.

안명철(1990), 국어의 융합 현상, 국어국문학 103, 국어국문학회.

왕례량(2006), 한국어 보조용언과 중국어와의 대조 연구, 문법 교육 5, 한국문법교육학회.

우형식(2012), 한국어 문법 교육에서 형태 초점 접근법을 적용하는 문제, 한어문 교육 26,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유목상(1980), 국어의 보조서술사에 관한 연구, 蘭汀 南廣祐博士 華甲記念論文集, 一潮閣.

윤기옥 외(2002), 수업 모형의 이론과 실제, 학문출판.

이관규(1992), 국어 대응구성 연구, 서광학술자료사.

이남순(1981), 현대국어의 시제와 상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명화(2010), 한국어 ‘-어 버리다’와 중국어 ‘掉’의 대조 연구, 동아인문학 18, 동아인문학회.

이선웅(1995), 현대국어의 보조용언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정희(2003), (한국어 학습자의)오류 연구, 박이정.

이주행(1976), 국어 조동사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완기(2006), 초등영어 놀이와 게임, 한국문화사.

이유경(2009), 한국어 어휘 교육 연구를 위한 이론의 고찰, 한국어 교육 20-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이혜윤(2012), 보조용언 ‘버리다’의 표현적 의미, 언어와 언어학 55,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장미라(2006), 한국어 보조 용언의 상적, 양태적 의미 기능과 통사적 특징: “놓다, 두다, 버리다, 내다, 말다, 치우다”를 중심으로, 배달말 38, 배달말학회.

장수진(2008), 한국어 보조용언과 중국어와의 대조 연구, 문법 교육 5, 한국문법교육학회.

전원홍(2013), 한어(韓語) ‘V+ 버리다’여(與)한어(漢語) ‘V+ 도(掉)’적(的) 비교(比較), 中國學論叢 39,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조성우(1992), 농민이야기주머니, 도서출판 녹두.

최동권(1986), 진행상 표현의 상조동사, 국어학 신연구.

최은규(2013), 한국어 교재의 문법 교수요목의 현황과 개선 방안 연구, 국어교육 연구 32,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최재희(1996), 국어 의존동사 구문의 통사론-‘싶다, 보다, 하다’를 중심으로-, 한글 232, 한글학회.

최해주(2006), 한국어 교육을 위한 보조용언의 의미 범주 설정 및 그 활용 방안, 새국어교육 74, 한국국어교육학회.

최현배(1937), 우리말본, 정음사.

한송화(2000), 한국어 보조용언의 상적 기능과 양태기능, 화행적 기능에 대한 연구: ‘하다’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11-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허 웅(1975),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홍사만(2008), 보조동사 {내다}와 {버리다}의 양태적 기능 대비, 語文學101, 한국어문학회.

Wong Wynne(2011), 입력 강화: 이론과 연구에서 교실까지, 한국문화사.

### 3. 국외 논저

Bot, D. K., Ginsberg, R. B. & Kramsch, C.(1992), Foreign Language Research in Cross-cultural Perspective,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Brown, H. D.(2000),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Longman.

Comerie, B.(1976), Aspect, Cambridge University Press.

Doughty, C. & Williams, J.(1998), Focus on Form in Classroom Second Language Aquis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Ellis, R.(1997), SLA Research and Language Teaching, Oxford University Press.

James, C.(1998), Errors in Language Learning and Use, Longman.

Jespersen, O.(1924), The Philosophy of Grammar, Norton.

Larsen-Freeman, D.(2003), Teaching Language: From Grammar to Grammmaring, Thomson/Heinle.

Lewis, M.(1993), The Lexical Approach: the State of ELT and the Way Forward, Language Teaching Publications.

Long, M.(1991), Focus on form: A Design Feature in Language Teaching

Methodology, Foreign Language Research in Cross-cultural Perspectives,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Long, M. H. & Robinson, P.(1998), Focus on Form: Theory, Research, Practice, Focus on Form in Classroom Second Language Acquis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lson-Herber, J.(1986), Expanding and Refining Vocabulary in Content Area, Journal of Reading 29-7, International Literacy Association.

Pica, T.(1987), Second-Language Acquisition, Social Interaction, and the Classroom, Applied Linguistics 8-1, Oxford University Press.

Rivers, W. M.(1981), Teaching Foreign-Language Skill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Smith, C. S.(1991), The Parameter of Aspect,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Smith, M. S.(1981), Consciousness Raising and the Second Language Learner, Applied Linguistics 11-2, Oxford University Press.

Sökmen, A.(1997), Current Trends in Teaching Second Language Vocabulary, Vocabulary Descriptions, Acquisition and Pedagogy, Cambridge University.

Thornbury, S.(1999), How to Teach Grammar, Longman.

郭振華(2000), 簡明漢語語法, 華語教育出版社.

呂叔湘(1979), 漢語語法分析問題, 商務印書館.

彭國珍(2011), 結果補語小句理論與現代漢語動結式相關問題研究, 浙江大學出版社.

施春宏(2008), 漢語動結式的句法語義研究, 北京語言大學出版社.

石慧敏(2011), 漢語動結式的整合與歷時演變, 復旦大學出版社.

王力(1943), 中國現代語法, 商務印書館.



1. 您平时使用下列个语法点的频率如何

(1 从未使用过--3 一般--5 经常使用)

어 버리다: 1 2 3 4 5

-어 내다: 1 2 3 4 5

-고 말다: 1 2 3 4 5

2. 您认为您对下列个语法点的掌握程度如何

(1 不清楚 -- 3 一般 -- 5 清楚的了解)

어 버리다: 1 2 3 4 5

-어 내다: 1 2 3 4 5

-고 말다: 1 2 3 4 5

3. 请写出下列语法点的含义：

(아래의 표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의미 및 용법을 써 주십시오.)

1.-어 버리다:

2.-어 내다:

3.-고 말다:

I. 아래의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해 주십시오.

1. 他终于离开了。

2. 结果什么也没得到。

3. 为了实现目标, 有再大的困难我也会忍受。

4. 小时候的不愉快的记忆差不多忘光了。

5. 来韩国留学不长时间, 钱都花光了。

6. 她经过了刻苦地努力, 终于获得了学位。

II. 아래의 문장이나 대화를 읽고 ( )에 들어갈 알맞은 답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7. A와 B는 하루 종일 굶었다. 그러나 집에 과자밖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 A는 배가 너무 고파서 B에게 물어보았다.

A: 형, 이 과자 먹어도 돼?

B: 응, 그렇지만 다 ( ) 안 돼. 나도 먹고 싶은데. (떡다)

a. 먹어 내면    b. 먹어 버리면    c. 먹어 놓으면    d. 먹고 말면

8. B가 첫 월급을 받아 친한 친구 A에게 전화를 걸었다.

B: 나 첫 월급을 받았어.

A: 진짜? 그 사장 월급은 제대로 안 주는 편이라고 들었는데 네가 어떻게 돈을 받았어?

B: 매일 사장님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해서 마침내( ). (받다)

a. 받아 버렸어    b. 받아 갔어    c. 받고 말았어    d. 받아 냈어

9. 기말고사가 끝난 후에 A와 B는 같이 밥 먹고 있다. A는 새해의 목표들을 세우고 B에게 말해주었다.

A: 내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세운 계획은 꼭 ( ). (이루다)

B: 야 너 작년도도 그렇다고 했잖아? 말만 하지 말고 행동 좀 해라.

a. 이루어 버리겠다    b. 이루어 가겠다    c. 이루고야 말겠다    d. 이루어 내겠다

10. B는 원래 머리가 길어서 예뻐는데 갑자기 머리를 자르고 왔다. A가 물어보았다.

A: 너 긴 머리가 예뻐는데 어떻게 된 거니??

B: 아, 그냥 (            ). (자르다)

A: 그랬구나. 아쉽네.

a. 잘라 냈어    b. 잘라 버렸어    c. 자르고 말았어    d. 잘라 왔어

11. 다음 주 ‘내가 존경하는 인물’을 소개하는 발표가 있다. 수업 시간에 교사가 학생들에게 존경하는 인물과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게 한다. 이제 B의 차례이다.

B: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에디슨입니다.

A: 왜요?

B: 에디슨은 항상 성공만 한 것이 아니지만 여러 번의 실패 후에 마침내 전기를 (            )

a. 발명해 냈습니다.

b. 발명해 버렸습니다.

c. 발명하고 말았습니다.

d. 발명해 있습니다.

12. A는 원래 지수하고 친한 친구였는데 얼마 전에 둘이 싸웠어. A의 친구 B는 둘이 지금 사이 어떤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A가 그렇게 답했다.

A: 어제 지수랑 밥 먹었어.

B: 진짜?

A: 응. 나 내 비밀을 다 (            ). 이제 마음이 편해. 애도 나를 용서해줬대. (말하다)

B: 오해를 잘 풀어서 다행이네.

a. 말해 버렸어요    b. 말해 냈어요    c. 말하고 말았어    d. 말해 놓았어요

13. A는 오랫동안 못 만났던 친구B와 식당에서 우연히 만났다.

A: 정말 오랜만이다. 여자 친구와 잘 지내?

B: (슬픈 표정으로) 아니, (            ). (헤어지다)

A: 무슨 일이 있었어?

B: 성격이 서로 달라서 자주 싸웠거든.

a. 헤어지고 말았어    b. 헤어져 버렸어    c. 헤어져 냈어    d. 헤어져 놓았어

14. 한여름이다. B는 아침을 먹었을 때 남은 국수를 버리려고 했는데 찾지 못했

다. A에게 물어 보았다.

A: 언니, 남은 국수는? 나 버리려고 하는데...

B: 국수? 그대로 놔두면 상할까봐 내가 다 ( ). (먹다)

A: 우와. 잘했어.

- a. 먹고 말았어      b. 먹어 냈어      c. 먹어 놓았어      d. 먹어 버렸어

15. <말다-문어-기대에 어긋남>

[농민 의보 정책에 대한 신문 기사이다.]

농민들이 전국적인 의료 보험료 납부 거부 운동을 펼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여전히 제도는 안 바뀌고 있다. 심지어 국회에서 통합 의보 실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을 통과시켰는데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의료 보험 제도의 개혁은 ( ).(무산되다) 의료 보험 제도의 개혁으로 하루빨리 농민들도 도시인 못지않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a. 무산돼 냈다    b. 무산되고 말았다    c. 무산돼 놓았다    d. 무산돼 버렸다

III. 아래의 문장 맞으면 O, 어색하면 X로 체크해 주십시오.

16. A는 일 년 사이에 키가 많이 커 버렸다. (O, X )  
17. A는 영화를 보고 슬퍼서 울어 버렸다. (O, X )  
18. 친구의 소식을 듣고 슬프고 말았어요. (O, X )  
19. 담배를 끊어 버리세요. (O, X )  
20. A는 문을 닫아 버렸다. (O, X )  
21. 약속을 어겼고 말았어요. (O, X )  
22. 끝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말았다. (O, X )  
23. A는 책을 읽고 슬퍼서 울어 냈다. (O, X )  
24. A는 친구의 말을 그대로 믿어 버렸다. (O, X )  
25. 꽃이 시들어 냈다. (O, X )  
26. 부장님께서 맡기신 이 일을 기어이 해 내고 말겠어. (O, X )  
27. A는 중간시험에서 B를 이겨 버렸다. (O, X )  
28. 나는 그 책을 다 읽지 못하고 말았다. (O, X )  
29. 그녀는 예뻐 냈다. (O, X )  
30. A는 친구의 말을 그대로 믿어 냈다. (O, X )  
31. A도 한국어 시험에 합격하고 말겠어요. (O, X )  
32. 나는 이번 방학엔 살을 빼 버리겠어. (O, X )

33. 그 강아지는 사고로 죽어 버렸다. (O, X )
34. A는 일 년 사이에 키가 많이 커 냈다. (O, X )
35. 선생님께서 교실 청소를 혼자 다 하셔 버렸어. (O, X )
36. 이번 게임에서는 반드시 이기고 말겠다. (O, X )
37. 담배를 끊고 마세요. (O, X )
38. 돈을 다 썼어 버렸어요. (O, X )
39. 그 고양이는 사고로 죽어 냈다. (O, X )
40.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아요. (O, X )
41. 네가 먹어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O, X )
42. 그녀는 혼자서 멋진 집을 만들어 냈다. (O, X )
43. 책을 읽고 말지 못했다. (O, X )
44. 아버지께서는 떠나고 마셨다. (O, X )
45. 밥을 못 먹어서 배가 고파 버렸어요. (O, X )

1. 你在学校相关韩语课程中有学习过"-어 버리다"的意义及用法吗？

\_\_\_\_\_

. 你在学校相关韩语课程中有学习过"-어 내다"的意义及用法吗？

\_\_\_\_\_

. 你在学校相关韩语课程中有学习过"-고 말다"的意义及用法吗？

\_\_\_\_\_

2. 课堂中，教师针对这些语法点是如何进行教学的？

\_\_\_\_\_

3. 您对教师的教学方法满意吗？

(1-非常不满意 2-不满意 3-一般 4-比较满意 5-非常满意)

1                      2                      3                      4                      5

4. 如果课堂上老师没有讲解，您是以何种方式学习了解这些语法点的呢？

\_\_\_\_\_

5. 您认为教材中的释义及例句能很好地帮助您理解这些语法点吗？

例 1(예) : -어 버리다 表示彻底完了的意思

그 일을 벌써 다 끝내 버렸어요?

例 2 : -고 말다 表示动作的最终完成，相当于汉语的“最终...”

말았던 일을 어제 다 끝내고 말았다.

例 3 : -어 내다 用于他动词后，表示该动作做到底，最后得到某种结果  
직원들이 모두 힘을 합해서 어려움을 이겨 낸 결과겠지요.

(1-绝对不能 2-不能 3-一般 4-能 5-非常能)

1                      2                      3                      4                      5

6. 您认为教材不能很好的帮您理解这些语法点的原因是

\_\_\_\_\_

## Abstract

# A Study on Education of the Korean Perfect Aspect Auxiliary Verb ‘Beorida’, ‘Neda’, ‘Malda’ for Chinese Korean Learners

Gao Yubing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Foreigners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organize concrete and effectiv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of Korean perfect aspect auxiliary verbs ‘beorida’, ‘neda’, ‘malda’ based on analyzing advanced Chinese learners’ Korean language usage, patterns and the error causes of ‘beorida’, ‘neda’, ‘malda’.

The first chapter presents the main goals of the research and how the research was conducted. It also includes a brief summary of the previous related researches. It points out the problems left unsolved in earlier studies as well.

In Chapter II, the paper mainly focuses on the forms, syntactic characteristics of ‘beorida’, ‘neda’, ‘malda’. It also includes the semantic analysis in terms of aspect, modality and manner of ‘beorida’, ‘neda’, ‘malda’. All of the three auxiliary verbs express completion of an action but they differ from one each other subtly. Each of them differs from one another in the perspective of modality. They all indicate positive or negative meanings of a speaker’s behavior. This chapter also compares the similarity among the three auxiliary verbs and also tries to distinguish their subtle

differences in meaning. At last, based on all the analysis done about the three verbs, we try to compare them with their Chinese correspondent expressions, which indicates that they have a very complicated correspondent relationship.

In Chapter III, based on all the analysis we've done in Chapter II, we try to investigate how Chinese learners use and understand the three auxiliary verbs 'beorida', 'neda' and 'malda'. We designed a full set of text questions, including 'Grammatical Judgement Test', 'Translation Test' and also 'Discourse Completion Test'. We distributed the surveys to 62 Chinese college senior Students and 43 Korean native speakers as well to see the differences between local speakers and foreign learners in aspect of the use of auxiliary verbs 'beorida', 'neda', 'malda'. In addition, a follow-up interview with 10 students from the Chinese group was also done after all the test papers were collected in order to find out how they think when using 'beorida', 'neda', 'malda'. Based on all the test results, we analyzed the Chinese learner' error causes, which could be sorted into three types—the influence of native language, complexity of target language and the influence of the curriculum students receive.

In Chapter IV, we integrated analysis results of Chapter II and III to design educational goals and content of Korean auxiliary verbs 'beorida', 'neda', 'malda' for Chinese learners'. We designed the lesson based on focus-on-form approaches and input enhancement approaches and developed an effective teaching and learning model.

Till now, the previous researches focusing on Korean auxiliary verbs 'beorida', 'neda', 'malda' from an educational perspective are not quite enough. In addition, the majority of previous researches haven't included much about Chinese students' use of all the perfect aspect auxiliary verbs. Therefore, this paper mainly focuses on how Chinese advanced learners use Korean perfect aspect auxiliary verbs 'beorida', 'neda', 'malda', which will give some information on how to enhance Chinese student's communication skills and abilities using Korean language. But as the research is done based

on a small group of students, more deeper researches focusing on this issue are expected.

*Key words: Korea Language Education, perfect aspect auxiliary verbs, Chinese learners, focus-on-form*

*Student Number: 2014-25216*